



중학 국어

[비문학 독해 ③]

정답과 해설

포틀래치에 대한 다양한 해석

북아메리카 원주민들에게는 독특한 방식으로 선물을 주는 ‘포틀래치(potlatch)’라는 관습이 있다. 『행사를 연 마을의 수장은 자신이 쌓아 온 재물을 초대받은 다른 마을의 수장들에게 무료로 나누어 주기도 하고, 심지어 그것을 파괴하기도 한다. 손님들은 선물을 받고 자기 마을로 돌아와 ‘복수’를 맹세하는데, ‘복수’의 방법이란 그동안 선물을 준 사람들에게 답례 포틀래치를 열어 자기가 받은 것보다 더 많은 선물을 제공하는 것이다.』

→ 1문단: (포틀래치)의 개념 및 특징

초기 인류학자들은 이러한 포틀래치라는 관습을 자신의 재산을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주는 일반적인 증여로 파악하고, 위신 (초기 인류학자들의 포틀래치에 대한 해석) 을 얻기 위해 재산을 탕진하는 비합리적인 생활양식으로 이해하였다. 하지만 모스와 레비스트로스 같은 후대 인류학자들은 포틀래치를 호혜적 교환 행위로 바라보았다. 호혜적 교환이란 (후대 인류학자들의 포틀래치에 대한 해석) 사물의 가치를 측정하여 같은 값으로 교환하는 행위와는 달리, (일반적인 교환의 방식) 돌려받을 대가나 시기를 분명하게 정하지 않고 사물을 교환하는 방식을 말한다. 모스는 포틀래치가 자발성을 띤 증여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교환의 성격을 지닌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선물을 받은 사람은 의무적으로 답례를 해야 하며 더 많은 선물을 돌려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모스는 이러한 포틀래치가 집단 간의 유대 관계를 형성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모스의 관점에서 본 포틀래치의 기능)

→ 2문단: 포틀래치에 대한 초기 인류학과 (후대 인류학자)의 해석 차이

레비스트로스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포틀래치에 나타나는 호혜적 교환을 사회가 성립되는 원리로 제시하였다. 폐쇄적인 집 (호혜적 교환이 사회 성립을 위해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함) 단은 환경의 변화나 주변의 침략에 쉽게 무너질 수 있으므로, (호혜적 교환이 사회 성립을 위해 필요한 이유) 인간은 생존하기 위해서 교환을 하며 다른 집단과 사회적 유대를 맺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때 포틀래치와 같이 상대방에게 선물을 주는 행위가 상대방에게 부채감을 주고, 이 부채감이 다시 선물을 주는 행위로 이어지게 만들어 결국 교환이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것이다. 한편 다른 집단과 동맹을 맺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집단과 결혼을 하는 것이므로, 레비스트로스는 교환을 (사회 성립을 위한 관습) 위해 ‘친족 간의 결혼 금지’가 만들어졌다고 말한다. 그는 친족 간의 결혼 금지로 인해 우리 부족의 사람이 다른 부족으로 넘어가고, 새로운 사람이 우리 부족에 들어오는 호혜적 관계가 형성되었으며, 이를 통해 부족 간의 호혜적 교환이 가능해져 사회적 공동체가 형성되었다고 주장한다.

→ 3문단: 포틀래치에 대한 레비스트로스의 해석

이처럼 레비스트로스는 포틀래치를 사회 규칙이라는 체계의 틀에서 이해하고자 하였다. 그에 따르면 친족 간의 결혼 금지와 같은 결혼 제도도 인간의 본성이 아닌 사회적 유대 관계를 형성 (사회 구조)

01 ⑤ 02 ⑤ 03 ① 04 ④ [① 재산 ② 호혜적 ③ 포틀래치 ④ 사회 구조 ⑤ 구조주의]

하는 구조 속에서 만들어진 결과이다. 이렇게 인간을 비롯한 대상의 의미나 본질은 전체 안에서 다른 것들과 맺은 관계 때문에 결정된다는 관점을 ‘구조주의’라고 한다. 이 관점에 따르면 인간은 결단의 주체가 아니며 인간의 특성과 정체성은 인간 스스로 인간이 어떠한 행동, 관습을 결정하는 것이 아닌, 결정하는 것이 아닌 그가 속한 사회 구조에 의해 결정된다. 또한 인간은 어떤 고립된 개인이 아니다. 사회 구조가 인간을 만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 들기 때문에, 인간을 이해하려면 인간의 행동보다는 그 인간이 속한 사회 구조를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입각하면 현대인들의 삶의 변화는 (㉠)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 4문단: (구조주의)의 개념과 구조주의 관점에서 본 인간

- 2021학년도 9월 고1 학력평가

» **지문 해제** 이 글은 북아메리카 원주민들이 상대방에게 선물을 주는 관습인 포틀래치에 대해 설명하고, 그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포틀래치를 일반적 증여로 이해한 초기 인류학자들의 관점과 포틀래치를 호혜적 교환으로 이해한 후대 인류학자들의 관점을 대비하고, 호혜적 교환을 사회가 성립되는 원리로 제시한 레비스트로스에 주목하여 구조주의의 관점에서 인간을 설명하고 있다.

01 이 글에서는 포틀래치의 개념과 포틀래치에 대한 초기 인류학자들의 해석, 후대 인류학자들의 해석을 설명하고, 그 가운데서도 구조주의의 관점을 가진 레비스트로스의 해석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구조주의의 개념과 구조주의가 인간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만, 인류가 발전해 온 과정을 설명하지는 않았다.
- ② 일반적인 증여와 호혜적 교환 행위의 차이점에 대해 다루기는 하였지만, 이는 포틀래치를 설명하기 위한 것일 뿐 중심 내용은 아니다.
- ③ 포틀래치에 대해 설명하고 친족 간 결혼 금지 관습에 대해서도 설명하였지만, 이들의 관계를 중심 내용으로 하고 있지는 않다.
- ④ 포틀래치가 현대에 사라진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02 2문단에서 모스는 포틀래치가 교환의 성격을 지닌다고 하였다. 북아메리카 원주민들이 선물을 돌려받을 시기를 정하지 않은 것은 맞지만 이는 호혜적 교환의 방식으로 실제로는 증여가 아니라고 본 것이다.

오답 풀이

- ① 4문단에서 레비스트로스는 친족 간의 결혼 금지와 같은 결혼 제도도 인간 본성이 아닌 사회적 유대 관계를 형성하는 구조 속에서 만들어진 결과라고 보았음을 알 수 있다.
- ② 3문단에서 레비스트로스는 포틀래치와 같이 상대방에게 선물을 주는 행위가 상대방에게 부채감을 주고, 이 부채감이 다시 선물을 주는 행위로 이어지게 만들어 결국 교환이 이루어지도록 한다고 보았음을 알 수 있다.
- ③ 1문단에서 북아메리카 원주민들은 선물을 받은 뒤 자기가 받은 것보다 더 많은 선물을 제공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④ 2문단에서 모스는 선물 교환의 성격을 띠는 포틀래치가 집단 간의 유대 관계를 형성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았음을 알 수 있다.

인간의 본성에 대한 정약용의 관점

03 구조주의는 인간의 특성과 정체성은 인간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가 속한 사회 구조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므로, 현대인들의 삶의 변화 역시 현대 사회의 구조 변화에 기인한다고 볼 것이다.

○답 풀이

- ② 구조주의에 따르면 현대인들의 삶의 변화가 삶에 대한 태도 변화를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의 사회 구조 변화가 현대인들의 삶의 변화를 유발한다.
- ③ 현대인들의 삶의 변화는 사회의 구조나 체계의 틀의 변화에 따른 것이다. 삶의 변화가 사회의 구조나 체계의 틀을 전복하는 것은 아니다.
- ④ 구조주의가 과거의 삶의 방식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고 말하는 관점은 아니다.
- ⑤ 구조주의가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배려하는 방향으로 삶의 방향이 나아가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지는 않는다.

04 4문단에서 구조주의 관점에서는 인간의 특성과 정체성이 인간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속한 사회 구조에 의해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마오리족이 타옹가에 하우가 있다고 여기는 풍습, 사상 역시 마오리족의 본성에 의해 형성된 것이 아니라 사회 구조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답 풀이

- ① 2문단에서 초기 인류학자들은 포틀래치라는 관습을 위신을 얻기 위해 재산을 탕진하는 비합리적인 생활양식으로 이해하였다고 하였다. 따라서 마오리족이 타옹가를 주고받는 풍습 역시 비합리적인 생활양식으로 볼 것임을 알 수 있다.
- ② 3문단에서 후대 인류학자인 레비스트로스는 부족 간의 호혜적 교환이 가능해져 사회적 공동체가 형성되었다고 하였다. 호혜적 교환을 사회적 공동체 형성의 원인으로 본 것이다. 그렇다면 <보기>에서 호혜적 교환으로 묘사된 '타옹가' 풍습에 대해서 후대 인류학자들은 사회적 공동체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할 것임을 알 수 있다.
- ③ 2문단에서 포틀래치 관습을, 선물을 받은 사람이 의무적으로 답례를 해야 하고 더 많은 선물을 돌려주어야 하는 호혜적 교환 행위로 본 후대 인류학자들은 <보기>에서 마오리족의 타옹가 역시 같은 이유로 호혜적 '교환' 행위로 볼 것이다.
- ⑤ 4문단에서 인간을 비롯한 대상의 의미나 본질은 전체 안에서 다른 것들과 맺은 관계 때문에 결정된다는 관점이 구조주의라고 하였다. 따라서 구조주의 학자들은 타옹가의 풍습이나 그에 담긴 생각 역시 다른 대상들과 맺은 관계, 즉 구조 속에서 결정된 것이라고 볼 것이다.

핵심 구조화

① 증여 ② 교환 ③ 레비스트로스 ④ 구조주의

쉬운 어휘·어법

1 (1) 위신 (2) 위세 (3) 위압 2 (1) 증여 (2) 탕진 (3) 도달 3 ①

3 ①과 ③에서 '주다'는 '물건 따위를 남에게 건네어 갖게 하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②에서 '주다'는 '시간 따위를 남에게 허락하다.', ③에서 '주다'는 '남에게 어떤 일이나 감정을 겪게 하다.', ④에서 '주다'는 '-어 주다'의 형태로 사용된 보조 동사로, 앞 동사의 행위가 다른 사람의 행위에 영향을 미침을 나타낸다. ⑤에서 '주다'는 '남에게 경고, 암시 따위를 하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정약용은 조선 후기의 실학자로, 인간의 본성에 대한 탐구를 통해 인간의 선한 행위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그는 이전까지 절대적 권위를 가지고 있던 주희(朱熹)의 주자학을 비판하며 인간의 본성에 대한 자신의 이론을 정립했다는 점에서 주희와는 다른 관점을 보여 주었다.

→ 1문단: 인간의 본(性)에 대한 이론을 정립한 정약용

주희는 인간의 본성을 '본연지성(本然之性)'과 '기질지성(氣質之性)'으로 설명하였다. '본연지성'은 인간이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순수하고 선한 본성이고, '기질지성'은 본연지성에 사람마다 다른 기질이 더해진 것으로 사람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그

래서 주희는 인간의 기질이 맑으면 선한 행위를 하고 탁하면 악한 행위를 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정약용은 선한 행위와 악한 행위의 원인을 기질이라는 선천적 요인으로 본다면 행위에 인간의 의지가 개입되지 않으므로 악한 행위를 한 사람에게 윤리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희의 관점을 비판하였다.

→ 2문단: 주(朱)의 관점에 대한 정약용의 비판

정약용은 인간의 본성을 '기호(嗜好)'라고 보았다. 기호란 즐기고 좋아한다는 뜻으로, 생명이 있는 모든 존재는 각각의 기호를 본성으로 갖는다고 보았다. 평은 산을 좋아하는 경향성을 갖고 버는 물을 좋아하는 경향성을 갖는 것처럼, 인간도 어떤 경향성을 갖는다는 것이다. 정약용은 인간에게 ㉠ '감각적 욕구에서 비롯된 기호'와 ㉡ '도덕적 욕구에서 비롯된 기호'가 있다고 보았다. 감각적 욕구에서 비롯된 기호는 생명이 있는 모든 존재

가 지니는 육체의 경향성이다. 도덕적 욕구에서 비롯된 기호는 인간만이 지니는 영혼의 경향성이다. 정약용은 감각적 욕구가 생존에 필요하고 삶의 원동력이 된다는 점에서 일부 긍정했으나, 감각적 욕구에서 비롯된 기호를 제어하지 못할 경우 악한 행위가 나타날 수 있고, 도덕적 욕구에서 비롯된 기호를 따른 선한 행위와 악한 행위의 원인은 기질이 아니라 기호라고 볼 경우 선한 행위가 나타난다고 보았다. 정약용은 선한 행위를 하거나 악한 행위를 하는 것이 온전히 인간의 자유 의지에 달려 있으므로, 악한 행위를 한 사람에게 윤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았다.

→ 3문단: 본성을 기(情)로 설명한 정약용

그래서 정약용은 자유 의지로 선한 행위를 선택하고 이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는데, 구체적인 실천 원리로 '서(恕)'를 강조하였다. ㉢ 그는 '서'를 용서(容恕)와 추서(推恕)로 구분하고, 추서를 특히 강조하였다. 용서는 타인을 다스리는 것과 관련되어 '타인의 악을 너그럽게 보아줌'을 의미하고, 추서는

자신을 다스리는 것과 관련하여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타인
을 대우함'을 의미한다. 친구가 거짓말을 했을 때 잘못을 덮어
주는 행위는 용서이고, 내가 아우의 존중을 받고 싶을 때 내가
먼저 형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 주는 행위는 추서인 것이다.
정약용은 추서는 자신의 마음을 미루어 타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으므로, 추서에 따라 선한 행위를 실천해야 한다고 보았
다.

→ 4문단: 선한 행위의 구체적 실천 원리로서의 [서]

- 2021학년도 6월 고1 학력평가

» **지문 해제** 이 글은 인간의 본성에 대한 정약용의 관점을 설명하고 있다. 주희
가 인간의 본성을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으로 설명한 것과 달리 정약용은 인간의
본성을 기호로 설명하였다. 정약용은 선한 행위와 악한 행위를 하는 것은 인간의
자유 의지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타인을
대우한다는 추서에 따라 선한 행위를 실천해야 한다고 보았다.

01 인간의 본성에 대한 정약용의 이론을 주희의 이론과 비교하여 설명
하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인간의 본성에 대한 일반적 통념에 대해 제시하지 않았고, 그것의 논리
적 오류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하지 않았다.
- ③ 인간의 본성에 대한 철학적 이론으로서 정약용과 주희의 이론을 제시하고
있지만, 철학적 이론의 변화 과정을 통시적으로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
- ④ 인간의 본성에 대해 주희는 '기질'이라는 선천적 요인에 의해 선악이 결
정되는 것으로 본 데 반해 정약용은 자유 의지에 의해 제어가 가능한 기
호로 보았다. 정약용과 주희의 견해가 서로 대립되는 것은 맞지만, 이를
절충하는 새로운 이론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 ⑤ 인간의 본성을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제시하고 있지 않으며, 인
간의 본성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지도 않다.

02 2문단을 보면, 정약용은 선한 행위와 악한 행위의 원인을 기질이라
는 선천적 요인으로 본다면 행위에 인간의 의지가 개입되지 않으므
로 악한 행위를 한 사람에게 윤리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희의
관점을 비판하였다. 또한 3문단에서 정약용은 선한 행위를 하거나
악한 행위를 하는 것이 온전히 인간의 자유 의지에 달려 있다고 강
조하였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 ① 2문단에서 주희는 인간의 기질이 맑으면 선한 행위를 하고 탁하면 악한
행위를 할 수 있다고 하였음을 알 수 있다.
- ② 3문단에서 정약용은 감각적 욕구에서 비롯된 기호는 생명이 있는 모든
존재가 지니는 육체의 경향성이며 도덕적 욕구에서 비롯된 기호는 인간
만이 지니는 영혼의 경향성이라고 하였음을 알 수 있다.
- ③ 2문단에서 주희는 '본연지성'을 인간의 본성 중 하나로 보았으며, 이것
은 인간이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순수하고 선한 본성이라고 하였다.
- ⑤ 2문단에서 정약용은 주희의 관점에 따르면 악한 행위를 한 사람에게 윤
리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비판하였음을 알 수 있다.

03 ㉠은 인간만이 지니는 영혼의 경향성으로, ㉡에 따르면 선한 행위가
나타난다. 값비싼 물건을 갖고 싶어 하는 마음은 선한 행위를 이끌
어 내는 것이 아니므로 ㉡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오히려 ㉢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 ① 시끄러운 소리를 싫어하는 것은 청각과 관련된 욕구로 ㉡에 해당한다.
- ② 맛있는 음식을 좋아하는 것은 생존과 관련된 욕구로 ㉡에 해당한다.
- ③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는 마음은 선한 행위로 이어지게 되므로 ㉡
에 해당한다.
- ⑤ 약한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 하는 마음은 선한 행위로 이어지게 되므로
㉡에 해당한다.

04 4문단에서 용서는 '타인의 악을 너그럽게 보아줌'을 의미한다고 하
였다. 이 경우 용서는 다른 사람의 악한 행위를 용인해 주는 꼴이
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이에 반해 추서는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
로 타인을 대우함'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자신의 마음을 미루어 타
인의 마음을 이해하고 타인을 대우하는 것이므로 추서는 용서와 달
리, 악한 행위를 용인하는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오답 풀이

- ② 4문단에서 정약용은 자유 의지로 선한 행위를 선택하고 이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며 그 구체적인 원리로 '서(辭)'를 강조하면서 '서'를
용서와 추서로 나누었음을 알 수 있다.
- ③ 4문단에서 타인을 다스리는 것, 타인의 악한 행위와 관련된 것이 용서임
을 알 수 있을 뿐 추서가 자신의 악한 행위와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 있
는 근거는 없다.
- ④ 4문단에서 추서는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우할지에 대한 방법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타인의 악을 너그럽게 보아주는 용서처럼, 추서 역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고려한 선의 실천 방법임을 알 수 있다.
- ⑤ 타인의 악에 대한 선의 실천 방법인 용서와 달리 추서는 자신에 대한 것
이든 타인에 대한 것이든 특별히 악행과 관련된 바가 없다.

핵심 구조화

① 감각적 ② 영혼 ③ 서

쉬운 어휘·어법

1 (1) 개입 (2) 제어 (3) 용인 2 (1) ㉠ (2) ㉡ (3) ㉢ 3 ④

3 <보기>와 ④에서 '달리다'는 '어떤 일이나 상태 따위가 무엇에 의존
하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오답 풀이

- ① '열매가 맺히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 ② '물건이 일정한 곳에 걸리거나 매여 있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 ③ '설명 따위가 덧붙거나 보태지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 ⑤ '이름이나 제목 따위가 정해져 붙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반상과 양천

고려 말 중앙 집권 체제의 약화와 왕권의 쇠퇴 속에서 조선 ^{신흥 사대부의 정치적 업적} 왕조를 세운 신흥 사대부들은 지주층이었기 때문에 노비 노동력이 필요했다. 그러나 이들은 강력한 중앙 집권 체제의 확립을 위해 국역(國役) 대상인 양인 계층의 폭을 넓히려 하였다. 따라서 노비가 꼭 있어야 하더라도 되도록 양인을 더 많이 확보하려 ^{지주층인 신흥 사대부를 위해} 하는 것이 새 왕조가 추구한 국역 정책의 기본 방향이었다.

→ 1문단: 조선 왕조 수립 시의 양·인 확보 정책

이처럼 국역 대상의 확보를 새 왕조 통치 체제의 발판으로 추구하면서, 법제적으로 모든 사회 구성원을 일단 양인과 천인으로 나누었다. 이들 사이에는 의무와 권리에서 차이가 있었 ^{조선의 법제적 신분 구조} 는데 먼저 의무 면에서 양인 남자는 국역인 군역(軍役)과 요역(徭役)의 의무가 있었다. 이에 비해 천인은 국역에서 철저히 배제되었다. ^{양인의 의무} ^{천인은 국역의 의무를 지지 않음.}

→ 2문단: 의·무 면에서의 양인과 천인의 차등

권리 면에서 양인과 천인은 신체와 생명의 보호와 같은 인간 ^{양인과 천인의 권리 차이 ① - 천인은 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함.}의 기본권을 공권력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지에서 뚜렷이 차이가 났다. 천인인 노비는 재산으로 보아 매매·상속·양도·증여 ^{양인과 천인의 권리 차이 ② - 재산으로 여겨짐.}의 대상이 되었으며, 사는 곳을 옮길 자유가 없었다. 노비와 양인이 싸우면 노비가 한 등급 더 무거운 벌을 받는 것은 양·천 ^{양인과 천인의 권리 차이 ③ - 천인은 주거 이동의 자유가 없음.} 사이의 법적 지위의 차이를 잘 보여 준다. 그보다 권리 면에서 양·천의 가장 분명한 차이는 관직 진출권이 있느냐는 것이었다. ^{양인과 천인의 권리 차이 ④ - 천인은 더 무겁게 처벌됨.} 양인 중에도 관직 진출권이 제한된 사람이 적지 않았으나 양인은 일단 관직 진출권이 있었다. 더러 노비가 정규 관직인 ^{천인에게만 관직 진출권이 있다는} 유품직(流品職)을 받기도 하였으나 이때는 반드시 양인이 되는 것에 예외를 두지 않기 위해 양인으로 신분을 바꾸게 하고 나서 관직을 줬. ^{양인 중에도 관직에 진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음.} 종량(從良) 절차를 먼저 밟아야 했다.

→ 3문단: 권·리 면에서의 양인과 천인의 차등

그러나 이러한 양·천 구분은 국가의 법적 구분이었지, 실제 사회 구성은 좀 더 복잡했다. 양·천이라는 법적 구분 아래 사회 구성원은 상급 신분층인 양반 계층, 의관·역관과 같은 기술관 ^{조선의 실제적 신분 구조(양반-중인-평민-천민)}이나 서얼 등의 중인 계층, 양인 중 수가 가장 많았던 평민 계층, 노비가 주류인 천민 계층으로 나뉘었다.

→ 4문단: 법·적 구분이 아닌 실제적인 차원의 신분 구분

조선을 양반 관료 사회라고 규정하듯이 양반은 정치·사회·경제 면에서 갖가지 특권과 명예를 독점적으로 누리면서 그 아래 ^{양반은 나머지 다른 계층과 구분되는 특권과 명예를 누리.} 반상의 구분 라인 중인·평민·천민과는 격을 달리했다. 이를 반상(班常)이라 ^{양반과 상민} 는 말로 표현한다. 반상은 곧 신분을 지배자와 피지배자로 나누는 것으로서, 반상의 반(班)에는 중인이 들어가지 않았지만 상(常)에는 평민부터 노비까지 포함되었다. 이러한 구분은 법적 구분과는 달리 사회 통념상으로 최고 신분인 양반의 지배자적 위치 ^{양반과 나머지 계층을 나누는 반상제가 생긴 까닭}

01 ③ 02 ③ 03 ① 04 ② [1 양인 2 ③ 양·천 4 반상제]

를 돋보이게 하려는 의식에서 생겼다.

→ 5문단: 반·상의 의미와 범위

이처럼 국가 차원의 법적 규범인 양천제와 당시 실제 계급 관계를 반영한 사회 통념상 구분인 반상제가 서로 섞여 중세의 신분 ^{양천제의 성격} 분 구조를 이루었다. ^{반상제의 성격} 중세 사회가 발전하면서 신분 구조는 양천제라는 법제적 틀에서 차츰 사회 통념상의 신분 규범이 규정 ^{실제적 신분 구조(양반-중인-평민-천민)} 요소로 확고히 자리 잡는 방향으로 변화했다. 이는 지주제의 확대와 발전, 그리고 조선 사회의 안정과 변동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였다. → 6문단: 양·천·제와 반상제가 혼재하다가 반상제가 중심으로 자리 잡음.

- 2017학년도 6월 고1 학력평가

» **지문 해제** 이 글은 반상과 양천이라는 말을 중심으로 조선 전기 사회의 신분 구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조선 시대 신분 제도는 법적 구분인 양천제와 사회 통념상 구분인 반상제가 혼재하다가 차츰 양천제라는 법제적 틀에서 사회 통념상의 신분 규범이 규정 요소로서 확고히 자리 잡는 방향으로 변화해 갔다.

01 3문단에서 더러 노비가 정규 관직인 유품직을 받기도 하였다고 하였으나, 이들이 어떤 이유에 의해서 관직을 받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제시하지 않았다. 국가에 큰 공을 세워서일 것으로 추측할 수는 있으나 이 글에 실린 내용만으로는 단정할 수 없다.

[오답 풀이]

- 1문단에서 조선 왕조를 세운 사람들은 신흥 사대부로 지주층이었다고 하였다.
- 2문단에서 양인 남자는 국역의 의무가 있었지만 천인은 국역에서 철저히 배제되었다고 밝혔다.
- 1문단에서 노비가 꼭 있어야 하더라도 되도록 양인을 더 많이 확보하려는 것이 새 왕조가 추구한 국역 정책의 기본 방향이었다고 하였다.
- 5문단에서 사회 통념상으로 최고 신분인 양반의 지배자적 위치를 돋보이게 하려는 의식에서 반상제가 생겼다고 하였다.

02 3문단에서 노비와 양인이 싸우면 노비가 한 등급 더 무거운 벌을 받았다고 하였다. 같은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천인이 양인보다 더 무거운 벌을 받아야 했던 것이다.

[오답 풀이]

- 2문단에서 법제적으로 모든 사회 구성원을 양인과 천인으로 나누었다고 하였으므로 조선의 모든 사회 구성원은 양인과 천인 중 하나에 해당하였다.
- 3문단에서 양인 중에도 관직 진출권이 제한된 사람이 적지 않았다고 하였다.
- 4문단에서 양인 중 수가 가장 많았던 것은 평민 계층이고, 천민 계층은 노비가 주류였다고 하였다.
- 2문단에서 양인 남자는 국역인 군역과 요역의 의무가 있었고, 천인은 국역에서 철저히 배제되었다고 하였다.

정합설과 오컴의 면도날 안광복

03 5문단에서 반상제는 사회 통념상으로 최고 신분인 양반의 지배자적 위치를 돋보이게 하려는 의식에서 생겼다고 하였으며, ㉠에서 사회 통념상의 신분 규범이 규정 요소로 확고히 자리 잡는 방향으로 변화했다고 하였으므로, ㉠은 신분 구조가 반상제 중심으로 안정화되었다는 의미이다.

○답 풀이

- ② 조선 왕조는 양인 계층의 폭을 넓히고자 하였고, 반상제는 신분을 지배자와 피지배자로 나눈 구조를 공고히 하는 규범이었다. ㉠가 천인의 숫자를 늘릴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는 아니다.
- ③ ㉠은 신분 구조가 실제적 기준에 따라 구축되었다는 의미이다. 신분 제도가 불안정해지면서 와해되었다는 의미는 아니다.
- ④ ㉠은 조선의 신분 구조가 반상제 중심이 되었다는 의미이다. 이것이 양천제의 문제점과 반상제의 문제점을 모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었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이 글에서는 양천제나 반상제의 문제점 자체가 다르지 않았다.
- ⑤ 반상제는 신분을 지배자와 피지배자로 나눈 것으로 양반의 지배자적 위치를 돋보이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04 2문단에서 권리와 의무에서의 차등 등 법제적으로 양인과 천인의 구분이 있었음을 알 수 있을 뿐이다. 구체적으로 양인과 천인을 구분하는 직업과 재산 등의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

○답 풀이

- ① 중앙 집권 체제를 확립하려면 많은 사업을 해야 하고, 따라서 많은 노동력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선 국역의 의무를 수행하며 국가의 사업을 도울 수 있는 양인들이 최대한 확보되어야 함을 유추할 수 있다.
- ③ 양인에게는 국역의 의무가 있는 대신 신체와 생명의 보호 등의 기본권과 거주 이전의 자유, 관직 진출권 등이 보장되었고 천인은 국역의 의무가 없는 대신 그러한 권리들이 보장되지 않았다.
- ④, ⑤ 반상제는 '양반'이라는 최상위층의 설정을 통해 양반의 지배자적 위치를 부각시키고, 상민을 세분화하여 사회 통념을 반영하면서 복잡한 사회 구성을 실제로 신분 제도로 구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핵심 구조화

① 기본권 ② 양반 ③ 천인

쉬운 어휘·어법

1 (1) 확정 (2) 확립 (3) 확보 2 (1) 쇠퇴 (2) 반영 3 ⑤

3 <보기>와 ㉠에서 '생기다'는 '어떤 일이 일어나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답 풀이

- ① '없던 것이 새로 있게 되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 ② '자기의 소유가 아니던 것이 자기의 소유가 되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 ③ '사람이나 사물의 생김새가 어떠한 모양으로 되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 ④ '-게 생기다'의 형태로 보조 동사로 쓰여 일의 상태가 부정적인 어떤 지경에 이르게 됨을 나타낸다.

세상에는 서로 자기 입장이 맞다고 주장하는 상반된 논리가 넘쳐난다. 주장의 진실 여부는 꼭 사실을 살펴봐야 가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중 말의 앞뒤가 맞는지를 따져 보는 방법이 있다. 이를 '정합설'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옛 그리스 철학자들은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을 생각만으로 알아냈다. 먼바다에서 돌아오는 배는 처음에 돛대 끝만 보인다. 그러다가 점점 배의 아래쪽까지 드러나며 모양이 분명해진다. 만약 지구가 평평하다면 멀리서도 작게나마 배의 전체 모습이 한눈에 다 보여야 되는 것이다.

→ 1문단: 정합설의 의미

이렇듯 '논리적으로 다른 사실이나 주장'과 어긋나지 않는지 정합설에서 주장의 진실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검토하면 어떤 말이 진실이고 거짓인지를 가려낼 수 있다. 알리바이를 찾는 과정도 다르지 않다. 만약 대기실에서 가방이 없어졌는데, 그 장소에 한 사람밖에 없었고 CCTV에도 다른 이들이 오간 흔적이 없다면 누가 범인인지는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 경우 우리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되는데, 이는 '논리적'으로 따져 결론을 내린다는 의미이다.

→ 2문단: 정합설에 의한 주장의 진실 여부 판단 방법

이에 대해 영국의 철학자 윌리엄 오컴은 나중에 사람들이 '오컴의 면도날'이라 부르는 규칙을 내세운다. 여러 이론이 서로 맞서고 있다면, 더 간단하고 단순하게 설명하는 쪽이 옳다는 것이 다. 그는 "같은 현상을 설명하는 두 개의 주장이 있다면 간단한 쪽을 택하라."라고 충고한다. 고대 그리스 연극에서는 주인공이 해결이 불가능한 문제에 부딪히면 하늘에서 신이 나타나 단박에 상황을 정리해 버리곤 했다. 이와 마찬가지로 면도날로 도려내듯 필요 없는 논리들을 걷어 내라는 의미이다.

→ 3문단: 오컴의 면도날의 의미

우리 일상에서도 설명하기 어려운 문제에 부딪힐 때 "하늘의 뜻입니다."라고 넘겨 버리면 간단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식의 해석은 더 복잡하고 까다로운 논쟁을 낳을 뿐이다. 교통사고가 났을 때 신호등의 위치, 자동차의 속도와 가속도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서 누가 잘못했는지 결론 내리는 사람과, 신의 뜻에 따라 사고가 예정되어 있었다고 주장을 펼치는 이가 있다고 가정해 보자. ㉠ 누구의 주장이 입증하기 쉬울까를 생각해 보면 당연히 과학적인 설명이 훨씬 증명하기가 쉽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때 만약 신의 뜻을 내세우며 잘잘못을 가리려 했다가는 논의가 산으로 가 버릴 것이다. 따라서 초자연적인 존재를 끌어들이지 않고 논리적으로 논쟁을 해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인다.

오컴의 면도날보다는 정합설을 따르는 것이 합리적인 이유

→ 4문단: 정합설이 오컴의 면도날에 비해 합리적인 이유

» **지문 해제** 이 글은 주장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이론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다. 논리적으로 다른 사실이나 주장과 어긋남이 없는지를 검토하는 정합설, 여러 이론 중 더 간단하고 단순하게 설명하는 쪽이 옳다고 보는 옴의 면도날 이론을 설명하고, 후자보다는 전자를 따르는 것이 합리적임을 밝히고 있다.

01 이 글은 주장의 진실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과 관련하여 '정합설'과 '옴의 면도날'이라는 대립되는 이론을 제시하고, 각 이론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오답 풀이

- ② 이 글에서 '정합설'과 '옴의 면도날'의 공통된 속성을 도출하지는 않았다.
- ③ 이 글은 '옴의 면도날'이 지니는 문제점은 언급했으나, 이를 여러 이론을 통해 해결해 나가지는 않았다.
- ④ 이 글은 '정합설'과 '옴의 면도날'이 어떤 현대적 의미를 지니는지 재조명하지 않았다.
- ⑤ 이 글에서 주장의 진실 여부를 판단하는 현상과 관련하여 '정합설'과 '옴의 면도날' 등의 이론들이 변화해 온 양상을 순차적으로 서술하지는 않았다.

02 이 글에 따르면 초자연적인 존재를 끌어들이는 방식보다는, 실재한 여러 요소들을 고려하여 논리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더욱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다.

오답 풀이

- ① 이 글에 따르면 하늘의 뜻과 같은 초자연적인 존재를 끌어들이면 과학적인 설명이 어려워진다.
- ② 이 글에 따르면 감각 기관을 통해 확인하기보다는, 주장과 관련한 여러 요소들을 논리적으로 따져 봄으로써 주장을 입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 ④ 이 글만으로 알 수 없으며, 이것은 과학적인 설명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 ⑤ 이 글에 따르면 과학적인 설명을 통해 초자연적인 대상의 존재 여부를 증명할 수는 없다.

03 2문단에 따르면 '정합설'은 여러 요소들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의심하고 논리적으로 따져 결론을 내린다. 반면 3문단에 따르면 '옴의 면도날' 이론은 여러 이론 중 가장 간단하고 단순한 설명을 옳다고 여긴다. 따라서 '정합설'은 가장 논리적인 판단인 <보기>의 ㉠을, '옴의 면도날' 이론은 가장 단순한 판단인 <보기>의 ㉡을 옳다고 볼 것이다.

오답 풀이

- ① 3문단에 따르면 '옴의 면도날' 이론은 합리적인 의심을 중시하는 입장이 아니라 가장 단순하고 간단한 판단을 옳다고 여기는 입장이다. 따라서 <보기>의 ㉡을 가장 옳다고 볼 것이다.
- ② 2문단에 따르면 '정합설'은 더욱 간단하게 설명하는 쪽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 아니라 여러 요소들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의심하고 논리적으로 따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입장이다. 따라서 <보기>의 ㉠을 가장 옳다고 볼 것이다.

- ④ 2문단에 따르면 '정합설'은 '옴의 면도날' 이론과 달리 논리적으로 따져 결론을 내리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여긴다. 따라서 <보기>의 ㉠, ㉡보다 ㉢이 옳다고 여길 것이다.
- ⑤ 4문단에 따르면 '옴의 면도날' 이론은 '정합설'과 달리 초자연적인 존재를 끌어들이어 간단하고 단순하게 결론을 내리기도 한다. 따라서 <보기>의 ㉠, ㉡보다 ㉣이 옳다고 여길 것이다.

04 '정합설'은 논리적으로 다른 사실이나 주장과의 어긋남을 검토하여 주장의 진실 여부를 가려내는 데 반해 ㉠은 맞서고 있는 여러 이론 중 더 간단하고 단순하게 설명하는 쪽이 옳다고 보는 이론이다. 이 경우 해결이 불가능한 문제에 부딪히면 비논리적인 수단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도 한다. 따라서 정합설의 입장에서 볼 때 ㉠은 '하늘'이나 '신'처럼 초자연적인 존재를 근거로 활용한 경우 그것이 옳은 이유를 논리적으로 증명할 수 없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오답 풀이

- ① 3문단에 여러 이론이 서로 맞서고 있는 경우 '옴의 면도날'에서는 어떻게 문제에 대응하는지가 제시되어 있다.
- ② 3문단에서는 '옴의 면도날' 이론에서 해결이 불가능한 문제에 부딪힐 때 면도날로 도려내듯 필요 없는 논리들을 걷어 내 상황을 정리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간단, 단순함을 지향하며 비논리적인 해결책을 이끌어 낼 뿐이지 아무런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다고 볼 수는 없다.
- ③ 4문단에서는 '옴의 면도날' 이론을 설명하기 위해 일상에서 어려운 문제에 부딪힐 때 "하늘의 뜻"으로 간단하고 단순하게 문제를 처리하려고 하는 것을 예로 들었다. 이는 억지스럽게 문제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 ⑤ '옴의 면도날' 이론은 비논리적인 해결 방식을 선택하는 이론이다. 따라서 논리적인 해결 방식을 선택하는 정합설에 의해 '논리적인 판단의 한계'를 가지고 비판받는다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핵심 구조화

① 논리적 ② 합리적 ③ 단순한

쉬운 어휘·어법

1 (1) 단박 (2) 합리적 2 (1) ㉠ (2) ㉠ 3 ㉡

3 '보이다'는 주어를 필요로 하는 한 자리 서술어이다.

오답 풀이

- ① '잡다'는 주어와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두 자리 서술어이다.
- ③ '부딪히다'는 주어와 부사어를 필요로 하는 두 자리 서술어이다.
- ④ '선택하다'는 주어와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두 자리 서술어이다.
- ⑤ '아니다'는 주어와 보어를 필요로 하는 두 자리 서술어이다.

진정한 과학 정신이란

가 과학 철학자 칼 포퍼는 **㉠ 과학과 ㉡ 사이비 과학**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반증 가능성’이라는 개념을 제시한 바 있다. ‘반증 가능성’이 통하면 과학, 통하지 않으면 사이비 과학이라는 것이다. ‘반증 가능성’을 좀 쉬운 말로 바꾸면 ‘언제라도 깨질 수 있는 가능성’이다. 가령 ‘까마귀는 검다.’라는 명제는 지금까지 발견된 까마귀들이 예외 없이 검은색이었기 때문에 성립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까마귀를 본』 ‘반증 가능성’을 허용하는 과학적 명제가 경험적 관찰을 통해 진리임이 증명될 수 없음을 보여 주는 사례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데 있다. 아직 사람의 눈에 띄지 않은 까마귀 가운데 다른 색깔을 가진 것이 없으란 법이 없지 않은가?』 이렇게 볼 때 경험적 관찰을 통해 과학적 명제의 참과 거짓을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함을 알 수 있다.

→ 1문단: 진정한 과학의 조건인 **반증 가능성**

나 “까마귀는 검다.”라는 명제는 검지 않은 까마귀가 나타날 때까지 참일 수 있다. 이렇듯 모든 과학적 진술은 늘 잠정적일 수밖에 없다. 언젠가 새로운 사실이 나타나 그 진술을 완전히 뒤엎어 버릴 수 있다. 이렇게 거짓으로 판명될 가능성, 그 자체가 바로 과학의 참다운 모습이라고 포퍼는 주장한다. 포퍼에 따르면 과학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경험적 발견들이 꾸준히 누적됨으로써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류의 제거를 통해 성장한다. 따라서 과학은 항상 과감한 ‘추측’과 냉혹한 ‘반박’에 개

스스로 과감하게 추측하고 타인의 반박에는 관대해야 함.

→ 2문단: 추측과 **반박**에 개방되어 있어야 하는 과학

다 어떤 과학도 결코 전체를 드러내지는 못한다. 과학이 파악한 진리 역시 있을 수 있는 여러 세계 중의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 우리의 인식이 늘 그렇게 부분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것은 다소 실망스러운 발견일 수 있다. 『인류가 그토록 애써서 축적해 온 이 거대한 과학 문명의 체계가 영원히 미완성의 궤도 과학 발전을 위해 지금까지 애써 온 인류의 노력이 허무하게 느껴질 수 있음, 를 맴돌 뿐이라는 자각은 허무하기까지 하다.』

→ 3문단: **진(체)**를 드러내지 못하는 과학의 근본적 한계

라 그러나 반드시 그럴까? 누군가가 그러한 사실을 실망스럽고 허무하게 여긴다면 그는 어느 하나의 이론에 자기의 운명을 걸어야 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 사람에게는 기존의 과학 체계가 흔들리거나 상대적으로 되어 버리는 것이 매우 불안할 수밖에 없다.』 자신의 운명을 건 이론이 영원불변해야 자신도 그 위치에서 영원불변할 수 있으므로 없다. 그런데 그러한 태도로 연구되는 과학은 늘 권위주의적으

로 군림하게 마련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억압한다. ㉢ 그 자신의 세력을 이용하여 압도

러한 권력에 짓눌려 있는 사람들에게 모든 과학적 진술이 부분적이고 잠정적이라는 사실은 얼마나 희망적인 소식인가. 그것은 허무의 뜻이 아니라 자유와 창조의 계기가 된다.

→ 4문단: 자유와 창조의 **계기**가 되는 과학의 반증 가능성

01 ④ 02 ① 03 ① 04 ① [① 과학 ② 사이비 ③ 반증 가능성 ④ 과학]

마 과학의 진리는 역사성을 갖는다. 따라서 시대와 상황의 제 『』 과학의 진리는 시대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비판과 논쟁을 통해 계속 변화·발전함. 약을 받게 마련이다. 그리고 그 진리는 끊임없는 비판과 논쟁을

통해서 거듭난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과학적 진리 발견을 위한 비판과 논쟁의 과정에 누구든 참여할 수 있어야 함. 있는 참여의 공간이 되어야 한다.

→ 5문단: 과학적 진리의 변화·발전을 위해 열려 있어야 하는 **비판**과 논쟁의 과정

» **지문 해제** 이 글은 진정한 과학 정신이란 어떠한지 하는지를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글쓴이는 어떤 과학도 전체를 드러내지 못하므로 비판과 논쟁을 통해 끊임없이 과학의 진리를 변화·발전시켜 나가는 자세를 지녀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01 (라)는 과학의 근본적인 한계에 대해 실망하는 사람들의 심리적 이유를 추론하고 그와는 다른 글쓴이의 관점을 서술하고 있을 뿐 과학이 근본적으로 가진 한계를 밝히고 있지 않으며 구체적인 사례도 제시되어 있지 않다.

오답 풀이

- (가)는 ‘반증 가능성’이 무엇인지 “까마귀는 검다.”라는 명제를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다.
- (나)는 칼 포퍼라는 권위자의 견해를 모든 과학적 진술은 늘 잠정적일 수밖에 없다는 주장의 근거로 들었다.
- (다)는 과학의 본질적 측면이 불러일키는 실망스럽고 허무한 감정을 설명하고 있다.
- (마)는 과학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비판과 논쟁을 수용하고 그에 적극 참여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02 글쓴이는 과학이란 결코 전체를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나 거짓으로 판명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모든 과학적 진술은 잠정적일 수밖에 없다고 본다.

오답 풀이

- (라)에서 과학적 진술이 부분적이고 잠정적이라는 사실은 허무의 뜻이 아니라 자유와 창조의 계기가 된다고 하였다.
- (나)에서 거짓으로 판명될 가능성이 있는 것 자체가 과학의 참다운 모습이라고 주장하는 포퍼의 견해를 통해 글쓴이의 생각이 나타나고 있다.
- (라)에서 과학이 권위주의적으로 군림하며 사람들을 억압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 (가)에서 그 누구도 모든 사실을 다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과학적 명제는 경험적 관찰을 통해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없다고 하였다.

03 권위주의적인 과학에 억압을 당하던 사람들에게 모든 과학적 진술이 부분적이고 잠정적이라는 사실은 다른 이론, 다른 현상도 진리일 수 있음을 깨닫게 해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게 한다.

오답 풀이

- 과학적 사실의 불변성을 주장하는 권위주의는 사람들을 억압한다.
- 과학적 사실이 잠정적이기 때문에 진리를 찾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부호화_서창원, 민윤기

- ④ 이 글에 나타나지 않은 내용이다.
 ⑤ 부분적이고 잠정적인 성격을 가진 과학은 좀 더 자유롭고 넓게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희망을 준다.

04 (가)에서 ㉔와 ㉕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반증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나)에서는 모든 과학적 진술, 즉 ㉔는 늘 잠정적일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오답 풀이

- ② (라)에서 과학의 반증 가능성을 불안해하는 태도로 연구되는 과학은 늘 권위주의적으로 군림하게 된다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반증 가능성이 통하는 ㉔가 권위주의적으로 군림하며 많은 사람들을 억압한다고 할 수는 없다.
 ③ (가)에서 '반증 가능성'이 '언제라도 깨질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언제라도 깨질 수 있는 가능성이 통하는 것은 ㉕가 아니라 ㉔이다.
 ④ (나)에서 모든 과학적 진술은 늘 잠정적이어서 언제라도 새로운 사실이 나타나 그 진술을 뒤엎어 버릴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새로운 사실이 나타나 그 진술을 뒤엎어 버릴 수 있는 것은 ㉕가 아닌 ㉔이다.
 ⑤ 시대와 상황에 따라 진리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은 '반증 가능성'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를 인정하는 것은 ㉔이고, 반증 가능성이 통하지 않는 ㉕는 시대와 상황에 따라 진리가 달라진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핵심 구조화

① 반증 ② 반박 ③ 논쟁

쉬운 어휘·어법

1 (1) 사이비 (2) 군림 2 (1) 반증 (2) 판명 3 ②

3 '오가다'는 '오다'와 '가다'의 합성어로 두 용언 어간 사이에 연결 어미가 결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비통사적 합성어이다.

오답 풀이

- ① '검은색'은 '검다'의 어간에 관형사형 연결 어미가 결합된 후 '색'이라는 명사가 결합하여 '관형어+명사'의 형태가 되므로 통사적 합성어이다.
 ③ '애쓰다'는 '애를 쓰다'가 줄어서 만들어진 말로, 우리말의 일반적인 어순에 목적격 조사를 생략한 형태이므로 통사적 합성어이다.
 ④ '멤돌다'는 '멤을 돌다'가 줄어서 만들어진 말로, 우리말의 일반적인 어순에 목적격 조사를 생략한 형태이므로 통사적 합성어이다.
 ⑤ '거듭나다'는 '거듭'이라는 부사에 '나다'라는 용언이 결합되어 우리말의 일반적인 어순을 보이므로 통사적 합성어이다.

부호화란 우리가 지각하고, 생각하고, 느끼는 것을 지속적인 기억, 즉 장기 기억으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부호화는 '자동 부호화'와 '노력을 수반하는 부호화'로 나뉜다. 자동 부호화란 어떤 노력과 인식 없이 정보가 단기 기억으로부터 장기 기억으로 전이되는 것을 말한다. 개인적 사건뿐만 아니라 흥미로운 사실과 광범위한 기술 및 습관 등은 자동으로 부호화된다. 자동 부호화된 장기 기억은 노력을 수반하는 부호화를 통해 전이된 장기 기억과는 달리 그것을 찾아내어 인출하는 과정도 어렵지 않게 이루어진다. 그런데 문제는 노력을 수반하는 부호화이다.

→ 1문단: (부)호(화)의 두 종류 - 자동 부호화와 노력을 수반하는 부호화

노력을 수반하는 부호화란 정보를 지속적으로 반복하거나, 새로운 정보와 기존의 기억된 정보를 연합하는 방법을 통해 정보가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전이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교과서의 내용을 요약하고, 강의 중 노트 필기를 하며 그 내용을 공부하는 데 많은 시간을 들이는 이유는 그것이 정보를 뇌 속에 부호화시키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실, 개념, 혹은 정의를 부호화하는 것은 시험과 같은 상황에서 그 정보를 인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 우리는 정보를 장기 기억이라 부르는 거대한 저장소에 집어넣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그러나 집어넣은 정보를 잘 찾기 위한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장기 기억 속에서 그것을 찾아 인출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따라서 저장된 정보가 어디에 있는지 잘 추적하려면 ㉔ 유지 시연과 ㉕ 정교화 시연이라는, 노력을 수반하는 부호화 과정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 2문단: 노력을 수반하는 부호화의 의미와 두 가지 방법

유지 시연이란 단순히 정보를 반복하는 것을 말한다. 새 전화번호 126-4029를 기억하는 한 가지 방법은 그것을 반복하는 것이다. 유지 시연은 이와 같이, 단기 기억 속에 정보를 더 오래 저장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다. 그러나 만약 나중에 그 전화번호를 사용할 필요가 있어 기억해야 한다면, 유지 시연은 기억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리고, 해당 전화번호가 어떻게 그리고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지를 추적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 좋은 부호화 과정이 아니다. 정교화 시연은 어떤 정보를 부호화하기 위해 새로운 정보와 기존의 기억 간에 연합을 형성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새 전화번호 126-4029를 나이와 연합시켜 '내가 알고 있는 가장 나이 든 사람의 나이는 126세', 그리고 '나는 40세', 그 이미 저장된 기억들 - 126세, 40세, 29세

철학의 은밀한 두 가지 흐름_강신주

러나 '나는 29세가 되고 싶다.'라는 식으로 기억하는 방식이다. 이 번호를 재생하려면 새롭게 형성한 나이 연합을 생각하면 된다. 정교화 시연이란 적극적으로 학습될 정보를 장기 기억 속에 이미 저장된 기억과 의미 있게 연합시키는 과정인 셈이다.

→ 3문단: 유지 시연과 정교화 시연의 방법과 특징

※ 지문 해제 이 글은 우리가 지각하고 생각하고 느끼는 것을 장기 기억으로 변환하는 방법인 부호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를 위해 부호화를 자동 부호화와 노력을 수반하는 부호화로 나누고, 후자를 다시 유지 시연과 정교화 시연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01 이 글은 새로운 정보를 장기 기억으로 만드는 방법인 부호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02 1문단에서 자동 부호화에 의해 저장된 기억은 인출하는 과정도 어렵지 않게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오답 풀이

- ① 노력을 수반하는 부호화에는 유지 시연과 정교화 시연이 있다.
- ② 1문단에 따르면 개인이 지닌 습관은 자동 부호화에 의해 특별한 노력 없이 장기 기억으로 전환된다.
- ③ 2문단의 "집어넣은 정보를 잘 찾기 위한~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를 통해 알 수 있다.
- ④ 2문단의 "교과서의 내용을 요약하고,~부호화시키기 위한 유일한 방법"을 통해 알 수 있다.

03 ㉠은 기억하려는 내용을 반복하여 암기하는 것이고, ㉡은 새로운 정보를 이미 저장되어 있는 기존의 기억과 의미 있게 연합시킴으로써 효과적으로 기억하는 것이다.

오답 풀이

- ① 기억을 인출하는 데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은 해당 정보가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지 추적할 수 없는 ㉠이다.
- ② ㉠과 ㉡ 모두 인출이 필요한 정보를 부호화하는 방법이다.
- ③ 기억하는 내용과는 상관이 없다. 방법이 다른 것이다.
- ④ 둘 다 노력을 수반하는 부호화에 해당한다.

04 A가 외운 내용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해당 내용이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지 추적하기 어렵다는 의미이다. 3문단에서 새로운 정보와 기존의 기억 간에 연합을 형성하는 것을 정교화 시연이라 설명하였는데, 이는 저장된 정보가 어디에 있는지 잘 추적할 수 있게 한다.

핵심 구조화

① 자동 ② 노력 ③ 유지 ④ 정교화 ⑤ 연합

쉬운 어휘·어법

1 (1) ㉠ (2) ㉡ (3) ㉢ 2 (1) 수반 (2) 전이 3 ④

3 ㉠의 '있다는'의 '는'은 보조사가 아닌, 관형사형 어미 '-는'이다.

10 정답과 해설

마침내 인당수에 비가 내리고 심청은 치맛자락을 들어 얼굴을 감싸고 무섭게 출렁이는 시커먼 바다에 몸을 던진다. 그러자 곧 폭풍이 잠잠해지고, 그치지 않을 것만 같았던 비도 잦아들기 시작한다. 판소리로도 유명한 「심청전」의 일부이다.

→ 1문단: 「심청전」의 한 장면

인당수에 내리던 비와 심청의 희생은 과연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 이야기를 통해 철학사를 관통하고 있는 두 가지 은밀한 흐름을 식별하려고 한다.

→ 2문단: 「심청전」을 통해 살펴볼 철학사의 두 가지 흐름

그 하나는 이 두 사건 사이에 어떠한 관계도 없다는 입장이다. 다시 말해 심청이 인당수에 몸을 던지지 않았어도 그곳에 내리는 비는 자연스럽게 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둘 사이에 어떤 상관성이 있다고 보는 입장이다. 실제로 심청이 하나의 사건이 다른 사건을 초래했다고 볼 때, 심청의 희생이 원인이 되어 비가 그친다. 희생하여 비로소 인당수에 내리던 비가 그쳤으며 그 경험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 두 입장은 두 가지 철학적 개념으로 요약될 수 있다. 그것은 바로 '우발성(contingency)'

이라는 개념과 '필연성(necessity)'이라는 개념이다. '우발성'이라는 말은 '접촉하다', '만나다'를 의미하는 'contact'와 어원이 같다. 그래서 우발성이라는 말은 두 가지 사건이 우연히 조우한다는 것을 긍정하는 표현이다. 다시 말해 일체의 다른 목적이나 필연성 없이 두 가지 사건이 만났을 때, 우리는 이런 사태를 '우발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 반면 '필연성'은 이렇게 두 가지 사건이 만났을 때, 비록 겉으로는 우연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어떤 질서나 목적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다. 인당수의 비와 심청의 희생에 대해 철학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많은 현대인들은 ㉠ '우발성'을 주장하는 입장인 반면 당시의 백사람들은 ㉡ '필연성'을 주장하는 입장이 되는 것이다.

→ 3문단: 우발성과 필연성의 입장의 차이

그런데 이 경우 필연성을 믿는 것이 초래할 수도 있는 일종의 완고함이 문제가 된다. 우리가 비가 그친 일과 심청이 인당수에 몸을 던진 일 사이에는 '우발성'이 있을 뿐이라고 충고하더라도, '필연성'을 믿고 따르는 백사람들은 결코 자신들의 확신을 버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심청이 인당수에 몸을 던졌을 때 비가 그치지 않았다면 그들은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다른 처녀를 구하는 데 혈안이 될 것이다. 인간에 대해 가혹한 폭력을 자행했던 모든 미신과 종교의 뿌리에는 바로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 '필연성'에 대한 맹신이 있었다.

→ 4문단: 필연성이 초래할 수 있는 완고함의 문제

» **지문 해제** 이 글은 철학사를 관통하는 두 입장인 우발성을 주장하는 입장과 필연성을 주장하는 입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심청전」의 한 장면을 사례로 들어 동일한 사건에 대한 두 입장의 해석 차이를 보여 주고, 필연성에 대한 맹신이 초래하는 폭력성을 언급하고 있다.

01 이 글에서는 널리 알려진 「심청전」의 한 장면을 예로 제시하여 우발성과 필연성이라는 철학적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이 글에서 설명하고 있는 두 철학적 개념인 '우발성'과 '필연성'의 공통점이 드러나 있지 않다.
- ③ 용어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그 개념을 어떻게 정하여 세울지 제안하고 있지는 않다.
- ④ 용어의 의미 변화가 제시되지 않았으며 그 과정을 통시적으로 보여 주고 있지도 않다.
- ⑤ '필연성'의 문제점을 제시하였지만 그 문제점의 발생 원인을 분석하여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02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는 원인이 없으면 결과가 있을 수 없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 어떤 두 사건을 볼 때 둘 사이에 필연적 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보는 입장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속담이다.

오답 풀이

- ① 우연히 동시에 일이 생겨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것처럼 의심을 받을 수 있음을 나타낸다. ①의 상황과는 관련이 없다.
- ② 애써 하던 일이 실패로 돌아간다는 의미이다. ①의 상황과는 관련이 없다.
- ④ 아무리 좋은 조건이 갖추어졌거나 이루기 쉬운 일이라도 힘을 들여 이 용하거나 실행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①의 상황과는 관련이 없다.
- ⑤ 계속해서 노력하면 자신이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①의 상황과는 관련이 없다.

03 ④는 두 가지 사건에 대해 서로 특별한 인과 관계가 없다고 보는 '우발성'의 시각에 해당하고, 나머지는 두 가지 사건에 대해 인과 관계가 있다고 보는 '필연성'의 시각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 ① 미나는 기우제를 비가 내리는 사건의 필연적 원인으로 보고 있다. 기우제와 비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다고 본 것이다.
- ② 우현은 수업 시간에 딴짓을 해서 필연적으로 성적이 떨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수업 시간에 딴짓을 하는 것과 성적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다고 본 것이다.
- ③ 동수는 평소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벼락을 맞는 것으로 보고 있다. 평소 죄를 많이 짓는 것과 벼락을 맞는 것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다고 본 것이다.
- ⑤ 민석은 형이 밤낮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면 나중에 부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밤낮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며 열심히 사는 것과 부자가 되는 것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다고 본 것이다.

04 4문단에서 필연성을 믿는 것은 완고함을 초래할 수 있고, 이는 인간에 대한 폭력성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하였다. 우발성을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이 점을 들어 필연성을 주장하는 입장을 비판할 수 있다.

오답 풀이

- ① 경험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확인하는 것은 필연성의 입장이므로 이것이 결여되었다고 ③에게서 비판받지는 않을 것이다.
- ② 우연처럼 보이는 사건 속에서도 어떤 질서나 목적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필연성에 대한 설명일 뿐 우발성을 주장하는 입장이 필연성을 주장하는 입장을 비판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다.
- ③ 두 사건 간에 필연적인 인과 관계가 있다는 것은 필연성을 주장하는 입장을 서술한 것일 뿐 우발성을 주장하는 입장이 필연성을 주장하는 입장을 비판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다.
- ⑤ 하나의 사건이 다른 사건을 초래했다고 인정하는 것은 필연성을 주장하는 입장이다. 따라서 하나의 사건이 다른 사건을 초래했다고 인정할 때 사건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필연성을 옹호하는 입장이지 우발성을 주장하는 입장에서 필연성을 주장하는 입장을 비판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다.

핵심 구조화

① 철학적 ② 우발성 ③ 필연성 ④ 상관성

쉬운 어휘·어법

1 (1) 식별 (2) 초래 (3) 상관성 2 (1) 완고 (2) 맹신 3 ①

3 '치맛자락'은 '치마'라는 고유어와 '자락'이라는 고유어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합성어이다. 그리고 [치매편락/치매편락]으로 발음되어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바뀌는 음운론적 현상이 일어남을 알 수 있다.

구독경제: 앤젠저, 『플랫폼의 미래 서브스크립션』

소비자가 회원 가입 및 신청을 하면 정기적으로 원하는 상품^{구독경제의 개념}을 배송 받거나, 필요한 서비스를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경제 모델을 ‘구독경제’라고 한다. ... 1문단: 구독경제의 개념

신문이나 잡지 등에만 적용되던 구독 모델은 최근 들어 그 적용 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있다. 이러한 구독경제에는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다. 첫 번째 유형은 정기 배송 모델인데, 월 사용료를 지불하면 생필품을 지정 주소로 정기 배송해 주는 것을 말한다. 두 번째 유형은 무제한 이용 모델로, 정액 요금을 내고 영^{구독경제의 유형 ①}상이나 음원, 각종 서비스 등을 무제한 또는 정해진 횟수만큼 이용할 수 있는 모델이다. 세 번째 유형인 장기 렌탈 모델은 구^{구독경제의 유형 ②}매에 목돈이 들어 경제적 부담이 될 수 있는 자동차 등의 상품을 월 사용료를 지불하고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 2문단: 구독경제의 유형

경제학자들은 구독경제의 확산 현상을 ‘합리적 선택 이론’으로 설명한다. 경제 활동을 하는 소비자가 주어진 제약 속에서 자신의 효용을 최대화하려는 것을 합리적 선택이라고 하는데, 이때 효용이란 소비자가 상품을 소비함으로써 얻는 만족감을^{효용의 의미} 의미한다. 소비자들이 한정된 비용으로 최대한의 만족을 얻기 위해 노력한 결과가 구독경제의 확산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이는 소비자들이 상품을 소유함으로써 얻는 만족감보다는 상품^{구독경제로 알 수 있는 소비자들의 성향}을 사용함으로써 얻는 만족감을 더 중요시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 3문단: 구독경제 확산 현상의 이론적 근거인 합리적 선택 이론

구독경제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소유하기 이전에는 사용해 보지 못하는 상품을 사용해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구독경제를^{소비자 입장에서 구독경제의 장점 ①} 이용하면 값비싼 상품을 사용하는 데 큰 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되고, 상품 구매 행위에 들이는 시간과 구매 과정에 따르는^{소비자 입장에서 구독경제의 장점 ②} 불편함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생산자의 입장에서는 상품을 사용하는 고객들의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통해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생산자 입장에서 구독경제의 장점 ③} 또한 매월 안정적으로 매출을 올릴 수도 있다. ... 4문단: 구독경제의 긍정적 측면

그러나 구독경제의 확산이 긍정적인 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구독하는 서비스가 지나치게 많아질 경우 고정 지출이 늘어나 경제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다. 생산자의 입장에서는 상품이 소비자에게 만족감을 주지 못하거나 고객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지 못할 경우 ㉠ 구독 모델 이전에 얻었던 수익에 비해 낮은 수익을 얻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소^{구독경제의 단점 ① - 소비자 입장}비자는 합리적인 소비 계획을 수립하고 생산자는 건전한 수익

01 ② 02 ① 03 ④ 04 ③ [① 사용료 ② 정기 배송 ③ 구매 ④ 생필품]

모델을 연구하여 자신의 경제 활동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구독경제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 5문단: 구독경제의 부정적 측면

- 2019학년도 9월 고1 학력평가

» 지문 해제 이 글은 구독경제의 유형과 확산 현상의 이론적 배경을 ‘합리적 선택 이론’으로 설명하고 있다. 또한 구독경제의 확산이 갖는 의미를 소비자 입장과 생산자 입장에서 각각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으로 제시하고 있다.

01 이 글은 구독경제의 유형과 확산 현상의 이유, 구독경제의 확산이 갖는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설명하고 있다.

02 3문단에서 구독경제는 소비자들이 상품을 소유함으로써 얻는 만족감보다 사용함으로써 얻는 만족감을 더 중요시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고 하였다.

03 고객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지 못할 경우에는, 상품을 소유하는 대신 구독경제를 활용하는 소비자들이 증가한 상황에서, 상품 판매로 인한 수익은 없이 구독경제 사용으로 인한 수익만 줄어들기 때문이다.

오답 풀이

- ① 구독경제는 상품을 미리 사용해 본 후 소비자들이 상품을 구입하도록 하기 위한 모델이 아니다.
- ② 상품 광고비의 과다 지출은 구독경제 모델의 수익과 관련하여 언급된 바가 없다.
- ③ 고객에게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많은 비용을 투자하였다는 정보는 언급된 바가 없다.
- ⑤ 상품 구매에 들이는 시간과 구매 과정에 따르는 불편함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은 소비자들이 구독경제를 선택하는 이유에 해당한다.

04 4문단에서 구독경제는 상품 구매 행위에 들이는 시간과 구매 과정에 따르는 불편함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였다.

핵심 구조화

① 사용 ② 비용 ③ 구매 ④ 고객 ⑤ 고정 지출

쉬운 어휘·어법

1 (1) 제약 (2) 매출 (3) 수익 2 (1) 고정 지출 (2) 효용 (3) 목돈 3 ②

3 ‘가방이 들리다’에서 ‘들리다’는 ‘손에 가지게 되다.’의 의미로 ‘손에 가지다.’라는 의미를 가진 ‘들다’의 피동사이다.

오답 풀이

- ① ‘끓이다’는 ‘액체를 몹시 뜨겁게 해 소리를 내면서 거품이 솟아오르게 하다.’라는 의미로 ‘끓다’의 사동사이다.
- ③ ‘남기다’는 ‘다 쓰거나 정해진 수준에 이르지 않고 나머지가 있게 하다.’라는 의미로 ‘남다’의 사동사이다.
- ④ ‘비우다’는 ‘일정한 공간에 사람, 사물 따위를 들어 있지 아니하게 하다.’라는 의미로 ‘비다’의 사동사이다.
- ⑤ ‘늦추다’는 ‘기준이 되는 때보다 뒤지게 하다.’라는 의미로 ‘늦다’의 사동사이다.

뉴스를 짓기

뉴스는 언론이 현실을 ㉠ '틀 짓기[framing]'하여 전달한 것이다. 여기서 틀 짓기란 일정한 선택과 배제의 원리에 따라 현실을 구성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수용자는 이러한 뉴스를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는다. 수용자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닌 능동적인 행위자가 되어 언론이 전하는 뉴스의 의미를 재구성한다. 이렇게 재구성된 의미들을 바탕으로 여론이 만들어지고, 이것은 다시 뉴스 구성의 '틀[frame]'에 영향을 준다. 이를 뉴스 틀 짓기에 대한 수용자의 ㉡ '다시 틀 짓기[reframing]'라고 한다. '다시 틀 짓기'가 가능한 이유는 수용자가 주체적인 의미 해석자로, 사회 속에서 사회와 상호 작용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 1문단: 틀 짓기와 ㉠(다시)틀 짓기의 개념

그렇다면 수용자의 주체적인 의미 해석은 어떻게 가능할까? 그것은 수용자가 외부 정보를 해석하는 인지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인지 구조는 경험과 지식, 편향성 등으로 구성되는 인지 구조의 구성 요소 - 수용자의 의미 재구성에 영향을 주는 요소데, 뉴스 틀과 수용자의 인지 구조는 일치하기도 하고 같동하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수용자는 자신의 경험, 지식, 편향성 등에 수용자가 외부 정보인 뉴스를 해석하는 과정 따라 뉴스가 전달하는 의미를 재구성하게 된다. 수용자의 이러한 재구성, 즉 해석은 특정 화제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그 화제와 관련된 다른 화제나 행위자들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등을 결정하는 근거가 된다.

→ 2문단: 수용자의 주체적 의미 해석의 과정

이렇게 특정 화제에 대한 수용자의 다양한 해석들은 수용자들이 사회 속에서 상호 작용하는 과정에서 여론의 형태로 나타난다. 여론은 사회적 차원에서 벌어지는 특정 화제에 대한 사회적 공방들과 개인적 차원에서의 대화, 논쟁들로 만들어지는 의견들을 모두 포괄한다. 이렇게 형성된 여론은 다시 뉴스 틀에 영향을 주며, 이에 따라 새로운 틀과 여론이 만들어진다. 새로운 틀이 만들어짐으로써 특정 화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들은 후퇴하거나 발전할 수 있으며, 보다 다양해질 수 있다.

새로운 틀의 형성으로 인한 결과 → 3문단: 수용자의 주체적 해석과 여론의 관계

사회학자 갠슨은 뉴스와 뉴스 수용자의 관계를 주체와 객체의 고정된 관계가 아닌, 상호 작용을 바탕으로 하는 역동적인 관계로 보았다. 이러한 역동성은 수용자인 우리가 능동적인 행위자로 '다시 틀 짓기'를 할 때 가능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뉴스로 전해지는 내용들을 언제나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능동적으로 해석해야 하며, 수용자의 해석에 따라 형성되는 여론에 대해서도 항상 관심을 가져야 한다. → 4문단: 뉴스를 수용하는 바람직한 태도

- 2019학년도 고2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 **지문 해제** 이 글은 뉴스 수용자가 뉴스를 받아들이는 태도를 '틀 짓기'로 설명하고 있다. 수용자가 자신의 인지 구조를 바탕으로 뉴스의 의미를 재구성하여 여론을 형성하고 이러한 여론을 통해 다시 뉴스 틀에 영향을 주는 일련의 과정과, 수용자가 뉴스를 수용하는 바람직한 태도를 제시하고 있다.

01 이 글은 뉴스 수용자가 뉴스를 주체적으로 해석하여 받아들이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

02 2문단에서는 수용자가 인지 구조에 따라 뉴스가 전달하는 의미를 재구성한다고 하였다. 또한 3문단에서 이러한 다양한 해석들은 여론의 형태로 나타나고, 이것이 다시 뉴스 틀에 영향을 준다고 설명하였다.

03 1문단에서 언론이 틀 짓기(㉠)를 하여 전달한 내용을 수용자가 재구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여론이 만들어진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것이 다시 뉴스 구성의 틀에 영향을 주는데 이를 수용자의 다시 틀 짓기(㉡)라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에 대한 수용자의 재구성, 즉 주체적인 의미 해석으로 ㉡이 가능해진다고 할 수 있다.

[오답 풀이]

- ① ㉠은 언론이 현실을 구성하고 전달하는 방식이다.
- ② ㉡은 수용자가 뉴스의 의미를 재구성하는 것이다.
- ④ ㉠은 선택과 배제의 원리에 따라 현실을 구성하는 것이지만, ㉡은 수용자의 주체적인 의미 해석으로 형성된다.
- ⑤ ㉡은 개인의 경험과 지식, 편향성 등에 의해 이루어지며,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차원의 논의나 개인적 차원의 의견이라는 여론이 형성된다.

04 2, 3문단에서 수용자의 주체적 의미 해석으로 형성된 여론은 다시 뉴스 틀에 영향을 주어 새로운 틀과 여론이 만들어지고, 이로써 특정 화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다양해질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광고의 의미를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특정 화제에 대한 생각이 고착된다는 반응은 적절하지 않다.

핵심 구조화

① 선택 ② 재구성 ③ 여론

쉬운 어휘·어법

1 (1) 배제 (2) 논쟁 2 (1) ㉠ (2) ㉡ (3) ㉢ 3 ①

3 ①에서 '맛'은 좋거나 나쁜 것이지 많거나 적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어와 서술어가 제대로 호응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맛이 훨씬 좋고 영양이 훨씬 많습니다.'가 적절한 문장이다.

[오답 풀이]

- ② '나비'와 '새'는 모두 '날다'라는 서술어와 호응된다.
- ③ '전혀'는 '없다'라는 부정 표현과 호응된다.
- ④ '결코'는 '아니다'라는 부정 표현과 호응된다.
- ⑤ '키'는 '크다'와, '몸무게'는 '무겁다'와 호응된다.

잊힐 권리

『오늘날은 누구든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원하는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를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은 개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 기업에 있기 때문에 개인이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삭제하거나 폐기하는 데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된다.』 ‘잊힐 권리’는 바로 이와 같은 인터넷 환경에서 나온 개념이다. 『잊힐 권리란 인터넷에서 생성·저장·유통되는 개인 정보에 대해 유통 기한을 정하거나, 이러한 정보의 수정, 삭제, 영구적인 폐기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1문단: 잊힐 권리의 개념

인터넷 환경에 둘러싸인 현대인에게 잊힐 권리는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잊힐 권리를 법률로 정하여 놓는 것에 대해 찬성과 반대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우선 ㉠ 잊힐 권리의 법제화에 대한 찬성 측은 개인의 인 권 보호를 위해 잊힐 권리를 법률로 정하여 놓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 인터넷 시대에 한번 보도된 기사는 언제든지 다시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기사와 관련된 사람이 소위 ‘신상 털기’로 인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입을 수 있다. 이러한 행위가 기간의 제한 없이,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당사자는 매우 큰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할 수 있는 강제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 2문단: 잊힐 권리의 법제화에 대한 찬성 측의 입장

반면 ㉡ 잊힐 권리의 법제화에 대한 반대 측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잊힐 권리를 법률로 정하여 놓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잊힐 권리가 법제화되면 언론사는 삭제나 폐기를 요구받을 만한 민감한 기사를 보도하는 데 조심스러워질 수밖에 없어 표현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 그리고 기사나 자료가 잊힐 권리의 주장으로 인해 과도하게 삭제될 경우 정부나 기업, 특정인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반대 측은 현실적인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본다. 『인터넷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개인의 정보를 일일이 찾아 지우는 것은 기술적으로 대단히 어렵기 때문이다. 게다가 잊힐 권리를 현실에 적용할 때 투입되는 경제적 비용 문제 역시 기업에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 3문단: 잊힐 권리의 법제화에 대한 반대 측의 입장

- 2018학년도 중3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 지문 해제 이 글은 잊힐 권리에 대해 설명하고, 잊힐 권리의 법제화에 대한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입장을 비교하고 있다. 찬성 측에서는 개인의 인권 보호를, 반대 측에서는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주장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01 ① 02 ⑤ 03 ⑤ 04 ⑤ [① 삭제 ② 한시적 ③ 지속적 ④ 정보 ⑤ 검색]

01 이 글은 잊힐 권리의 법제화를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을 언급하고, 두 입장의 특징을 비교하며 설명하고 있다.

오답 풀이

- ② 인쇄 매체 시대와 인터넷 시대의 특성에 따른 차이를 언급했을 뿐 그 전개 과정을 다루고 있지는 않다.
- ③ 잊힐 권리의 법제화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견해는 소개하고 있지만, 이를 통합하여 절충안을 도출하고 있지는 않다.
- ④ 잊힐 권리의 법제화와 관련된 요소들을 언급했지만, 각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제시하지는 않았다.
- ⑤ 실생활의 사례를 활용하여 설명한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02 인쇄 매체 시대에는 시간이 지나면 해당 기사가 사라졌기 때문에 잊힐 권리가 중요하게 부각되지 않았을 것이다.

오답 풀이

- ② 잊힐 권리와 국민의 알 권리는 상충되는 관계이므로, 잊힐 권리를 강조하면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이 발생한다.
- ③ 3문단에서 잊힐 권리를 실현하려면 경제적 비용이 많이 든다고 했다.

03 3문단에 따르면 ㉠은 인터넷 정보의 소멸·폐기가 기술적으로 어렵다고 본다. 또한 국민의 알 권리 및 표현의 자유가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잊힐 권리의 법제화를 반대하는 것이다.

오답 풀이

- ① ㉠은 개인의 인권 보호를 위해 인터넷에서 유통되는 개인 정보의 기간을 법률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② ㉠은 인터넷에 저장된 개인 정보의 수정과 삭제가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정보의 수정, 삭제, 영구적인 폐기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법률로 정해 놓을 것을 주장하는 것이다.
- ③ ㉠은 개인의 정보를 유출하는 신상 털기로 인해 당사자가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잊힐 권리의 법제화를 주장한다.
- ④ 3문단에 따르면 ㉡은 표현의 자유가 제한받고, 특정 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될 것을 우려하여 잊힐 권리의 법제화를 반대한다.

04 사법재판소는 기사가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므로 정보에 대한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기사 삭제는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 검색 결과는 개인의 기본권과 존엄성을 해치므로 삭제하도록 판결하였다. 이는 정보에 대한 알 권리와 개인의 인권을 아울러 보장한 것이다.

오답 풀이

- ① 글은 ‘신상 털기’의 피해를 입어서가 아니라 자신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아니라는 이유로 정보 삭제를 요청한 것이다.
- ② 글은 자신과 관련된 기사와 검색 결과를 아예 삭제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 ③ 해당 기사는 인터넷 기사이므로 그 피해가 지속적이라 할 수 있다.
- ④ 사법재판소는 해당 기사에 대하여는 경매 정보를 제공한 것이라는 이유로 삭제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핵심 구조화

① 유통 기한 ② 인권 ③ 표현

쉬운 어휘·어법

- 1 (1) 한시적 (2) 영구적 (3) 지속적 2 (1) 법제화 (2) 규제
3 (1) 잊히다 (2) 잊힌 (3) 잊지

로스 리더 마케팅 무라마츠 다츠오

상품의 판매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고객이 있어야 한다. 고객을 모으기 위해 유통업체는 고민하고 또 고민한다. 최근 온-오프라인의 유통업체에서 판매량을 늘리고 최대의 이익을 얻기 위해 고객을 부르는 방법 중 하나로 ‘로스 리더(Loss Leader)’가 있다.
→ 1문단: 고객 유치 위한 유통업체의 노력과 방법

‘로스 리더’는 마케팅 용어로, ‘미끼 상품’, ‘유인 상품’이라고도 한다. 이는 특정 상품의 가격을 낮춰 더 많은 고객을 상품 근처로 유인하고 이들 고객에게 다른 상품까지 판매해 결과적으로 더 많은 수익을 얻으려는 판매 전략이다.
로스 리더의 개념

→ 2문단: 로스 리더의 개념

일반적으로 각 업체에서는 상품을 많이 판매하여 최대의 이익을 얻고자 한다. 그래서 ㉠ 주력 상품을 대량으로 생산하고 최대의 이익을 얻기 위해 다양한 매체를 통해 상품을 광고한다. 로스 리더, 즉 ㉡ 미끼 상품은 주력 상품을 팔기 위한 일종의 우회 전략이다. 고객을 상품 근처로 끌어모으는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미끼 상품은 그 생산량이 제한적인 경우가 많다. 이를 바탕으로 한정 생산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고객의 구매 욕구를 자극하고 고객이 상품에 접근하도록 한다. 이것이 미끼 상품의 존재 가치이다. 미끼 상품은 그 자체의 판매를 통해 오히려 손해를 발생할 수 있지만 주력 상품과 기타 상품으로까지 구매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은 전체적 매출 증가라는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 미끼 상품을 통한 소비자의 인식 전환은 장기적으로 고정 고객을 확보하는 데에도 도움을 준다.
로스 리더의 역할

→ 3문단: 로스 리더의 목적과 기대 효과

그렇지만 미끼 상품이 항상 기업에 이익을 가져다주는 것은 아니다. 고객이 미끼 상품만 골라 구매하거나 다른 상품의 소비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정보가 왜곡되거나 거짓 환상을 심어 주는 등의 잘못된 행위로 인하여 미끼 상품이 부정적 이미지를 가지게 되면 상품 브랜드 전체로 나쁜 이미지를 전이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더군다나 고객 확보를 위한 ㉣ ‘제 살 깎아 먹기’식 가격 경쟁으로 치닫게 되면, 각 업체가 치러야 할 홍역은 커질 수밖에 없다. 언제 어디서든 상품의 최저가 검색이 가능해진 환경 속에서 업체는 더 이상 고객의 충성도를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는 점도 재고해야 할 것이다.
미끼 상품의 위험성 ①

→ 4문단: 로스 리더의 위험성

≫ **지문 해제** 이 글은 상품 판매 전략의 하나인 ‘로스 리더’, 즉 ‘미끼 상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글쓴이는 로스 리더 마케팅 전략이 상품 판매와 기업의 이익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과 위험성을 함께 제시하고 있다.

01 ④ 02 ④ 03 ② 04 ⑤ 05 ③ [① 대량 ② 주력 상품 ③ 우회 전략 ④ 제한적]

01 이 글에서는 기업이 고객 확보를 위해 특정 상품의 가격을 인하는 미끼 상품 전략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④의 질문은 이 글을 통해 답을 찾을 수 있다.

02 ④에서는 생강차의 가격을 반값으로 할인하여 마트로 고객을 유인하고 더불어 다른 식재료를 판매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03 이 글에서 미끼 상품은 가격을 낮추어 고객을 모으는 것으로, 저렴한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해당 업체의 상품의 가격에 대한 만족도, 평가가 높아지게 될 것이다.

○ 답 풀이

- ① 소비자들이 미끼 상품 구매를 통해 업체의 성장 가능성을 판단하기는 어렵다.
- ③ 업체의 이미지가 긍정적으로 바뀔 수는 있지만, 소비자 권익을 위해 애쓰는 기업이라고까지 인식하기는 어렵다.
- ④ 일반적으로 기업의 목적은 이윤 추구이며, 미끼 상품을 저렴하게 내놓았다고 해서 그 업체가 사회 봉사를 지향하는지는 알 수 없다.
- ⑤ 미끼 상품은 품질보다는 가격 면에서 타 상품과 비교하기에 편리하다.

04 ‘교육지책’은 자기 몸을 상해 가면서까지 꾸며 내는 계책이라는 뜻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한 수단으로 어쩔 수 없이 취하는 계책을 말한다.

○ 답 풀이

- ① ‘미봉책’은 ‘눈가림만 하는 일시적인 계책’을 뜻한다.
- ② ‘속수무책’은 ‘어찌할 도리나 방책이 없어 꼼짝 못 함’을 뜻한다.
- ③ ‘과유불급’은 ‘정도가 지나침은 미치지 못한 것과 같음’을 말한다.
- ④ ‘수수방관’은 팔짱을 끼고 보고만 있다는 뜻으로, 나서야 할 일에 간여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을 이르는 말이다.

05 3문단에서 미끼 상품이 주력 상품과 기타 상품으로까지 구매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은 전체적 매출 증가라는 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하였다.

핵심 구조화

① 고객 ② 매출 ③ 부정적 이미지

쉬운 어휘·어법

1 (1) ㉠ (2) ㉡ 2 (1) 전환 (2) 전이 3 ④

3 ④의 ‘미끼’는 사전적 의미인 ‘낚시 끝에 꿩은 물고기의 먹이’라는 뜻으로 사용되었다.

○ 답 풀이

- ① ‘피라미’는 작은 민물고기 중 하나로, ‘하찮은 존재’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 ② ‘뉘’는 ‘빠져나오기 힘든 상태나 상황’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 ③ ‘수족’은 ‘자기의 손이나 발처럼 마음대로 부리는 사람’을 비유한다.
- ⑤ ‘홍역’은 ‘몹시 앓을 먹거나 어려움을 겪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산새들의 연애를 방해하지 마세요_박경화

가 4~7월은 산새들이 짝짓기를 하고 알을 낳아 품는 때이다. 봄이 오면 산새들은 번식을 위해 부지런히 움직이고 열심히 지저귄다. **㉠**사람에게는 이 소리가 아름다운 노랫소리로 들리지만 번식기를 맞은 수컷이 다른 수컷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자기 영역을 주장하는 치열한 몸부림임. **만 새에게는 종족 번식을 위한 절박한 외침이다.**

→ **1문단:** 4~7월은 산새들의 **(번)식기**임.

나 이러한 번식기에 숲을 찾아든 사람들이 외치는 '야호' 소리는 산새들을 깜짝 놀라게 한다. **고함** 소리에 놀라 도망 다니기 바쁜 산새들은 새끼를 낳지 못하거나, 낳아도 불안해서 제대로 알을 품은 암컷들은 매우 예민한 상태이기 때문에 **기를 수가 없다.** 그래서 알을 품고 있던 어미새가 놀라서 동지를 버리고 도망가기도 하고, 스트레스를 받아 알을 깨뜨리는 일도 벌어진다. 그렇게 산새들은 사람을 피해 이리저리 도망 다니다 **사람들의 고함 소리가 산새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만날 기회가 줄어들어 번식기를 놓치는 일이 잦아진다.

→ **2문단:** 사람들이 외치는 **(고)함** 소리가 산새들에게 고통을 줌.

다 산에서 지르는 고함 소리는 여러 차례 메아리가 되어 울린다. 청각이 발달되어 멀리서 나는 작은 소리도 잘 듣는 산새들은 사람보다 더 심한 스트레스를 받는다. 덩달아 산새들의 안식처도 사라져서 산새들은 점점 더 깊은 곳, 사람들이 닿을 수 없는 곳으로 숨어들기 바쁘다. 울무와 덧을 놓는 밀렵꾼이 야생동물을 위협하는 것처럼, 등산객이 무심코 외치는 고함 소리도 **등산객의 고함 소리 때문에 번식기를 놓치게 되므로 산새들을 멸종의 벼랑으로 내몰고 있다.**

→ **3문단:** 등산객의 고함 소리는 산새들을 **(멸)종** 위기로 내몰.

라 숲에서 새의 숫자가 줄어들면 새들의 먹이가 되던 벌레가 부족 늘어나게 된다. **이 벌레들은 숲뿐만이 아니라 농작물에도** **등산객의 고함 소리가 자연에 끼치는 영향 ①** **피해를 준다.** 또, 새들이 나무 열매의 씨앗을 먹고 똥을 싸거나 털에 붙어서 씨앗을 곳곳에 퍼뜨리는 일도 줄어든다. 일생을 한곳에 뿌리내린 나무는 이런 방법으로 자손을 널리 퍼트리는데, 새들이 줄어들면 **결국 나무와 숲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등산객의 고함 소리가 자연에 끼치는 영향 ②** 숲이 건강하지 않으면 나무가 내뿜는 공기와 뿌리가 머금고 있는 맑은 물에도 영향을 미치고 **결국 그 영향은 부메랑이 되어 사람에게 돌아온다.** **등산객의 고함 소리가 자연에 끼치는 영향 ③**

→ **4문단:** 새의 숫자 감소는 나무와 숲, **(사)람**에게도 나쁜 영향을 미침.

마 산에서는 목소리를 낮추고 자연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자. 시원한 바람 소리, 맑은 물소리, 나뭇잎이 흔들리는 소리, 풀잎이 몸을 부비는 소리……. 자연의 소리는 마음을 편안하게 한다. 입은 잠시 침묵하고 분주한 마음도 가라앉히고 오감을 열 산새들에게 고통을 줄 수 있는 소리를 줄이고, 자연이 내는 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을 강조함. **고 자연이 연주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자. 그 순간, 자연과 온전히 하나 되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 **5문단:** 산에서는 **(목)소리**를 낮추고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일 것을 권유함.

01 ③ 02 ③ [① 고함 ② 부작용 ③ 새 ④ 사람] **03** 산에서
는, 보자 **04 ⑤ 05 ③**

» **지문 해제** 이 글은 사람들이 산에 가서 외치는 '야호' 소리가 산새들과 그들을 둘러싼 환경, 사람에게까지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산에서는 목소리를 낮추고 자연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을 설득하고 있다.

01 '산새들의 연애를 방해하지 마세요'는 결국 숲에서 고함을 지르지 말라는 의미이다. 이는 사람들이 지르는 고함 소리 때문에 산새들이 번식기를 놓치게 된다는 것을 드러낸다.

[오답 풀이]

- 이 글에서는 사람들의 등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본 것이 아니라 등산할 때 사람들이 지르는 고함 소리가 문제라고 말하고 있다.
- (다)에서 울무와 덧을 놓는 밀렵꾼은 야생 동물을 위협하는 존재로, 숲에서 고함을 질러 산새들의 짝짓기를 방해하는 사람들이 산새들의 번식을 위협하는 존재임을 드러내기 위해 제시한 것일 뿐 밀렵꾼이 산새들의 짝짓기를 방해하는 것은 아니다.
- 사람들이 고함을 지르면 스트레스를 받은 산새들이 사람들이 닿지 않는 곳으로 숨게 되는 것은 맞지만 제목이 나타내고자 하는 의미는 아니다.
- 산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종족 번식을 위한 절박한 외침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으나, 이것이 제목의 의미를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02 글쓴이가 말하는 문제 상황은 '사람들이 등산할 때 고함을 지른다'는 것이다. 따라서 등산객의 고함 소리 때문에 어떤 문제점이 나타나는지를 글의 내용에서 찾으면 되는데, ③의 내용은 글에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 풀이]

- 사람들의 고함 소리가 산새들에게 직접 미치는 영향이라고 볼 수 있다. 산새들의 편안한 안식처가 사라져서 산새들이 점점 더 깊은 곳으로 숨어든다는 내용은 (다)에 제시되어 있다.
- 사람들의 고함 소리가 산새들의 번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 주고 있다. (나)에서 사람들의 고함 소리에 놀라서 도망 다니기 바쁘고 불안한 산새들이 새끼를 낳고 기르는 일, 짝을 찾는 일도 어려워진다고 말하고 있다.
- 산새들의 번식이 줄면 어떤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지를 보여 주고 있다. (라)에서 새의 숫자가 줄어들면 새들의 먹이가 되던 벌레들이 늘어나게 되어 벌레들이 농작물에 피해를 준다고 말하고 있다. 이 역시 사람들의 고함 소리로부터 불거지는 문제로 볼 수 있다.
- 산새들이 줄어들면 결국 나무와 숲에 나쁜 영향이 미치고 결국 사람에게도 그 파장이 미치게 된다고 (라)에 제시되어 있다. 이 역시 사람들의 고함 소리로부터 불거지는 문제로 볼 수 있다.

03 (마)의 첫 문장은 산에서는 목소리를 낮추고 자연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라는 것으로, 글쓴이가 독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가장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다.

우리나라의 지도

- 04 ㉠에는 4~7월에 울리는 새의 노랫소리의 의미를 밝혀 이 시기가 산새들에게 종족 번식을 위한 중요한 시기임을 강조하기 위한 글쓴이의 의도가 담겨 있다.

오답 풀이

- ① 사람들이 자연을 바라보는 관점도 드러나지만 그것이 글쓴이가 말하고자 한 의도는 아니다.
- ② 봄이 산새들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려 주기 위함은 맞지만, 봄이 사람들에게 주는 의미를 알려 주려는 의도는 아니다.
- ③ 산새들의 고통에 공감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드러나 있지 않다.
- ④ 산새들의 지저귀에 대한 사람들의 잘못된 인식에 대해 언급하고 있기는 하지만 과학적 원리를 설명하기 위한 의도는 아니다.

- 05 <보기>는 사람이 산에서 내지르는 '야호'가 큰 소음임을 말하면서 산새들이 소음 때문에 괴로움을 겪는다는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 따라서 이어지는 문단으로 산새들이 야호 소리로 괴로움을 겪는 직접적인 사례나 그로 인한 결과가 제시된 (다)가 적절하다.

핵심 구조화

① 고함 ② 번식기 ③ 부정적 ④ 목소리

쉬운 어휘·어법

- 1 (1) ㉠ (2) ㉡ (3) ㉢ 2 (1) 밀렵 (2) 울무 3 (1) -어지다 (2) -아지다 (3) -아지다 (4) -어지다

- 3 (1) '멀(다)'의 어간의 모음이 'ㄹ'이므로 '-어지다'가 결합되어 '멀어지다'가 된다.
- (2) '찾(다)'의 어간의 모음이 'ㅈ'이므로 '-아지다'가 결합되어 '찾아지다'가 된다.
- (3) '높(다)'의 어간의 모음이 'ㅍ'이므로 '-아지다'가 결합되어 '높아지다'가 된다.
- (4) '넓(다)'의 어간의 모음이 'ㄹ'이므로 '-어지다'가 결합되어 '넓어지다'가 된다.

산줄기는 사람들이 산을 연결하여 인식하는 선으로, 서구적 관점과 전통적 관점에 따라 다르게 파악된다. 우리나라 산줄기 체계는 서구적 관점에서 파악되어 왔는데, 1980년대에 조선 후기 지리서 『산경표(山經表)』가 발견되면서 우리나라 산줄기 체계를 이 책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과 같은 ㉠전통적 관점으로 파악하자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 1문단: 산줄기 체계를 파악하는 두 관점 - (서)구(적) 관점과 (전)통(적) 관점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대부분의 지도는 산들의 인접성과, 단층선과 습곡축을 아우르는 지질 구조를 기준으로 산줄기를 나타낸다. 이는 1900년대 초 일본의 한 지질학자가 서구적 관점으로 연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서구적 관점에서는 『산줄기를 '산맥'으로 부르고, 산의 인접성과 지질 구조를 강』 서구적 관점에서 산줄기를 파악할 때의 특징 ① 조하여 강이 사이에 있더라도 하나의 산맥으로 본다.』 그래서 『지도상에서는 <그림 1>과 같이 굵은 선으로 표현된 산맥들이 가』 서구적 관점에서 산줄기를 파악할 때의 특징 ② 는 선으로 표현된 강줄기를 지나갈 수도 있다.』 그리고 『각각의 산맥은 하나의 선으로 표현되지만 다른 산맥과는 연결되지 않』 서구적 관점에서 산줄기를 파악할 때의 특징 ③ 고 끊어져 표현되기도 한다.』 이 관점에 따른 지도가 '등고선 지도'이며, 일제 강점기부터 지금까지 100년 이상 사용되고 있다.

→ 2문단: 산의 (인)접(성)과 지질 구조를 기준으로 한 등고선 지도
반면 『산경표』의 지도는 산의 등줄기인 산등성이의 연속성을 기준으로 산줄기를 파악한다. 이 관점은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전통적 관점으로 우리 조상들은 산과 강을 눈으로 확인한 뒤 산줄기 체계를 세웠다. 이 관점에서는 『산줄기를 '대간', '정간', '정맥' 등으로 분류하여 부르며, 산줄기는 강을 가로지를 수 없다고 파악한다.』 그래서 『지도상에서 보면 <그림 2>와 같이 산줄기는 강과 교차되는 부분 없이 하나로 연결되어 나타난다.』 이 관점에서는 백두산에서 시작하여 지리산까지 이어지는 큰 산줄기를 '백두 대간(白頭大幹)'이라고 하고 이것을 중심으로 나머지 작은 산줄기들이 연결되어 있다고 파악한다. 이를 바탕으로 그려진 지도는 '산줄기 지도'이며 ㉡『대동여지도』가 대표적이다.

→ 3문단: 산등성이의 연속성을 기준으로 한 (산)줄(기) 지도
현재 널리 보편화되어 있는 지도는 산들의 인접성과 지질 구조를 기준으로 하는 서구적 관점을 따른 것이다. 하지만 산등성이의 연속성을 기준으로 산줄기를 파악하는 우리 전통적 관점인 백두 대간 체계도 고려되어야 한다. 두 관점은 서로 다른 기준을 잡고 있지만 나름의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느 한쪽의 관점을 따르기보다는 두 가지 관점을 함께 고려하여 우리의 산줄기 체계를 이해해 나가야 할 것이다.

→ 4문단: 서구적 관점과 전통적 관점을 모두 고려하여 (산)줄(기) 체계를 이해해야 함.
- 2015학년도 중3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 **지문 해제** 이 글은 우리나라의 산줄기 체계를 파악하는 두 가지 방식, 즉 기존의 지도에서 활용하고 있는 서구적 관점의 '등고선 지도'와 전통적 관점의 '산줄기 지도'에 대해 설명하며, 이 두 가지 방식 모두 나름의 가치가 있으므로 우리의 산줄기 체계를 이해할 때는 이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01 1문단에서 우리나라의 산줄기 체계를 파악할 때 기존에는 서구적 관점이 지배적이었는데 다른 한편으로 전통적 관점에서 파악하자는 의견이 제기되었다며 화제를 제시하고 있다. 2문단에서는 서구적 관점에서, 3문단에서는 전통적 관점에서 산줄기 체계를 파악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4문단에서 이 두 관점과 관련하여 글쓴이의 주장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서구적 관점과 전통적 관점의 역사적 배경을 밝히고는 있으나 그 가치를 따로 설명하지는 않았다.
- ② 두 관점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문제 상황을 인식하고 이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에 대한 과정이 단계에 따라 구체적으로 드러나지는 않는다.
- ③ 글쓴이는 주장을 먼저 제시하지 않고 앞에서 화제를 제시한 후 그것을 설명하고 마지막에 주장을 제시하고 있다.
- ⑤ 서구적 관점과 전통적 관점의 차이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하고 있으며, 둘 중에 어느 하나가 더 낫다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02 글쓴이는 4문단에서 서구적 관점과 함께 전통적 관점도 고려하여 우리나라의 산줄기 체계를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등고선 지도'가 '산줄기 지도'보다 보기에 훨씬 편하다는 설명은 이 글에서 찾을 수 없다.
- ② 전통적 관점이 드러나 있는 '산경표'의 지도가 산과 강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그렸다는 언급은 3문단에 나타나지만 이것이 글쓴이의 궁극적인 주장은 아니다.
- ③ 기존의 서구적 관점을 완전히 버리고 전통적 관점에서만 산줄기 체계를 이해하자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관점을 모두 고려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 ④ 글쓴이는 서구적 관점과 전통적 관점 중 하나로 통일하자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두 관점을 모두 함께 고려하여 산줄기 체계를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03 산의 인접성과 지질 구조를 기준으로 그린 것은 '등고선 지도'이며, 이는 서구적 관점에 따라 만들어졌다. 『대동여지도』는 산등성이의 연속성을 기준으로 그린 전통적 관점의 '산줄기 지도'이다.

오답 풀이

- ① ㉠은 대표적인 산줄기 지도로서 산등성이의 연속성을 기준으로 그려졌다.
- ② ㉡은 대표적인 산줄기 지도로서 우리 조상들이 산과 강을 눈으로 확인하여 산줄기 체계를 그린 것이다.

③ ㉢은 대표적인 산줄기 지도로서 대간, 정간, 정맥 등의 산줄기 분류가 제시되어 있을 것임을 알 수 있다.

⑤ 산줄기 지도에서는 산줄기가 강을 가로지르지 않게, 즉 산과 강이 교차되지 않고 산줄기가 하나로 연결되도록 나타낸다고 하였다.

04 4문단에서 글쓴이는 서구적 관점과 전통적 관점이 각각 서로 다른 기준을 잡고 있지만 나름의 가치를 가지고 있으므로 두 가지 관점을 함께 고려하여 우리의 산줄기 체계를 이해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오답 풀이

- ② 서구적 관점을 따른 지도가 현재 보편화되어 있는 것은 맞지만, 글쓴이의 입장을 고려했을 때 ㉡을 비판하는 글쓴이의 근거로 적절하지 않다.
- ③ 서구적 관점이 일본 지질학자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은 맞지만, 이것은 전통적 관점의 도입을 주장하는 ㉡에 대한 글쓴이의 비판적 근거가 될 수 없다.
- ④ 큰 산줄기를 중심으로 나머지 작은 산줄기들이 연결되어 있다고 파악한다는 것은 전통적 관점의 특징이며 이 글에서 그러한 방식의 문제점이나 단점이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점을 글쓴이가 ㉡에 대한 비판적 의견의 근거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⑤ 3문단에서 전통적 관점에서는 산줄기를 강과 교차되는 부분 없이 하나로 연결하여 지도를 그려 왔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글쓴이가 ㉡에 대한 비판의 근거로 삼기에 적절하지 않다.

핵심 구조화

① 인접성 ② 등고선 ③ 연속성 ④ 산줄기

쉬운 어휘·어법

1 (1) 인접성 (2) 인식 2 (1) ㉠ (2) ㉠ (3) ㉠ 3 ④

3 '서구적'의 '서구(西歐)'는 '서양을 이루는 유럽과 북아메리카를 통틀어 이르는 말'로, 어근이다. '-적(的)'은 '그 성격을 띠는', '그에 관계된', '그 상태로 된'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이므로 '서구적'은 '어근 + 접사'로 이루어진 파생어이다.

오답 풀이

- ① '산맥'은 '산(어근)+맥(어근)'으로 구성된 합성어이다.
- ② '산줄기'는 '산(어근)+줄기(어근)'로 구성된 합성어이다.
- ③ '등고선'은 '등고(어근)+선(어근)'으로 구성된 합성어이다.
- ⑤ '습곡축'은 '습곡(어근)+축(어근)'으로 구성된 합성어이다.

서당의 특징_김수동 외

서당은 고려 시대를 거쳐 조선 시대에 특히 발달하였으며, 일제 강점기를 지나 해방 후에도 전국 각 지방에 남아 있던, 유서 깊은 전통적 교육 기관이었다. → 1문단: 전통적 교육 기관인 서당의 유래

서당에서는 문자를 익히고 유학의 기초를 배우는 등 초등 수준의 교육이 이루어졌으며, 서당의 조직은 가르치는 훈장과 배우는 학동이 주축을 이루었다. 그리고 훈장을 도와서 학업 지도와 생활 지도를 하는 접장이 있었다.

→ 2문단: 서당의 교육 수준과 구성원
…… 훈장 자영 서당은 지방 유지나 유학자가 훈장이 되어 직접적으로 운영한 것이다. 유지 독영 서당은 마을에서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이 자기 자제를 교육시키기 위하여 훈장을 초빙하고 서당 운영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부담한 것이다. 유지 조합 서당은 마을의 유지들이 서당 조합을 만들어 훈장을 초빙하고 자기 자제들을 공부시킨 것이다. 동리 공동 서당은 마을 전체가 공동으로 경비를 부담하여, 훈장을 초빙하고 그들의 자제를 공부시킨 것이다. 동족 조합 서당은 같은 종친끼리 조합을 구성하여 경비를 공동으로 부담하여, 자기 가문의 자제들을 공부시킨 것이다. 그 외에 지방 관청의 소재지에 지방 행정관이 설립하고 운영한 관립 서당이 있었다.

→ 3문단: 서당의 운영 형태에 따른 분류
서당의 교육 내용은 글을 읽고 뜻을 밝히는 강독, 시나 글을 짓는 제술, 글씨 쓰기를 배우고 익히는 습자로 분류할 수 있다. 능력별 개별 학습을 하였기 때문에 학생들의 개인적 능력에 따라 진도가 서로 다르며, 혼자서 문장을 읽고 그 의미를 이해할 때까지 반복하여 암송하였다.

→ 4문단: 서당의 교육 내용 및 방법
서당의 교육적인 성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서당은 초등 교육 기관이다. …… 넷째, 서당은 지역 사회 교화의 중심지였다. 서당의 훈장은 서당의 학동들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마을의 대소사에도 관여하여 마을 사람들을 교화하였다.

→ 5문단: 서당의 교육적 성격
서당은 작은 마을 단위마다 존재했고, 대중의 문자 교육뿐만 아니라 도덕 규범을 확립하는 교화 기능도 담당하였다. 학비가 거의 들지 않았으며, 자치적으로 운영되었고, 천민이 다닐 정도로 신분 차별도 없었던 유일한 전통 교육 기관이었다.

→ 6문단: 서당의 기능과 특징
» 지문 해제 이 글은 서당의 교육 내용 및 방법, 운영 형태, 성격 등을 설명하고 있다. 초등 수준의 교육이 이루어졌던 서당은 누구나 설립이 가능했고, 학비가 거의 들지 않았으며 신분 차별도 없었던 유일한 전통 교육 기관이었다.

01 ④ 02 ③ 03 ⑤ 04 ④ [1] 문자 ② 교화 ③ 훈장 ④ 강독 ⑤ 습자]

01 서당에서 배우는 교재의 종류는 이 글에 나타나 있지 않다.

오답 풀이

- ① 3문단에서 서당이 운영된 다양한 형태를 설명하고 있다.
- ② 2문단에서 서당에서는 문자와 유학의 기초를 가르쳤다고 하였고, 4문단에서도 서당의 교육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 ③ 5문단에서 서당의 교육적 성격을 밝히며 서당의 훈장은 마을의 대소사에도 관여하여 마을 사람들을 교화했다고 하였다.
- ⑤ 3문단에서 서당의 운영 형태를 설명하며 각 형태에 따라 운영 경비를 조달했던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02 나. 3문단에서 서당을 운영 형태에 따라 분류하여 그 종류를 밝히고 있다. 4문단에서도 서당의 교육 내용을 분류하여 종류를 밝히고 있다. 다. 5문단에서 서당의 교육적인 성격을 나열하고 있다.

03 3문단에서 설명한 '유지 독영 서당'은 마을에서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이 모든 경비를 부담한 것이므로 서당의 운영 경비를 개인이 부담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오답 풀이

- ① 4문단에서 서당에서는 능력별 개별 학습을 하였기 때문에 개인 능력에 따라 진도가 다르다고 하였다.
- ② 2문단에서 서당에서는 문자를 익히고 유학의 기초를 배운다고 하였다.
- ③ 6문단에서 서당은 천민이 다닐 정도로 신분 차별도 없었던 유일한 전통 교육 기관이었다고 하였다.
- ④ 3문단에서 지방 행정관이 설립·운영한 관립 서당이 있었다고 하였다.

04 4문단에서 서당은 학생들의 개인적 능력에 따라 진도가 서로 다르다고 하였다. ㉠에서는 학생들이 동일한 내용을 함께 배우며 협력 학습을 한다고 하였으므로 이 글에서 진술한 서당의 특성과 맞지 않다.

핵심 구조화

① 전통 교육 ② 훈장 ③ 관립 ④ 문자 ⑤ 강독

쉬운 어휘·어법

1 (1) 유서 (2) 동리 (3) 유학 2 (1) 주축 (2) 역점 3 ③

3 '서당의'에서 조사 '의'는 [ㄷ] 발음을 허용하기 때문에 [서당의]라고 발음하고 [서당에]도 허용한다.

오답 풀이

- ① '거쳐'는 '거치다'라는 용언의 활용형이다. 어미에 해당하는 이중 모음인 'ㅌ'는 이중 모음으로 발음하지 않고 [ㄷ]로 발음하기 때문에 '거쳐'는 [거쳐]로 발음해야 한다.
- ② '예, 레' 이외의 'ㅈ'일 때만 [ㅈ] 발음을 허용한다고 하였으므로, '예절'은 [예절]로 발음해야 한다.
- ④ 단어의 첫음절 '의'는 [ㄷ]로 발음해야 하므로 '의미'는 [의미]라고 발음해야 한다.
- ⑤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ㄴ'은 [ㄴ]로 발음해야 하므로 '희비'는 [히비]로 발음해야 한다.

오토파지¹이은희 외, 『미래를 읽다 과학이슈』

우리 몸에는 외부의 환경이나 미생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자기 방어 시스템이 있는데, 이를 자연치유력이라고 한다. 우리 몸은 이상이 생겼을 때 자기 진단과 자기 수정을 통해 이를 정상적으로 회복하기 위해 노력한다. 인체의 자연치유력 중 하나인 ① ‘오토파지’는 세포 안에 쌓인 불필요한 단백질과 망가진 세포 소기관을 분해해 세포의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현상이다.

→ 1문단: 인체의 자연치유력에 해당하는 오토파지의 개념

평소에는 우리 몸이 항상성을 유지할 정도로 오토파지가 최소한으로 일어나는데, 인체가 오랫동안 영양소를 섭취하지 못하거나 해로운 균에 감염되는 등 스트레스를 받으면 활성화된다. 예를 들어 밥을 제때에 먹지 않아 영양분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으면 우리 몸은 오토파지를 통해 생존에 필요한 아미노산 영양소를 섭취하지 못했을 때 아미노산과 에너지를 공급하는 오토파지의 기능과 에너지를 얻는다. 이 외에도 몸속에 침투한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오토파지의 기능을 오토파지를 통해 제거하기도 한다.

→ 2문단: 오토파지의 활성화 조건과 그 기능

그렇다면 오토파지는 어떤 과정을 거쳐 일어날까? 세포 안에 불필요한 단백질과 망가진 세포 소기관이 쌓이면 세포는 세포막을 이루는 구성 성분을 이용해 이를 이중막으로 둘러 싸 작은 주머니를 만든다. 이 주머니를 ‘오토파고솜’이라고 부른다. 오토파고솜은 세포 안을 동등 떠다니다가 리소좀을 만나서 합쳐진다. ‘리소좀’은 단일막으로 둘러싸인 구형의 구조물로 그 속에 가수분해효소를 가지고 있어 오토파지 현상을 주도하는 역할을 한다. 오토파고솜과 리소좀이 합쳐지면 ‘오토파고리소좀’이 되는데 리소좀 안에 있는 가수분해효소가 오토파고솜 안에 있던 쓰레기들을 잘게 부수기 시작한다. 분해가 끝나면 막이 터지면서 막 안에 들어 있던 잘린 조각들이 쏟아져 나온다. 그리고 이 조각들은 에너지원으로 쓰이거나 다른 세포 소기관을 만드는 재료로 재활용된다.

→ 3문단: 오토파지가 일어나는 과정

이러한 오토파지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불필요한 단백질과 망가진 세포 소기관이 세포 안에 쌓이면서 세포 내 항상성이 무너져 노화나 질병을 초래한다. 그래서 ② 과학자들은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 오토파지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연구하거나 오토파지를 이용해 병을 치료하는 방법을 찾고 있다. 자연치유력에는 오토파지 이외에도 ‘면역력’, ‘아포토시스’ 등이 있다. ‘면역력’은 질병으로부터 우리 몸을 지키는 방어 시스템이다. ‘아포토시스’는 개체를 보호하기 위해 비정상 세포, 손상된

세포, 노화된 세포가 스스로 사멸하는 과정으로 우리 몸을 건강한 상태로 유지하게 한다. 이러한 현상들을 통해 우리는 우리 몸을 지킬 수 있는 것이다.

→ 4문단: 오토파지의 중요성 및 면역력, 아포토시스 등의 자연치유력
- 2019학년도 9월 고1 학력평가

» **지문 해제** 우리 몸에 작용하는 자연치유력 중의 하나인 오토파지에 대해 설명하는 글이다. 오토파지가 무엇인지 개념을 설명한 후, 오토파지가 어떤 상황, 어떤 경우에 활성화될 수 있는지를 설명하며 그 기능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오토파지가 일어나는 과정을 단계적으로 설명하여 오토파지의 원리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마지막 문단에서는 자연치유력에 오토파지 외에 면역력과 아포토시스도 있다고 소개하면서 글을 마무리하고 있다.

01 1문단에서 오토파지의 개념을 소개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3문단에서 오토파지가 일어나는 과정을 단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오답 풀이]

- ② 리소좀에 들어 있는 가수분해효소의 기능을 제시하였으나, 관련 기관의 구조를 요소별로 분석하지는 않았다.
- ③ 오토파지에서 비롯되는 문제점을 제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그 해결 방법이 제시되지도 않는다.
- ④ 오토파지가 일어나는 원리와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데, 오토파지의 여러 특징이 나타나는 원인을 규명하고 있지는 않다.
- ⑤ 4문단의 ‘오토파지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이 상황을 가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그 상황에 관한 이론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고 있지는 않다.

02 ㄴ은 오토파고솜이다. 오토파고솜은 ㄱ을 이중막으로 둘러싼 구조물이다. 단일막으로 둘러싼 것이라는 이해는 적절하지 않다. ‘단일막으로 둘러싸인 구형의 구조물’이란 설명은 리소좀에 해당한다.

03 오토파지는 평소 우리 몸이 항상성을 유지할 정도로 최소한으로 일어난다. 따라서 인체의 항상성이 유지될 때 오토파지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 ① 2문단에서 인체가 오랫동안 영양소를 섭취하지 못하거나 해로운 균에 감염되는 등 스트레스를 받으면 오토파지가 활성화되고 우리 몸은 오토파지를 통해 아미노산을 얻는다고 제시하고 있다.
- ② 오토파지는 세포가 스스로 사멸하는 것이 아니라 불순물을 없애 정상적인 상태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세포가 스스로 사멸하는 것은 아포토시스이다.
- ④ 오토파지는 자연치유력의 하나로 인체가 외부의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게 해 주는 자기 방어 시스템에 해당한다.
- ⑤ 1문단에서 몸이 이상이 생겼을 때 자기 진단과 자기 수정을 통해 이를 정상적으로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자연치유력의 개념으로 제시하고 있다. 오토파지는 자연치유력에 해당하므로 인체의 자기 진단과 자기 수정의 과정을 통한 정상적 상태의 회복으로 오토파지를 설명하는 것이 가능하다.

핵의학 기술_유광열, 「핵의학 기술」

04 오토파지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노화나 질병이 초래된다고 하였다. 이는 오토파지가 노화나 질병을 예방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오토파지를 통해 몸속에 침투한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제거한다고 하였다. 이는 오토파지가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점 때문에 과학자들은 오토파지를 활성화시키는 방법, 오토파지를 이용해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답 풀이

- ① 오토파지, 면역력 등은 모두 자연치유력에 해당한다. 따라서 오토파지의 활성화가 인체의 면역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② 오토파지는 인체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인체를 다시 정상 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해 활성화되는 것이므로 적절하지 않은 진술이다.
- ④ 자연치유력으로는 오토파지 외에 면역력, 아포토시스 등도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은 진술이다.
- ⑤ 유해균이나 바이러스가 인체로 침투했을 때 오토파지가 활성화될 수 있다. 그러면 오토파지를 통해 유해균이나 바이러스를 제거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오토파지가 유해균이나 바이러스가 인체로 침투하는 것 자체를 막는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다.

핵심 구조화

① 과정 ② 면역력 ③ 사멸

쉬운 어휘·어법

1 (1) 주도 (2) 섭취 2 (1) ㉠ (2) ㉡ (3) ㉢ 3 ㉡

3 '잘린'의 기본형은 '잘리다'이다. '잘리다'는 어근 '자르-'에 피동 접미사 '-리-'가 결합해 파생된 단어이다. 그리고 '썰이면서'의 기본형은 '썰이다'이다. '썰이다'는 어근 '썰-'에 피동 접미사 '-이-'가 결합해 파생된 단어이다. ㉠, ㉡ 모두 피동 접미사가 포함되어 있다.

○ 답 풀이

- ① ㉡은 발음될 때 'ㅎ'이 탈락하지만, ㉠은 발음될 때 음운의 탈락이 일어나지 않는다.
- ③ ㉡은 '-면서'라는 연결 어미가 결합해 있지만 ㉠은 연결 어미가 결합되어 있지 않으며, 현재 사건이나 사실을 서술하는 종결 어미 '-니다'가 사용되었다.
- ④ ㉠, ㉡ 모두 관형사형 어미가 결합되어 있지 않다.
- ⑤ ㉠, ㉡ 모두 동사로, 단어의 파생 과정에서 어근의 품사가 바뀌지 않았다.

양전자 단층 촬영(PET)은 세포의 대사량 등 인체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몸속에 특정 물질을 주입하여 그 물질의 분포를 영상화하는 기술이다. 이때 대사량이란 사람의 몸속 세포가 생명 유지를 위해 필요로 하는 에너지의 총량으로 정상 세포와 비정상 세포는 대사량에서 차이가 난다. PET는 특정 물질과 비정상 세포의 반응을 이용하여 이들의 분포를 확인할 수 있다.

→ 1문단: 비정상 세포의 분포를 영상화하는 PET 기술

PET를 통해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선 몸속에 ① 방사성 추적자를 주입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PET에 사용되는 방사성 추적자는 방사성 동위원소를 결합한 포도당 성분의 특정 물질로 이는 특정한 원소 또는 물질의 이동 양상을 알아내기 위해 쓰인다. 이렇게 주입된 방사성추적자는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비정상 세포에 방사성추적자가 대량으로 흡수되는 이유 포도당과 유사하기 때문에, 대사량이 높아서 많은 에너지원을 필요로 하는 비정상 세포에 다량 흡수된다. 그런데 세포 안으로 흡수된 방사성추적자는 일반 포도당과 달리 세포의 에너지원으로 세포 안으로 흡수된 방사성추적자가 보이는 특징으로 사용되지 않고, 일정 시간 동안 세포 안에 머무른다.

→ 2문단: 방사성추적자의 활용 원리와 특징

세포 내에 축적된 방사성추적자의 방사성 동위원소는 붕괴되면서 양전자를 방출한다. 방출된 양전자는 몸속의 전자와 결합하여 소멸하는데, 이때 두 입자의 질량이 에너지로 바뀐다. 이 방사성추적자에서 방출된 양전자가 전자와 만나 두 입자의 질량이 에너지로 전환되는 과정 에너지는 180도 각도를 이루는 한 쌍의 감마선으로 방출되어 양전자와 전자의 질량이 전환된 에너지가 감마선으로 방출되는 양상 몸 밖으로 나온다.

→ 3문단: 세포 내에서 한 쌍의 감마선이 방출되는 과정

몸 밖으로 나온 감마선은 PET 스캐너를 통해 검출되는데, PET 스캐너는 수많은 검출기가 검사 대상을 원형으로 둘러싸고 있는 구조이다. 180도로 방출된 한 쌍의 감마선은 각각의 진행 방향에 있는 검출기에 도달하게 된다. 이때 한 쌍의 감마선이 도달한 검출기의 두 지점을 잇는 직선을 동시검출응답선이 라고 하며 감마선의 방출 지점은 이 선의 어느 한 점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한 쌍의 감마선이 각각의 검출기에 도달하는 시간에는 미세한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는 몸의 어느 지점에 현실적으로는 동시계수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에서 감마선이 방출되었는지에 따라 검출기까지의 거리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 4문단: 동시검출응답선의 개념과 한 쌍의 감마선이 각각의 검출기에 도달하는 시간에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

감마선이 PET 영상의 유효한 성분이 되기 위해서는 한 지점에서 방출된 한 쌍의 감마선이 PET 스캐너의 검출기로 동시에 도달해야 하는데 이 경우를 동시계수라고 한다. 하지만 ① 한 쌍의 감마선이 완전히 동시에 도달하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불가 감마선이 방출되는 몸의 지점에 따라 한 쌍의 감마선이 각각 검출기에 이르는 거리가 달라져서 생기는 결과 능하므로 PET 스캐너는 동시계수로 인정할 수 있는 최대 시간 동시계수시간폭의 개념

폭인 동시계수시간폭을 설정하고 동시계수시간폭 안에 들어온 경우를 유효한 성분으로 간주한다.

→ 5문단: 동시계수의 개념과 동시계수시간폭 설정의 이유

그런데 동시계수시간폭 내에 도달한 한 쌍의 감마선 즉 동시계수 중에서도 PET 영상에 유효한 성분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우선 감마선이 주변의 물질과 상호 작용을 일으켜 진행 방향이 바뀌면서 검출기에 도달하는 시간의 변화가 생겼으나 동시계수시간폭 내에 검출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산란계수라고 한다. 다음으로 한 지점에서 방출된 두 개의 감마선 중 한 개의 감마선만이 검출기로 도달할 때, 다른 지점에서 방출된 한 개의 감마선과 동시계수시간폭 내에 도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랜덤계수라고 한다. 이 두 경우는 모두 실제 감마선이 방출된 지점이 동시검출응답선 위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PET 산란계수, 랜덤계수가 PET 영상의 정확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는 이유 영상의 정확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 즉, 한 지점에서 방출된 한 쌍의 감마선이 아무런 방해받지 않고 동시계수시간폭 내에 도달하는 참계수만이 유효한 영상 성분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PET 영상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산란계수와 랜덤계수의 검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동시계수시간폭을 적절하게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 6문단: 산란계수와 랜덤계수의 개념 및 적절한 동시계수시간폭 설정의 중요성
- 2021학년도 11월 고1 학력평가

▶ 지문 해제 양전자 단층 촬영(PET)의 작동 원리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글이다. 몸속에 방사성추적자를 주입하여 방사성추적자에서 나오는 양전자를 이용하는 원리를 과정에 따라 설명하고 있다. '동시계수', '동시계수시간폭' 등의 개념을 설명하여 원리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그리고 한 쌍의 감마선이 동시계수시간폭 내에 도달하더라도 PET 영상에 유효한 성분이 되지 않는 경우인 '산란계수', '랜덤계수'에 대해서도 설명하여 PET 영상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동시계수시간폭'을 적절하게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제시하고 있다.

01 3문단에서 세포 내에 축적된 방사성추적자의 방사성 동위원소가 붕괴되면서 양전자를 방출하고, 방출된 양전자가 몸속의 전자와 결합하여 소멸할 때 두 입자의 질량이 에너지로 바뀌어 180도 각도를 이루는 한 쌍의 감마선으로 방출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를 통해 양전자와 전자가 결합해 소멸하면서 감마선이 방출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 ① 1문단에서 정상 세포와 비정상 세포는 대사량에서 차이가 난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정상 세포와 비정상 세포의 인체 내 분포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PET이다.
- ③ 3문단에서 양전자가 몸속의 전자와 결합하여 소멸할 때 전환된 에너지, 즉 한 쌍의 감마선이 180도 각도로 방출된다고 제시하고 있다. 방출되는 지점에 따라 감마선의 방출 방향이 변화한다고 추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방출되는 지점에 따라 변화하는 것은 방출 방향이 아니라 도달하는 시점이다.

- ④ 6문단을 보면 동시계수시간폭의 값이 클수록 산란계수와 랜덤계수가 많이 발생함을 알 수 있다. 이 두 경우는 PET 영상의 정확성을 낮춘다.
- ⑤ 동시계수는 한 쌍의 감마선이 검출기에 동시에 도달하는 것을 의미한다. 검사 대상이나 감마선의 방출 지점에 따라 동시계수는 달라질 수 있다.

02 2문단에서 세포 안으로 흡수된 방사성추적자는 포도당과 유사하지만 일반 포도당과 달리 세포의 에너지원으로 사용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오답 풀이

- ② 2문단에서 방사성추적자는 대사량이 높아서 많은 에너지원을 필요로 하는 비정상 세포에 다량 흡수된다고 하였다.
- ③ 2문단에서 방사성추적자는 방사성 동위원소를 결합한 포도당 성분의 특정 물질이라고 하였다.
- ④ 2문단에서 방사성추적자가 특정한 원소 또는 물질의 이동 양상을 알아내기 위해 쓰인다고 하였다.
- ⑤ 1문단에서 PET는 몸속에 특정 물질을 주입하여 그 물질의 분포를 영상화하는 기술이라고 하였다. 이때 사용되는 것이 방사성추적자이다. 방사성추적자는 정상 세포와 비정상 세포의 분포를 영상화하는 데 활용된다.

03 4문단에서 몸의 어느 지점에서 감마선이 방출되었는지에 따라 검출기까지의 거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한 쌍의 감마선이 각각의 검출기에 도달하는 시간에는 미세한 차이가 발생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이는 한 쌍의 감마선이 완전히 동시에 도달하는 경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유가 된다.

오답 풀이

- ① 동시검출응답선은 한 쌍의 감마선이 PET 스캐너에 도달하면 생기는 것이다. 이것이 ㉠의 요인이 될 수는 없다.
- ② PET 스캐너의 검출기의 개수는 한 쌍의 감마선이 검출기에 동시에 도달하는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따라서 ㉠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없다.
- ③ 3문단에서 한 쌍의 감마선은 180도 방향으로 방출된다고 하였다. 방출되는 각도가 경우에 따라 달라지지 않고 일정하므로 ㉠의 요인이 될 수 없다.
- ⑤ 비정상 세포는 방사성추적자를 세포 내에 축적한다. 이에 따라 방사성추적자는 일정 시간 동안 세포 내에 머무른다. 이것 때문에 한 쌍의 감마선이 검출기에 완전히 동시에 도달하는 경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04 C는 랜덤계수가 나타난 경우를 보여 준다. 6문단에서 랜덤계수는 한 지점에서 방출된 두 개의 감마선 중 한 개의 감마선만이 검출기로 도달할 때, 다른 지점에서 방출된 한 개의 감마선과 동시계수시간폭 내에 도달하는 경우라고 설명하고 있다. C를 보면, 두 개의 방출 지점이 있는데, 각 지점에서 방출된 한 쌍의 감마선 중 각각 한 개의 감마선만 검출기에 도달하였다. 그런데, 그렇게 서로 다른 지점에서 방출된 두 감마선이 마치 한 쌍의 감마선인 것처럼 동시계수시간폭 내에 검출기에 도달한 것이다. 따라서 두 쌍의 감마선이 모두 동시계수시간폭 이내에 검출기에 도달한 경우라고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이러한 랜덤계수는 PET 영상의 정확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고 하였다.)

편충에 대한 편견과 재발견 서민

오답 풀이

- ① A는 180도 방향의 한 쌍의 감마선이 3ns 시간 차이로 검출기에 도달하였다. 이와 같이 동시계수시간폭이 3ns로 작은 것은 감마선과 주변 물질의 상호 작용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6문단에 의하면, 주변 물질에 방해 받지 않고 동시계수시간폭 이내에 검출기에 도달하는 것은 참계수가 된다.
- ② <보기>에서 B는 감마선과 주변 물질의 상호 작용이 있었다고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상호 작용 때문에 B에서 180도 방향으로 방출된 두 감마선 중 하나는 진행 중에 꺾여 검출기에 도달하였다.
- ④ A는 180도 방향으로 방출된 한 쌍의 감마선이 검출기에 도달하였다. 이에 따라 동시검출응답선 위에 방출 지점이 위치한다. 그러나 B는 진행 중에 한 감마선의 진행 방향이 꺾였으며, C는 서로 다른 감마선이 한 쌍의 감마선인 것처럼 검출기에 동시계수시간폭 이내에 도달하였다. 따라서 B, C는 동시검출응답선 위에 감마선이 방출된 지점이 존재하지 않는다.
- ⑤ B는 산란계수, C는 랜덤계수에 해당한다. 6문단에서 산란계수와 랜덤계수 검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동시계수시간폭을 적절하게 조절하면 PET 영상의 정확도가 높아진다고 했다. 이는 B, C가 PET 영상의 정확도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함을 나타낸다.

핵심 구조화

① 방사성 동위원소 ② 감마선 ③ 참계수

쉬운 어휘·어법

1 (1) 방출 (2) 주입 (3) 간주 2 (1) ㉠ (2) ㉡ (3) ㉢ 3 ⑤

- 3 '서두르다'는 활용할 때에 어미 '-어'가 결합하는 경우 어간이 '서두르-'에서 '서둘르-'로 변한다. 어간의 '-르-'가 '-ㄹ르-'로 변한 것이다.

2011년에 나온 『임상 기생충학』에 따르면 편충은 장내 기생충 중에서 숙주에게 의학적인 피해를 가장 적게 주는 기생충이다. 『편충은 그렇게 해로운 기생충이 아님.』 그럼에도 편충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좋지 않은 이유는 전파 경로가 같아서 거의 동시에 감염이 되는 회충 때문이다. 편충에 비해 훨씬 몸이 크고 운동성도 뛰어난 회충은 장을 막아 버리거나 다른 장기로 가서 병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았고, 심지어 입으로 나와 버리는 혐기적인 모습까지 연출한다. 그러다 보니 나쁜 기생충의 상징이 된 회충과 함께 편충은 소위 '회충의 줄' 회충과 편충은 거의 같이 감염되기 때문에 '개' 째름으로 인식되기에 이른다. 그러나 정부가 기생충과의 전쟁을 시작하면서 1997년에 편충 감염률은 0.04%로 떨어지게 된다. → 1문단: 편충에 대한 사람들의 오해와 편충 감염률의 저하

그런데 수만 년에 걸쳐 기생충과 싸워 왔던 우리 몸의 면역계는 어느 날 기생충이 싹 사라지자 곧바로 새로운 적을 찾아 공격하기 시작한다. 그 결과 다발 경화증, 당뇨병, 크론병 등과 같은 인간의 몸에서 기생충이 사라지면서 발생하게 된 문제점은 소위 자가 면역 질환이 증가하게 되었다. 실제로 '기생충이 없어진 나라에서 자가 면역 질환은 눈에 띄게 급증하고 있으며, 인간의 몸에서 기생충이 사라진 뒤 발생하는 문제점의 구체적인 사례' 장 전체를 공격해 수십 차례의 설사를 유발하는 크론병은 서양에서 인구 10만 명당 30~100명이 걸릴 정도로 발병 빈도가 높아졌다. 우리나라 역시 기생충 감염률이 3%대로 떨어진 1990년대부터 크론병 환자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 2문단: 기생충 감염률 저하로 인한 자가 면역 질환의 증가

학자들은 생각했다. 자가 면역 질환의 증가가 기생충이 없어져서 생긴 게 맞다면 기생충을 다시 감염시켜 면역계를 달래 주면 좋아질 것 아닌가? 이를 위해 학자들이 선택한 최선의 기생충 요법에 효과적 기생충의 종류는 돼지 편충이었다. 돼지 편충은 크기가 적당히 커 면역계를 만족시킬 수 있으면서도 기생충 자체에 의한 병변이 적다. 또한 사람 편충과 달리 흡혈도 거의 안 하고 두세 달 동안 조용히 있다가 나가 버린다. 학자들은 크론병을 앓는 환자들에게 3주마다 돼지 편충 알을 2,500개씩 먹였다(양으로 따지면 물 한 방울 정도밖에 안 된다). 결과는 놀라웠다. 4개월 뒤에 75%는 증상이 좋아졌고, 65%는 내시경으로 완치 판정을 받았다. 8개월이 됐을 때 완치 판정을 받은 이는 72%였다. → 돼지 편충이 크론병을 치료하는 데 매우 큰 효과가 있었음.

→ 3문단: 자가 면역 질환의 치료에 효과를 보인 돼지 편충

이 결과에 학자들은 크게 고무됐고 그 후 연구를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크론병뿐만 아니라 다발 경화증 등 다른 질환에도 돼지 편충 요법을 시도 중인데, 현재까지의 결과는 긍정적이며 아직까지 돼지 편충으로 인한 부작용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물론 이 방법을 대대적으로 환자들에게 적용하는 것은 쉽지 않

다. 또한 이 치료법을 쓰고 난 뒤 재발하는 경우가 없는지도 면밀히 관찰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마땅한 치료법이 없던 크론병에 돼지 편충 요법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만은 확실하다.

→ 4문단: 돼지 편충 요법의 효과에 대한 기대

» **지문 해제** 이 글은 편충에 대한 편견과 치료 요법으로서의 편충의 효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편충을 포함한 기생충 감염률의 저하로 자가 면역 질환이 증가했으며, 이를 치료하기 위한 방법으로 편충을 활용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01 장을 막거나 다른 장기로 가서 병을 일으키는 것은 편충이 아니라 회충이다.

오답 풀이

- ① 1문단에서 편충은 회충과 전파 경로가 같아서 거의 동시에 감염이 된다고 하였다.
- ② 1문단에서 편충이 그다지 해롭지 않은 기생충임에도 그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좋지 않음을 말하고 있다.
- ③ 1문단에서 편충은 기생충 중에서 숙주에게 의학적인 피해를 가장 적게 주는 기생충이라고 하였다.
- ④ 1문단에서 정부 차원의 노력으로 1997년 우리나라 국민의 편충 감염률이 0.04%로 떨어졌음을 밝히고 있다.

02 1문단에서 편충은 숙주에게 기생충 중 의학적인 피해를 가장 적게 줌에도 나쁜 기생충의 상징과도 같은 회충과 전파 경로가 같아서 거의 동시에 감염되기 때문에 사람들의 인식이 좋지 않다고 하였다. 편충을 회충의 부수적인 것으로, 부정적인 것으로 보면서 ①과 같이 인식하게 된 것이다.

오답 풀이

- ① 정부가 회충과 편충을 구별하지 않고 기생충 전체와의 전쟁을 시작한 것은 ①의 이유가 아니다. 오히려 ① 때문에 일어난 결과로 볼 수 있다.
- ③ 회충과 편충 감염률이 각각 언급되지는 않았다. 또한 회충 감염률이 떨어지면서 편충 감염률이 함께 떨어졌다고 해도 그것이 ①의 이유가 될 수는 없다.
- ④ 2문단에서 회충, 편충과 같은 기생충 감염률이 3%대로 떨어진 1990년대부터 크론병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고 하였으므로 회충과 편충이 자가 면역 질환의 증가 현상을 유발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른 진술이다. 또한 ①과의 관련성도 찾을 수 없다.
- ⑤ 자가 면역 질환은 오히려 회충과 편충 감염률이 떨어지면서 생기는 병으로 회충과 편충으로 인한 질병이 아니므로 사실과 다른 진술이다. 또한 ①과의 관련성도 찾을 수 없다.

03 4문단을 보면, 돼지 편충 요법을 대대적으로 환자들에게 적용하는 것은 쉽지 않으며, 이 치료법을 쓰고 난 뒤 재발하는 경우가 없는지도 면밀히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오답 풀이

- ②, ③ 기생충이 사라짐으로써 자가 면역 질환이 증가하게 되었고, 이를 치료하기 위해 기생충의 하나인 돼지 편충을 이용하는 것이다.
- ④ 돼지 편충은 크기가 적당하고 기생충 자체에 의한 병변이 적으며 흡혈도 안 하고 두세 달 동안 조용히 있다가 몸 밖으로 나가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치료 수단으로 선택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 ⑤ 3문단에서 크론병을 앓는 환자들에게 돼지 편충 알을 3주마다 2,500개씩 먹였을 때 8개월 후 완치 판정이 72%에 이를 정도로 효과가 컸음을 확인할 수 있다.

04 2문단을 보면, 오랫동안 기생충과 싸워 온 우리 몸의 면역계가 기생충이 사라지자 다른 적을 찾아 공격하면서 자가 면역 질환이 증가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2문단에서 기생충이 사라지자 기생충과 싸워 왔던 면역계가 새로운 적을 찾아 공격하면서 자가 면역 질환이 증가하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 ② 2문단에서 기생충이 사라지면 면역계가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면역계가 다른 적을 찾아 공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③ 우리나라 사람들의 면역계와 서양 사람들의 면역계가 다르다는 설명은 없으며, 우리나라도 기생충 감염률이 3%대로 떨어진 1990년대부터 크론병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 ⑤ 자가 면역 질환 중 하나인 크론병이 설사를 유발한다는 설명이 있을 뿐 기생충이 들어왔을 때 면역계가 설사를 통해 그것을 몸 밖으로 내보낸다는 설명은 찾아볼 수 없다.

핵심 구조화

① 편견 ② 회충 ③ 치료 ④ 돼지

쉬운 어휘·어법

1 (1) 고무 (2) 병변 (3) 숙주 2 (1) 경로 (2) 엽기적 (3) 재발
3 ②

3 '인식되기에'는 [인식되기에]로 발음된다. 즉 첫째 조건이 적용되어 '인식'의 음절 끝소리 'ㄱ'으로 인해 뒤에 오는 'ㄷ'이 된소리로 발음되는 것이다.

오답 풀이

- ① '엽기적인'은 첫째 조건이 적용되어 '엽'의 음절 끝소리 'ㅂ' 때문에 뒤의 'ㄱ'이 된소리로 발음되는 것이다.
- ③ '금중'은 첫째 조건이 적용되어 '금'의 음절 끝소리 'ㅂ' 때문에 뒤의 'ㄷ'이 된소리로 발음되는 것이다.
- ④ '설사'는 셋째 조건이 적용되어 한자어 받침 'ㄹ' 뒤에 오는 'ㅅ'이 된소리로 발음되는 것이다.
- ⑤ '할 거야'는 넷째 조건이 적용되어 관형사형 어미 '-(으)ㄹ' 뒤에 오는 'ㄱ'이 된소리로 발음되는 것이다.

연잎 효과 _K.메데페셀헤르만

『연꽃 잎사귀는 물방울이 떨어지면 방울 형태를 그대로 유지
 『연잎 효과의 개념』
 하고 표면이 조금이라도 기울어져 있으면 미끄러져 내린다. 그
 결과 연꽃 잎사귀는 심한 소나기가 내리는 동안에도 마른 상태
 를 유지한다. 더욱이 먼지들은 물방울에 끌려 내려가 연꽃 잎사
 귀는 자정 작용을 하게 된다.』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
 은 연꽃 잎사귀 표면의, 물과 친화력이 극도로 적은, 이른바 초
 연잎 효과는 연꽃 잎사귀의 표면이 물과 친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난다.
 소수성 때문이다. 이를 ‘연잎 효과’라고 하는데, 독일의 식물학
 자 빌헬름 바틀루이 최초로 발견하였다. → 1문단: 연잎 효과의 개념

그런데 연꽃 잎사귀의 이러한 특성들은 어떻게 생겨난 것일
 까? 현미경으로 관찰해 보면 연꽃 잎사귀는 여러 겹의 다양한
 막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꽃 잎사귀의 외피는 두께가
 5~10마이크로미터이며, 10~15마이크로미터 간격으로 떨어
 져 있는 작은 마디를 지니고 있다. 이 마디들은 지름이 약 100
 나노미터인 결정체들로 구성된 섬세한 나노 구조로 덮여 있다.

매우 미세한 표면 구조를 가지고 있고 표면에 직경 1나노미터의
 연꽃 잎사귀가 물과 친할 수 없는 구조적인 특성 - 소수성 결정으로 코팅된 나노 구조의 표면
 소수성 결정이 코팅되어 있다. 나노 규모에서 거친 표면은 매끄
 러운 표면보다 더 강한 소수성을 나타낸다. 그것은 물과 고체
 사이의 접촉 면적이 작아지기 때문이다. 연꽃의 잎사귀는 톱니
 연꽃 잎사귀의 표면이 거칠어 물과 만나는 면적이 적음.
 와 같은 거친 표면을 가지고 있다. → 2문단: 연잎 표면의 나노 구조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무엇보다도 잎 표면과 물방울 표면이
 접촉하는 각도이다. 그 각도는 잎사귀가 물에 젖는 정도를 나타
 내는 척도이다. 친수성의 표면에서 물방울은 넓게 퍼진 형태가
 되며 접촉각은 매우 작다. 소수성의 표면에서는 접촉각이 매우
 크다. 『매끈한 표면은 극도의 소수성 물질로 이루어져 있을 경우
 『매끈한 표면을 가진 잎사귀는 물방울과 만나는 면이 넓지만 톱니 같은 표면의
 라도 물에 대한 접촉각이 120도 정도이다. 이와 달리 마이크로
 연꽃 잎사귀는 물방울과 만나는 면이 적음.
 및 나노 영역에서 구조화한 물질의 접촉각은 170도에 이른다.

연잎의 경우 실제 접촉면은 물방울로 덮인 면의 2~3퍼센트에
 불과하다.』 → 3문단: 물방울과의 접촉각이 큰 연잎

그러므로 연잎 위의 물방울은 마치 밀랍 막대기들로 이루어
 연잎 표면과 닿은 면이 극도로 적음을 나타내는 비유
 진 바늘 침대의 끝에 닿아 있는 듯하다. 이를 통해 물과 밀바닥

사이의 인력이 최소화된다. 물방울은 구슬 형태를 이루어 잎이
 연잎 표면과 물방울이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없음.
 조금만 기울어도 표면에서 떨어지면서 오염 입자들을 함께 가
 연잎이 자정 작용을 할 수 있는 이유
 저한다. → 4문단: 연잎이 자정 작용을 하는 원리

≫ **지문 해제** 이 글은 연잎 효과가 발생하는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연잎 효과는
 연꽃 잎사귀 표면의 초소수성 때문에 발생한다고 밝히면서, 연꽃 잎사귀의 톱니
 와 같은 거친 표면과, 물방울과의 접촉각이 큰 특성과 연관 지어 연잎 효과의 원
 리를 설명하고 있다.

01 이 글은 ‘연잎 효과’에 대해 다루고 있다. 물방울이 떨어지면 방울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표면이 조금이라도 기울어져 있으면 미끄
 러져 내리는 연꽃 잎사귀의 특성을 연잎 효과로 설명하고 있다.

02 연꽃 잎사귀는 톱니와 같은 거친 표면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물방
 울은 형태를 유지하며 그대로 굴러가면서 먼지들을 쓸어 내린다. 이
 를 종합하면 ③이 가장 적절하다.

○ **오답 풀이**

- ① 연잎 표면은 거칠지만 물방울이 먼지를 두고 굴러가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② 연잎 표면은 거칠지만 물방울이 구르면서 오히려 먼지를 남기고 있으
 로 적절하지 않다.
- ④ 연잎 표면이 톱니 모양이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⑤ 연잎 표면이 거칠지 않고 물방울이 먼지를 두고 굴러가므로 적절하지 않다.

03 1문단에 “연꽃 잎사귀는 물방울이 떨어지면 방울 형태를 그대로 유
 지하고 표면이 조금이라도 기울어져 있으면 미끄러져 내린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를 참고하면 ‘연잎 효과’를 응용한 사례로 가장 적
 절한 것은 ②의 자동차 유리임을 알 수 있다.

○ **오답 풀이**

- ① 세제의 화학 작용을 이용해 세척하는 과정을 설명한 것이다.
- ③ 실리콘의 특성을 이용한 제빵용 종이를 설명한 것이다.
- ④ 푸딩을 젤 상태로 유지시키는 응고제의 기능이 제시되었다.
- ⑤ 충격을 흡수하는 폴리우레탄의 특성을 응용한 경우이다.

04 1문단에서 연꽃 잎사귀 표면의, 물과 친화력이 극도로 적은, 이른바
 초소수성 때문에 연꽃 잎사귀에 자정 작용이 나타나는 것을 ‘연잎
 효과’로 설명하였다. 이러한 특성이 생겨난 이유는 연꽃의 잎사귀가
 거친 표면을 가지고 있어 소수성을 나타내기 때문이며, 잎 표면과
 물방울 표면이 접촉하는 각도가 매우 크기 때문에 물방울이 쉽게
 떨어지면서 오염 입자를 가져가기 때문이라 설명하고 있다.

핵심 구조화

① 연잎 ② 초소수성 ③ 거친 ④ 큼

쉬운 어휘·어법

1 (1) 친수성 (2) 밀랍 (3) 자정 2 (1) 척도 (2) 입자 (3) 외피
 3 ④

3 ④는 ‘구조화’에서 관형사형 어미 ‘-ㄴ’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관
 형절을 가진 안은문장임을 알 수 있다.

○ **오답 풀이**

- ① ‘접촉각이 매우 크다’는 ‘소수성의 표면’에 대한 서술어이므로, 서술절을
 가진 안은문장임을 알 수 있다.
- ② ‘작은’에서 관형사형 어미 ‘-은’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관형절을 가진 안은
 문장임을 알 수 있다.
- ③ ‘젖은’에서 관형사형 어미 ‘-는’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관형절을 가진 안은
 문장임을 알 수 있다.
- ⑤ ‘있음’에서 명사형 어미 ‘-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명사절을 가진 안은문
 장임을 알 수 있다.

조상의 슬기가 낳은 석빙고의 비밀 이광표

선조들은 늦겨울 강가에서 얼음을 잘라 내 저장한 뒤 여름에 수시로 그 얼음을 꺼내 더위를 물리쳤다. 이때 얼음을 저장했던 창고를 빙고(氷庫)라 하는데, 현재는 조선 시대에 돌로 만든 빙고, 즉 석빙고(石氷庫)만 남아 있다. 한여름 무더위에도 얼음이 녹지 않았던 비결은 무엇일까?

→ 1문단: 선조들이 얼음을 저장한 빙고

석빙고의 얼음 저장은 두 단계로 나뉜다. 첫 번째는 얼음 저장에 앞서 겨울 내내 내부를 냉각시키는 단계이다. 석빙고 내부에 미리 차게 만들어 놓는 것은 얼음 저장의 가장 기본적인 작업이다. 전문가들의 측정에 따르면 경주 석빙고의 겨울철 내부 온도는 평균 영하 0.5℃~영상 2℃로, 보통 지하실 내부가 영상 15℃ 안팎이라는 점에 비하면 석빙고 내부가 얼마나 차가운지 알 수 있다.

→ 2문단: 석빙고 내부를 냉각시키는 단계

냉각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 석빙고 입구를 잘 살펴보면 출입문 옆에 세로로 날개벽이 붙어 있다. 겨울에 부는 찬바람은 이 날개벽에 부딪치면서 소용돌이로 변한다. 소용돌이는 추진력이 있어서 더욱 빠르고 힘차게 석빙고 내부 깊은 곳까지 밀고 들어간다. 석빙고는 이렇게 찬 기운을 유지하게 된다.

→ 3문단: 석빙고 내부 냉각의 비결

두 번째는 얼음 저장 이후 저온을 유지하는 단계이다. 늦겨울에 저장한 얼음은 봄이 지나고 여름이 되어도 정말 녹지 않았을까? 물론 녹았다. 그러나 미미한 정도였다. 그렇다면 한여름에 어떻게 찬 기운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석빙고의 절묘한 천장 구조를 살펴보자. 화강암 천장은 1~2미터 간격을 두고 4~5개의 아치형으로 만들어져 있다. 각각의 아치형 천장 사이는 움푹 들어간 빈 공간으로 되어 있는데, 내부의 더운 공기를 가두는 이 공간을 '에어 포켓'이라고 한다.

→ 4문단: 석빙고 내부의 저온 유지 단계의 비결인 천장 구조

얼음을 저장하고 나면 내부 공기는 미세하지만 조금씩 더워진다. 여름에는 얼음을 꺼내기 위해 수시로 문을 열어야 하니 더욱 그러하다. 더운 공기는 위로 뜬다. 하지만 더운 공기가 위로 뜨는 순간 그 공기는 에어 포켓에 갇혀 꼼짝할 수 없게 된다. 에어 포켓에 갇힌 더운 공기는 에어 포켓 위쪽에 설치된 환기구를 통해 밖으로 빠져나간다. 이렇게 해서 석빙고 내부는 초여름에도 0℃ 안팎을 유지할 수 있다.

→ 5문단: 천장 구조에 의한 저온 유지의 원리

석빙고의 비밀은 또 있다. 얼음에 치명적인 습기와 물을 재빨리 밖으로 빼내기 위해 바닥에 비스듬하게 기울어진 배수로를 만든 것이다. 또한 빗물 침투를 막기 위해 석빙고 외부에 석회

와 진흙으로 방수층을 만들었다. 얼음과 벽, 얼음과 천장 틈 사이에는 밀짚, 톱밥 등의 단열재를 채워 넣어 외부 열기를 차단했다. 또한 석빙고 외부의 잔디는 햇빛을 흐트러뜨려 열 전달을 방해하는 효과가 있으니, 선인들의 빼어난 과학 지식이 그저 놀라울 따름이다.

→ 6문단: 석빙고의 얼음이 녹지 않는 그 밖의 비결

▶ 지문 해제 한여름에도 석빙고의 얼음이 녹지 않았던 비결을 겨울 동안 내부를 냉각시키는 단계와, 얼음 저장 이후 저온을 유지하는 단계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01 2문단에서 석빙고 내부의 온도는 겨울에 평균 영하 0.5℃~영상 2℃라고 하였고, 5문단에서 석빙고 내부는 초여름에 0℃ 안팎을 유지한다고 하였으므로 겨울과 여름에 큰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 ① 1문단에 현재는 조선 시대에 돌로 만든 석빙고만 남아 있다고 했다.
- ③ 6문단에 얼음과 벽 사이에 밀짚, 톱밥 등의 단열재를 채워 외부 열기를 차단했다고 제시되어 있다.
- ④ 5문단에 얼음을 저장하고 나면 내부 공기는 미세하지만 조금씩 더워진다고 제시되어 있다.
- ⑤ 6문단에 석빙고 외부의 잔디는 햇빛을 흐트러뜨려 열 전달을 방해하는 효과가 있다고 제시되어 있다.

02 ㄱ. 이 글은 석빙고에 얼음을 저장할 수 있었던 비결을 두 단계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ㄴ. “얼음이 녹지 않았던 비결은 무엇일까?”, “냉각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 등으로 질문을 던진 후 그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있다.

03 1문단에서 석빙고는 얼음을 보관하기 위한 시설이었다고 나와 있다. ‘아크찰’도 얼음을 보관하는 데 사용했기에 조선 시대나 고대 페르시아 모두 여름에도 얼음을 이용한 음식을 먹을 수 있었을 것이다.

핵심 구조화

① 날개벽 ② 환기구 ③ 방수층

쉬운 어휘·어법

1 (1) 환기구 (2) 추진력 (3) 아치형 (4) 단열재 2 (1) ㉠ (2) ㉠ (3) ㉠ 3 (1) 첫 번째 (2) 차가운지 (3) 빈틈없이, 빈 공간

- 3 (1) ‘첫째’는 차례나 횟수를 나타내는 의존 명사로 앞의 관형사 ‘첫’과 띄어 쓴다.
 (2) ‘-ㄴ 지’는 막연한 의문을 표현하는 연결 어미로 사용되었다. ‘지’가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는 의존 명사로 쓰인 경우에는 관형사형 어미(‘-ㄴ’ 등)와 띄어 쓴다.
 (3) ‘빈틈없이’는 하나의 단어(부사)로, 붙여 쓴다. ‘빈 공간’의 ‘빈’은 ‘비다’의 관형사형으로 피수식어인 ‘공간’과 띄어 쓴다.

머피의 법칙 정재승

살다 보면 되는 일도 있고 안 되는 일도 있다지만, 곰곰이 따져 보면 안 되는 일이 더 많다. 슈퍼마켓에서 줄을 서면 꼭 다른 줄이 먼저 줄어들고, 중요한 날엔 옷에 커피를 쏟거나, 버스를 놓쳐 지각하기 일쑤다. 그럴 때마다 생각하는 법칙이 있으니 바로 ‘머피의 법칙’이다. 이 머피의 법칙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잘될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는 일은 반드시 잘못된다.”라는 것이다. 세상이 우리에게 얼마나 가혹한지 정리해 놓은 이 법칙은 불행하게도 중요한 순간엔 어김없이 들어맞는다.

→ 1문단: [머피]의 법칙의 의미

머피의 법칙이 잘 들어맞는 이유를 과학적으로 증명한 과학자가 있다. 영국 애슈턴 대학 정보 공학과에서 방문 연구원으로 일하던 로버트 매슈스가 처음 증명한 머피의 법칙은 ‘버터 바른 토스트’에 관한 것이었다. 아침에 출근 준비로 부산을 펴며 토스트에 버터를 발라 허둥대며 먹다 보면 빵을 떨어뜨리기 쉽다. 그런데 공교로운 것은 하필이면 버터를 바른 쪽이 꼭 바닥으로 떨어진다는 사실이다. 로버트 매슈스는 보통의 식탁 높이나 사람의 손 높이에서 토스트를 떨어뜨릴 경우 토스트가 충분히 한 바퀴를 버터 바른 쪽을 천장을 향해 위로 들고 먹으므로 한 바퀴를 회전한다면 버터를 바른 회전할 만큼 지구의 중력이 작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간단한 계산으로 증명했다. 대부분 반 바퀴 정도를 들고 바닥에 닿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보았을 때, 버터를 바른 면이 바닥을 향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임. 버터를 바른 면이 반드시 바닥을 향해 떨어진다는 것이다.

→ 2문단: 로버트 매슈스가 과학적으로 [증명]한 머피의 법칙

슈퍼마켓에서 혹은 현금 자동 인출기 앞에서 제일 빨리 줄어드는 것 같은 줄 뒤에 서지만, 늘 다른 줄들이 먼저 줄어든다. 도대체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 문제는 조금만 생각해 보면 당연한 결과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만약 슈퍼마켓에 12개의 계산대가 있다고 가정해 볼 때, 평균적으로 내가 선 줄이 가장 먼저 줄어드는 확률은 얼마일까? 그것은 당연히 12분의 1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다른 줄이 먼저 줄어들 확률이 12분의 11이나 된다는 얘기다. 아주 운이 좋지 않다면, 어떤 줄을 선택하든 결국 나는 다른 줄이 먼저 줄어드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

→ 3문단: [확률]로 설명한 머피의 법칙

『우리는 그동안 열두 줄이나 길게 늘어선 계산대 앞에서 내 줄이 제일 먼저 줄어들기를 바랐고, 식탁 높이에서 토스트를 떨어뜨렸으면서도 토스트가 멋지게 한 바퀴를 돌아 버터 바른 면을 위로 하고 떨어지기를 바랐던 것이다.』 머피의 법칙은 세상이 우리에게 얼마나 가혹한가를 말해 주는 법칙이 아니라, 우리가 자신에게만 재수 없는 일이 생겼던 것이 아니라 그동안 세상에 얼마나 많은 것을 무리하게 요구했는가를 지적하는 법칙인 것이다.

→ 4문단: 세상에 대한 우리의 [무리]한 요구를 깨닫게 하는 머피의 법칙

01 ③ 02 ⑤ 03 ① 04 ③ [① 무능한 ② 깨끗한 ③ 잘된 ④ 미루는]

» **지문 해제** 이 글은 일상의 구체적 사례를 통해 ‘머피의 법칙’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버터 바른 토스트’에 관한 사례와 슈퍼마켓에서 줄을 설 때면 꼭 다른 줄이 먼저 줄어드는 사례를 통해, 글쓴이는 ‘머피의 법칙’은 자신에게만 운이 따르기를 바라는 우리의 바람이 무리한 요구였음을 말해 주는 법칙이라고 말하고 있다.

01 이 글의 주제는 마지막 문단에 잘 나타난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머피의 법칙은 자신에게만 운이 따르길 바라는 우리의 바람이 무리한 요구였음을 말해 준다고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 ① 이 글은 머피의 법칙이 재수의 문제가 아니라 당연한 결과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 ② 4문단에서 머피의 법칙은 세상이 우리에게 얼마나 가혹한가를 말해 주는 법칙이 아니라고 하였다.
- ④, ⑤ 이 글은 설명문으로 머피의 법칙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설득적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02 로버트 매슈스의 증명에 따르면, 버터를 바른 면이 바닥을 향해 떨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결과이며, 확률적인 계산과는 다름을 보여 준다. 버터를 바른 면이 바닥을 향하는 확률이 2분의 1이 되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중력의 영향으로 대부분 버터를 바른 면이 바닥을 향해 떨어진다는 것이다.

[오답 풀이]

- ① 2문단에 로버트 매슈스가 버터 바른 토스트의 사례로 머피의 법칙을 증명하는 내용이 나타나 있다.
- ② 1문단에서 불행하게도 중요한 순간에는 머피의 법칙이 어김없이 들어맞는다고 하였다.
- ③ 3문단을 보면, 슈퍼마켓에서 줄을 설 때 내가 선 줄보다 다른 줄이 먼저 줄어드는 이유를 확률적으로 계산하고 있다.
- ④ 2문단에 나오는 로버트 매슈스의 실험에 의하면 버터 바른 면이 바닥을 향해 떨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결과로, 재수가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03 노력한 만큼 성적이 나오길 바라는 것은 세상에 무리하게 요구하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04 셸리의 법칙은 계속해서 자신이 바라던 대로 일이 일어남을 뜻하는 용어로 머피의 법칙과 반대되는 말이다.

핵심 구조화

① 반 ② 1/n ③ 운

쉬운 어휘·어법

- 1 (1) 가혹하다 (2) 공교롭다 (3) 무리하다
2 (1) 부산 (2) 지적 3 ③

3 ①은 아름다운 것이 사람의 ‘눈’인지, 기상 현상으로서의 ‘눈’인지 불분명하고, ②는 점심에 안 먹었다는 것인지, 밥을 안 먹었다는 것인지 불분명하고, ④는 예쁜 것이 가방인지 가영이인지 불분명하다.

인공위성의 비행 원리. 장조원

질량이 큰 지구 주위를 도는 작은 물체인 달을 지구의 위성이
라 한다. 지구는 달보다 질량이 크기 때문에 중력도 크다. 그런
데도 달이 지구에 떨어지지 않고 계속 회전하는 것은 지구 주위
를 공전할 때 생기는 원심력이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 즉 달에
작용하는 지구의 인력과 평형을 이루기 때문이다. 즉 어떤 물체
라도 충분한 회전 속도에 의한 원심력이 주어지면 지면으로 떨어
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지구 주위를 돌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인공위성이 지구로 추락하지 않는 이유이다.

→ 1문단: 달이 지(구)에 떨어지지 않는 이유

인공위성은 자연 위성과 같은 원리를 이용하여 사람이 어떤
목적에 의해 지구 주위를 일정한 주기로 돌게 하는 물체를 말한다.
(그림)에서와 같이 대기권 밖에서 공을 던질 때 공이 충분히
못한 속도를 갖는 경우 공은 중력에 의해 지표면으로 떨어지
지만, 공을 더 세게 던지면 약하게 던졌을 때보다 더 멀리 가서
떨어지게 된다. 공을 세게 던지면 던질수록 더 멀리 가서 떨어
지고 심지어 지구 반대편 지표면에 떨어진다. 그리고 ㉠공을
어느 속도 이상으로 아주 세게 던지면 공은 떨어지지 않고 계속
공에 작용하는 원심력과 중력이 평형을 이루기 때문인
해서 지구를 돌게 된다. 그러므로 인공위성을 지구로 추락시키지
않고 지구 주위로 회전시키기 위해서는 지구 중력을 극복할 수
있는 충분한 속도가 필요하다. 인공위성을 지구 표면에서 쏘아
올려 초기 회전을 시키기 위해서는 제1차 우주 비행 속도인 초속
7.9km가 필요하며, 속도를 증가시켜 탈출 속도인 초속 11.2km
가 되면 지구 중력권을 벗어나게 된다. 따라서 지구에서 쏘아 올
린 인공위성은 초속 7.9~11.2km로 비행해야 떨어지지 않는다.

→ 2문단: 인공위성의 공전 원리와 지구에 떨어지지 않기 위한 비행 속(도)

만약 공기의 마찰이 없다면 인공위성은 초기의 속도로 지구
주위를 영원히 돌 것이다. 지구는 대기층으로 싸여 있으며 그
밀도는 지구로부터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감소한다. 약 160km
의 고도로 올라가면 공기는 거의 존재하지 않고 대기도 사라지
게 된다. 이렇게 공기의 저항이 없는 곳을 '우주'라 정의한다.

'우주'의 의미 → 3문단: 공기의 저항이 없는 우(주)

일반적으로 인공위성은 공기가 없는 우주에서 비행하도록 설
계된다. 지구의 공기 밀도가 높은 곳에서 비행을 하게 되면 공
기의 마찰에 의해 인공위성의 속도가 감소하여 자꾸 지구로 떨어
지기 때문이다. 공기 저항은 고도의 증가와 함께 기하급수적
으로 감소하다가 약 500km 이상의 고도에서는 거의 사라진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인공위성을 고도 500km 이상에 위치
시키는 것은 바로 이러한, 고도 저하에 따른 공기 저항에 의한
위성의 연료 소모를 줄이기 위함이다.

→ 4문단: 인공위성이 우주에서 비(행)하도록 설계된 이유

» **지문 해제** 이 글은 인공위성이 지구로 떨어지지 않고 계속 비행하는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달이 지구로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달의 원심력과 지구의 인력이
평형을 이루기 때문인데, 인공위성도 이와 같은 원리로 지구 주위를 공전하며 지
구로 떨어지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다.

01 2문단에 인공위성은 자연 위성과 같은 원리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
타나 있다.

[오답 풀이]

- ① 달이 지구에 떨어지지 않고 계속 회전하는 것은 지구 주위를 공전할 때
생기는 원심력이 달에 작용하는 지구의 인력과 평형을 이루기 때문이
며, 인공위성도 자연 위성과 같은 원리로 지구를 계속 공전한다고 서술
하고 있다.
- ③ 공기의 마찰이 없다면 인공위성은 초기의 속도로 지구 주위를 영원히
돌 것이라고 3문단에 제시되어 있다.
- ④ 4문단에 나타나 있다.
- ⑤ 2문단에서 지구에서 쏘아 올린 인공위성은 초속 7.9~11.2km로 비행해
야 떨어지지 않는다고 서술하고 있다.

02 달이 지구에 떨어지지 않고 계속 회전하는 이유처럼 공이 지구에
떨어지지 않고 계속 도는 것은 공에 작용하는 원심력과 중력이 평
형을 이루기 때문이다.

03 ㄱ: 인공위성의 초기 회전을 위해서는 초속 7.9km의 비행 속도가
필요하므로, 초속 7.8km의 인공위성 A는 지구로 추락할 것이다.
ㄷ: 인공위성의 탈출 속도인 초속 11.2km를 넘어선 인공위성 B(초속
11.3km)는 지구 중력권을 이탈하게 될 것이다.

[오답 풀이]

- ㄴ: 인공위성 A의 원심력보다 지구 중력이 커서 인공위성 A는 지구로 추락
할 것이다.
- ㄹ: 인공위성 B는 원심력이 지구 중력보다 커서 지구 중력권을 이탈하는데,
1문단에 따르면 달의 중력은 지구의 중력보다 작다. 따라서 인공위성 B
의 원심력은 달의 중력보다 크므로 인공위성 B는 달 주위를 돌게 되지
않는다.

04 인공위성은 대기층을 벗어나 공기가 없는 우주에서 공전이 가능하
며, 이를 위해서는 원심력과 중력이 같아야(평형을 이루어야) 한다.

[오답 풀이]

- ① '달'은 인공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므로 지구의 자연 위성에 해당한다.
- ② 우주에 공기가 있다면 마찰로 인해 인공위성이 추락할 것이다.
- ③ 우주 탐사선은 초속 11.2km 이상이 되어야 지구 중력권을 벗어날 수 있다.
- ⑤ 공기가 없는 곳에서는 공기 저항에 의한 마찰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공
은 처음 던져진 속도 그대로 나아가게 된다.

핵심 구조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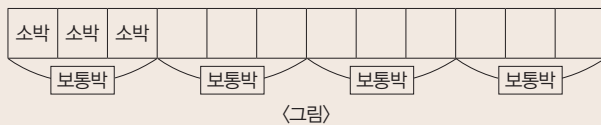
① 원심력 ② 중력 ③ 공기

쉬운 어휘·어법

1 (1) ㉠ (2) ㉡ (3) ㉢ 2 (1) 고도 (2) 밀도 (3) 주기 3 ①

국악의 장단

국악의 ㉠장단이란 일반적으로 일정한 주기로 소리의 길이와 강약이 규칙적으로 되풀이되는 것을 말하며, 기본 단위인 '박'으로 구성된다. 박은 음의 길이를 재는 단위로, 기준이 되는 박을 보통박이라 하고 보통박을 더 작은 단위로 쪼갠 박을 소박이라 한다. 여러 개의 소박이 모여서 하나의 보통박을 이루며, 우리 민요 장단은 굿거리장단처럼 3개의 소박으로 이루어진 보통박이 4번 나타나는 3소박 4보통박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다. 이를 정간보에 나타낼 때는 <그림>과 같이 12정간(칸)이 필요하다.



→ 1문단: 박의 개념 및 민요 장단의 일반적 구성

국악 연주에서 장단을 맡는 대표적인 악기는 장구로, 장단을 맞추기 위해 장구의 가죽 면을 치는 것을 '점(點)'이라 한다. 장구 장단을 정간보에 기보할 때는 각각의 점에 해당하는 부호를 사용하며, 악기에서 울려 나오는 특징적인 소리를 입으로 흉내 낸 구음을 부호 아래에 첨가하기도 한다.

→ 2문단: 점의 개념 및 장구 장단을 정간보에 기보하는 방법

장구 장단을 칠 때는 한 손으로 채를 잡아 채편을 치고 다른 손으로는 북편을 치는데, 장구의 채편과 북편을 동시에 치는 것을 '덩'이라 하고 정간보에 '㉠'로 표시한다. 이는 합장단이라고도 하며 주로 음악을 시작할 때 사용한다. 채편을 한 번 치는 것을 '덕'이라 하고 'ㅣ'로 표시하며, 채편을 칠 때 짧은 꾸밈음을 붙여 치는 것을 '기덕'이라고 하고 'ㅣ'로 표시한다. '기덕'은 채편을 겹쳐 친다고 하여 겹채라고도 한다. 채의 탄력을 이용하여 채를 굴리며 채편을 칠 때는 '더러러러'라고 하고 'ㅣ'로 표시한다. '덕', '기덕', '더러러러'에서는 북편을 치지 않고 채편만 치며, 장구의 북편만 칠 때는 '쿵'이라 하고 '○'로 표시한다.

→ 3문단: 장구 장단을 칠 때 치는 방법과 정간보에의 표시 방법

또한 정간보에는 점의 길이도 나타낼 수 있다. 한 정간에 점을 나타내는 부호 하나가 있으면 그 점은 한 소박이 되고, 한 정간에 점을 나타내는 부호 하나가 있고 그다음 정간이 빈칸으로 남아 있으면 그 점은 두 소박이 되는 식이다. 비어 있는 정간은 앞의 소리를 연장한다는 표시이기 때문이다. 또한 장단을 칠 때는 기본이 되는 장단을 흐트러트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악곡의 장단을 칠 때 변주의 가능 범위

01 ④ 02 ② ① 쿵 ② 4 ③ 더러러러 ④ 기덕 ⑤ 빈칸 03 ② 04 ④

흐름이나 연주자의 해석에 따른 변주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연주자에 따라 '기덕'을 '덕'으로 바꾸거나 '쿵더러러러'를 '쿵덕쿵'으로 바꾸어 변주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변주는 악곡의 흐름에 맞게 장단에 변화를 주어 음악을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 4문단: 정간보에서의 점의 길이 표시 방법 및 장단의 변주

한편 실외음악이나 사물놀이처럼 큰 소리를 내야 할 때에는 북편을 손 대신 공채로 치기도 한다. 또한 채편을 칠 때는 채편 가죽의 중앙 부분인 북편을 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독창 또는 독주의 반주나 실내악 연주처럼 소리를 작게 내어야 할 경우에는 가죽의 가장자리 부분인 변죽을 친다. 변죽은 작고 높은 소리가 나는 반면, 북편은 크고 낮은 소리가 나기 때문에 연주 상황에 어울리는 소리가 나도록 치는 것이다. 장단은 단지 음악의 진행을 시간적으로 안내하는 역할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연주자나 창자의 호흡을 조절하며 음악의 분위기를 이끌어 나간다. 따라서 국악을 깊이 있게 감상하려면 장단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우리 음악에 담긴 흥을 더욱 잘 느낄 수 있을 것이다.

→ 5문단: 소리를 조절하는 방법 및 장단의 의미

- 2021학년도 9월 고1 학력평가

» **지문 해제** 국악의 장단의 개념과 함께 장단을 이루는 박의 개념을 소개한 후 장단을 맞추기 위한 장구 연주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글이다. 이 과정에서 장단을 정간보에 기보하는 방법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 정간보는 장단의 길이를 나타낼 수 있는 기보법이다. 장단은 음악의 진행을 시간적으로 안내하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연주자나 창자의 호흡을 조절하며 음악의 분위기를 이끌어 나간다. 이 때문에 국악을 감상할 때 장단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01 1문단에서 국악의 장단, 박, 소박 등의 개념을 소개하고 2문단에서 장단을 맡는 대표적인 악기가 장구임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3, 4문단에서 장구로 장단을 연주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오답 풀이

- 이 글은 국악의 장단이 만들어진 배경이나 국악의 장단이 발전해 온 과정을 설명하고 있지 않다.
- 1문단에서 국악의 장단이 박으로 구성됨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박의 기능을 요소별로 분석하고 있지는 않다.
- 이 글에서 국악의 장단을 유형별로 분류하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 이 글은 국악의 장단에 대해 설명하고 있을 뿐, 장단에 관한 특정한 관점이 나타나는 주요 이론을 요약했다고 볼 수 없으며, 그 관점에서 장단의 의미를 입증하고 있지도 않다.

그린 공공 디자인 김대호

02 <보기>는 4개의 보통박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각의 보통박은 '덩, 기, 덕', '쿵, 덕', '쿵, 더러러러, 쿵', '덕, 기덕'의 점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를 통해 서로 다른 점을 쳐야 하는 보통박이 4번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 ① 장구의 북편을 치는 것에는 '덩'과 '쿵'이 있다. <보기>에서는 장구의 북편을 채편과 함께 치는 '덩'이 1번, 장구의 북편만 치는 '쿵'이 3번 나타나 북편을 모두 4번 치게 된다.
- ⑤ 4문단에서 '비어 있는 정간은 앞의 소리를 연장한다는 표시'라고 하였다. 따라서 <보기>에서는 '덩' 1번, '덕' 2번을 두 소박으로 연주해야 한다.

03 5문단에서 독창 또는 독주의 반주나 실내악 연주처럼 소리를 작게 내야 하는 경우에 변죽을 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변죽은 작고 높은 소리가 나기 때문에 연주 상황에 따라 소리를 작게 내기 위해 변죽을 치는 것이다.

오답 풀이

- ① 1문단에서 궁거리장단이 민요에 많이 사용된다는 사실을 제시하고 있으나, 그 이유는 이 글에 설명되어 있지 않다.
- ③ 3문단에서 합장단을 주로 음악을 시작할 때 사용한다는 사실을 제시하고 있으나, 그 이유는 이 글에 설명되어 있지 않다.
- ④ 5문단에서 장구의 북편에서 크고 낮은 소리가 난다는 사실을 제시하고 있으나, 그 이유는 이 글에 설명되어 있지 않다.
- ⑤ 3문단에서 장구의 채편과 북편을 동시에 치는 것을 '덩'이라고 한다고 제시하고 있으나, 그 이유가 이 글에 설명되어 있지는 않다.

04 2문단에서 장구 장단을 기보할 때 각각의 점에 해당하는 부호를 사용하며, 악기에서 울려 나오는 특징적인 소리를 입으로 흉내 낸 구음을 부호 아래에 첨가하기도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점을 나타내는 부호 이외의 구음은 제외된 채로 정간보에 기보된다고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 ① 1문단에서 장단은 소리의 길이와 강약이 일정한 주기로 반복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 ② 4문단에서 장단을 칠 때 기분이 되는 장단을 흐트러트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악곡의 흐름이나 연주자의 해석에 따른 변주가 가능하다고 제시하고 있다.
- ③ 1문단에서 장단이 보통박을 기준으로 삼으며 여러 개의 소박이 모여서 하나의 보통박을 이룬다고 설명하고 있다.
- ⑤ 5문단에서 장단이 음악의 진행을 시간적으로 안내하며 음악의 분위기를 이끌어 갈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핵심 구조화

① 강약 ② 보통박 ③ 점

쉬운 어휘·어법

- 1 (1) ㉠ (2) ㉡ (3) ㉢ 2 (1) ㉠ (2) ㉡ (3) ㉢ (4) ㉣ (5) ㉤
3 ㉤

3 <보기>와 ⑤의 밑줄 친 단어는 모두 표준 발음법 제18항이 적용되어 발음된다.

최근에는 공공 디자인에도 친환경적인 실험, 즉 그린 공공 디자인의 시도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사실 환경과 도시가 공존하는 것만큼 공공 디자인의 좋은 예도 없을 것이다. 또한 공공 디자인이란 사람들의 편의를 고려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자연과의 균형을 통해 지속 가능한 공간을 창출해야 한다.

→ 1문단: 친·환·경적인 실험이 활발한 최근 공공 디자인의 흐름
바쁜 일상에 잠시나마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 주는 공공 벤치, 이러한 공공 벤치를 산업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만들 수도 있다. 바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설치된 재활용 공공 벤치 ㉠과

크 모바일(park-mobile)이 그 좋은 예이다. 이 공공 벤치는 철제 쓰레기 수거함을 재활용한 것이다. 길이 16미터, 폭 6미터의 공공 디자인의 친환경적인 실험과 관련이 있음. 수거함 안쪽은 각종 식물들을 심어 작은 정원으로 만들었고 환경과 도시가 공존하는 모습을 보여 줌. (사람들의 편의 + 자연과의 균형) 쪽은 시민들이 언제든지 쉴 수 있도록 의자로 만들었다. 특히 '파

크 모바일'의 장점은 그 이름처럼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다는 '모바일' → '이동성이 있는'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 점이다. 평소에는 공공 벤치로 활용하고 행사 때나 교통이 복잡할 때는 언제든지 다른 곳으로 이동시켜 원활한 교통을 돕는다.

→ 2문단: 친환경적 공공 디자인의 사례 ① - 파·크·모·바·일
늦은 밤 우리의 길거리를 환하게 해 주는 고마운 존재인 가로등은 대표적인 공공 시설물 중 하나이다. 하지만 전력 소모량을 늘리는 대표적인 시설물 중 하나이기에 불필요한 전력 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사용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영국의 대표적인 산업 디자이너 중 한 명인 '로스 러브그로브'가 디자인한 태양광 활용 가로등이 눈길을 끈다. 이 가로등의 이름은

㉡ '솔라 트리(solar tree)'로, 낮에는 태양광 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밤에는 전기 에너지로 바꾸어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외관 역시 도심 속 나무를 연상시키는 조형미로 일 반적인 가로등에 비해 보기에도 예쁘다. 하단에는 원형의 벤치 심미적임, 기능적임. 가 설치되어 있어 시민들이 잠시 쉴 수 있는 공간도 제공해 준다.

→ 3문단: 친환경적 공공 디자인의 사례 ② - 솔·라·트·리
이제 공공 디자인도 ㉢ 친환경적인 아이디어를 담아야 하고, 시민들의 편의성 도모, 보기에 아름다워야 함. 기능적인 측면에서나 심미적인 측면에서도 다수의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자연을 배려하지 않는 디자인 역시 진정한 의미의 공공 디자인이라 하기 어렵다. 우리가 사는 지구는 인간의 전유물이 아니다. 환경을 배려할 때 지속 가능한 공공의 삶이 확보될 수 있다. 자연과 인간 그리고 보편성, 이것이 미래 공공 디자인이 지녀야 할 핵심 가치
미래 공공 디자인의 핵심적인 가치가 될 것이다.

→ 4문단: 미래 공공 디자인의 핵심적 가·치

» **지문 해제** 이 글은 '공공 디자인'에 대한 글쓴이의 주장을 전달하고 있는 글이다. 공공 디자인이 사람들의 편의를 고려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자연과의 균형을 통해 지속 가능한 공간을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히며, 공공 디자인의 핵심적인 가치에 대한 글쓴이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01 ①과 ④ 모두 환경을 배려한 시설물이지만, 재활용을 통해 만든 것은 ①뿐이다. 둘 다 시민들의 편리를 추구하면서 환경을 배려한 시설물로 환경과 도시가 공존하는 모습을 보여 주어 미래 공공 디자인의 핵심적인 가치를 드러낸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다.

02 글쓴이는 자연과 인간 모두를 배려하는 공공 디자인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인간을 위한 제품을 만들면서도 환경 오염 물질을 최대한 적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①이 글쓴이의 관점과 가장 유사하다.

오답 풀이

- ② 사람들이 편리하게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은 인간만을 중요하게 여기는 관점이 담긴 것이므로, 글쓴이의 관점과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
- ③ 글쓴이는 디자인에서 친환경적인 것을 가장 중시하는 입장이며 거기에 더해 기능적인 측면과 심미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정서'의 관점은 환경에 대한 관심이 보이지 않고 심미성과 함께 실용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므로 글쓴이의 관점과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
- ④ 글쓴이는 가장 중요한 것은 자연과 인간 모두를 배려하는 디자인이라고 말하며 기능적·심미적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진'의 관점은 심미적·기능적인 우수성만을 강조하고 있을 뿐 환경에 대한 생각을 담고 있지 않으므로 글쓴이의 관점과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
- ⑤ 글쓴이는 공공 디자인이 다수의 공감을 획득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을 뿐 글쓴이가 예술의 대중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 따라서 예술의 대중화를 주장하는 '서정'의 관점은 글쓴이의 관점과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

03 이 글에는 환경 친화적인 공공 디자인의 사례가 나타나 있으므로, 공공 시설물인 인도 위에 버튼식 패드를 설치하여 전기가 생산되도록 한 ③의 사례가 추가적으로 제시될 수 있다.

오답 풀이

- ① 제품을 재활용한다는 면에서는 환경 친화적이지만, 공공 디자인의 사례는 아니다.
- ② 디자인을 통해 자연을 배려하는 태도를 기르도록 한 것이지만 화장지 상자는 공공 디자인으로 볼 수 없다.
- ④, ⑤ 환경 친화적이기는 하지만, 쇼핑백이나 신발은 개인에 의해 소비되는 제품으로 공공 시설물이 아니다.

04 친환경적 아이디어는 버려지는 자원을 재활용하거나 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줄이는 등의, 환경(자연)을 생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능적 측면을 만족시키는 것은 2문단의 '파크 모바일'처럼 사람들의 편의성을 고려하는 것을 의미하며, 심미적 측면을 만족시키는 것은 3문단의 '솔라 트리'처럼 보기에도 아름다운 디자인을 의미한다.

오답 풀이

- ① ③은 친환경적, 기능적, 심미적인 측면을 모두 만족시키는 디자인을 말하는데 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막는 것은 친환경적인 것에 국한된 설명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③ ③에서 말하는 친환경적인 아이디어는 자연을 배려하는 것이지 자연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③에 의미 있는 사회적 메시지를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은 들어 있지 않다.
- ④ 기존의 디자인과 조화를 이루는 것은 ③에서 말하는 것과 관계가 없으며, ③에서 말하는 친환경적인 아이디어는 주변 환경에 어울리는 것이 라기보다 자연과 환경을 생각하는 것이다.
- ⑤ ③에서 말하는 친환경적인 아이디어는 단순히 자연과 환경을 연상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핵심 구조화

① 지속 ② 공감 ③ 배려 ④ 보편성

쉬운 어휘·어법

1 (1) ㉠ (2) ㉡ (3) ㉢ (4) ㉣ 2 ㉢

2 바짓단을 길게 할 때에는 바지의 아래 끝을 접어서 감친 부분, 즉 숨겨진 부분을 꺼내서 바지의 길이를 늘게 하는 것이므로 '늘이다'가 아니라 '늘리다'로 쓰는 것이 옳다.

오답 풀이

- ① 선분의 길이를 길게 하는 것이므로 '늘이다'가 맞다.
- ② 고무줄의 길이를 길게 하는 것이므로 '늘이다'가 맞다.
- ④ 수가 많아지게 하는 것이므로 '늘리다'가 맞다.
- ⑤ 능력이 높아지게 하는 것이므로 '늘리다'가 맞다.

밀레와 쿠르베가 본 아름다운 인생 박해성

밀레의 「이삭줍기」를 보자. 지금은 별로 놀랄 일이 아니지만 밀레가 「이삭줍기」를 발표했을 당시에 미술계는 발칵 뒤집어졌다. ‘하찮은 농부’를 모델로 썼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귀족의 전 유물인 그림에 농부가 주인공으로 나온 것은 충격적인 사건이었고, 일부 계층에서는 밀레에게 엄청난 비난을 퍼부었다. 심지어 회화의 가치를 떨어뜨린다고 생각한. 어 가난한 민중을 부추겨 혁명을 유도하는 선동가라고 매도하기도 했다. 하지만 밀레는 결코 혁명을 선동한 화가가 아니었다. 바르비종이라는 조용한 시골에서 농부의 삶을 종교적인 숭고함으로 승화시킨 화가였을 뿐이다.

→ 1문단: 농(부)를 주인공으로 등장시켜 충격을 준 「이삭줍기」

19세기 중반 프랑스에서는 시민 의식과 자의식의 발로로 시민들도 인간답게 살고자 하는 의지가 높아지기 시작하였다. 이 낮은 계층 사람들의 생각이 변화한. 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출현한 사조가 사실주의이다. 사실주의 화가들이 선택한 모델은 농부, 시민, 화가 등 일상에서 만나는 평범한 사람들이었다. 신분이 낮다고 인격마저 낮은 것은 아니다. 삶이 가난하다고 주인공이 될 수 없는 것은 아닌 것이다.

→ 2문단: 사(실)주(의)가 나타나게 된 사회적 배경

그러나 사실주의 이전의 그림은 왕과 귀족 등 특정 계층만이 누리는 문화였다. 대부분의 그림은 종교화이거나 자신의 부와 지위를 과시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었으며 우아하거나 이상적인 모델이 주인공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사실주의 화가들이 신분 이 낮은 농부, 가난한 시민을 그림의 주인공으로 등장시킨 것은 당시의 지배적인 사고방식에 도전하는 새로운 시도였기 때문에 엄청난 용기를 필요로 하는 파격적인 시도였다.

→ 3문단: 사실주의 화가들의 파(격)적인 시도

이번에는 쿠르베의 「안녕하세요, 쿠르베 씨」를 보자. 오른쪽 이 쿠르베의 모습인데 길을 가다가 그의 후원자인 은행가를 만나는 장면이다. 쿠르베의 치켜든 얼굴과 수염이 눈에 들어온다. 얼굴, 지팡이, 서 있는 모습에는 자신감이 넘친다. 참으로 당당하고 멋지지 않은가? 이 만남에서 은행가처럼 화가도 결코 기죽지 않는다. 사람의 만남이 지위의 만남은 아니기 때문이다.

→ 4문단: 「안녕하세요, 쿠르베 씨」에 드러난 인물의 당(당)한 모습

이렇듯 ㉠ 사실주의 화가들은 귀족들의 화려한 삶과 평범한 사람들의 소박한 삶을 저울질하지 않았다. 삶은 사회적 지위의 높고 낮음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각자 주어진 역할에 충실하며 자신의 가치를 높이고 행복을 찾는다면 그것이 곧 아름다운 인생 아닐까?

→ 5문단: 사실주의 화가들이 추구한 가(치)

» **지문 해제** 이 글은 사실주의 화가인 밀레와 쿠르베의 그림을 설명하는 글이다. 밀레와 쿠르베의 그림에서 드러나는 소재의 파격성과, 그것을 통해 무엇을 표현하려 하였는지를 사실주의 그림의 의의와 관련지어 설명하고 있다.

01 ④ 02 ④ [① 사실주의 ② 농부 ③ 당당 ④ 소박한] 03 ① 04 ④

01 1문단에서 밀레가 「이삭줍기」를 발표했을 때, 당시 미술계는 발칵 뒤집어졌다고 하였는데, 이때 미술을 향유하던 계층은 엄청난 비난을 퍼부었다고만 했을 뿐, 이 작품에 대한 칭찬도 있었다는 설명은 없다.

오답 풀이

- ① 1, 4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② 3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③ 1, 3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⑤ 2, 4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02 4문단에서 쿠르베의 「안녕하세요, 쿠르베 씨」에는 후원자 앞에서도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쿠르베 자신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고 하였다. ‘조심스럽게 행동’한다는 것은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과 거리가 먼 말이다.

오답 풀이

- ① 2문단에는 사실주의 화가의 작품 특징이 제시되는데 그러한 특징을 보여 주는 예로서 1문단에서 밀레의 「이삭줍기」, 4문단에서 쿠르베의 「안녕하세요, 쿠르베 씨」를 제시하였다.

03 3문단에서 그림이 자신의 부와 지위를 과시하는 수단으로 이용된 것은 사실주의 이전의 그림이라고 하였다.

오답 풀이

- ② 3문단에서 사실주의 이전의 그림은 특정 계층만이 누리는 문화였는데, 사실주의 그림에서는 농부나 가난한 시민이 그림의 주인공으로 등장한다고 하였다. 이는 그림이 더 이상 귀족의 전유물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이 그림의 대상이 되고, 그림을 향유하기도 하는 시대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 ③ 2, 3문단을 보면, 사실주의 화가들은 가난한 시민이나 신분이 낮은 사람들을 주인공으로 선택했다.
- ④ 3문단에서 사실주의 이전의 그림인 종교화와 비교하여 사실주의 그림은 농부나 가난한 시민들을 모델로 그들의 삶, 현실의 삶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음을 알 수 있다.
- ⑤ 2문단에서 19세기 중반 프랑스에서 시민들이 인간답게 살고자 하는 의지가 높아지기 시작하는 분위기 속에서 출현한 사조가 사실주의라고 하였다.

04 이 글의 글쓴이는 사실주의 화가들이 평범한 시민들을 그림의 주인공으로 그린 것은 평범한 시민들도 성실하고 행복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 주기 위해서라고 보고 있다. 이를 통해 귀족이나 돈이 많은 특권층만이 가치가 있고 중요한 사람들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도 똑같이 존중받아야 할 중요한 존재임을 사람들에게 인식시키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핵심 구조화

① 농부 ② 숭고함 ③ 역할 ④ 가치

쉬운 어휘·어법

1 (1) 매도 (2) 숭고 (3) 발로 (4) 지위

2 (1) 승화 (2) 과시 (3) 전유물 3 ②

예술 개념, 움직이는 미로 조광제

현대 예술에서는 기존의 통념이 무너지고 예술 작업이 자유롭고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어져 온 예술에 대한 통념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그것은 현대에 어떤 변화를 겪고 있는가? → 1문단: 예술에 대한 통념과 그 변화

첫째, 예술이 인간 고유의 고급한 정신 활동의 산물이라는 관점이 있다. 이러한 관점은 르네상스 시대의 예술가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돌아보면서 스스로를 위대한 인물로 여기는 데서 시작되었으며, 헤겔(Hegel)이 예술을 철학, 종교와 더불어 인간의 고급한 정신 활동의 하나로 자리매김함으로써 정립되었다. 예술 작품을 감상함으로써 일상적인 생활에서는 획득할 수 없는 수준 높은 정신 영역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은 우

예술에 대한 통념 ①: 예술 = 고급한 정신 활동의 산물

현대에는 예술이 인간 고유의 고급한 정신 활동으로, 수준 높은 정신 영역으로 나아가게 해 준다는 통념이 깨짐.

→ 2문단: 예술이 인간의 고급한 정신 활동의 산물이라는 관점과 그 변화

둘째, 예술이 진정한 가치를 지닌 무엇인가를 모방한다는 관점이다. 이른바 미메시스(mimesis) 예술관인데,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등의 그리스 철학자들에 의해 처음 제기되었다. 이 관점에 의하면, 모든 객관적인 사물과 현상에는 아름다운 원형, 즉 본질이 따로 존재하며, 예술가는 사물이나 현상의 겉모양을 있는 그대로 그려 내는 데 그치지 않고 그 대상이 지닌 본질을 적절하게 모방함으로써 이를 감상자들에게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하게 해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⑦ 1839년에 발명된 사진술

예술에 대한 통념 ②: 예술 = 모방

이 예술에서 모방의 힘을 박탈하기 시작했다. 그 후 예술은 모사진술은 미메시스적 예술이 사라지고 독창적인 모더니즘 예술이 등장하는 계기가 됨. 방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독자적이면서 충만한 자신만의 예술 세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생각이 널리 퍼지기 시작했다. 그러면 1920년대 일어난, 근대적인 감각을 나타내는 예술상의 여러 경향에서 등장한 것이 모더니즘 예술관이다.

→ 3문단: 예술이 본질의 모방이라는 관점과 그 변화

셋째, 예술이 아름다움, 곧 미(美)를 표현하는 것이라는 관점이다. 18세기에 바움가르텐이 예술과 미를 따로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예술 = 미'라는 심미주의(審美主義) 예술관이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았다. 심미주의 예술관에서는 예술은 미(美) 자체로서 충분하며, 정치나 윤리 등 그 어떤 목적이나 의미도 그 속에 내포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세기 이후 모더니즘 예술이 극단적인 양상을 띠면서 '미'를 대신해 '충격'이 자리를 잡게 된다. 즉 전혀 예상치 못한 통념으로 자리잡았던 심미주의 예술관의 '예술=미'가 '예술=충격'으로 변화함. 발상과 표현으로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는 것이 예술로 여겨지기 시작했다.

→ 4문단: 예술이 미의 표현이라는 관점과 그 변화

01 ⑤ 02 ⑤ 03 ② 04 ⑤ [① 본질 ② 모방 ③ 심미주의 ④ 충격]

» 지문 해제 이 글은 현대 예술에서 예술에 대한 기존의 통념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즉 예술이 인간의 고급한 정신 활동의 산물이라는 관점, 예술이 사물이나 현상의 아름다운 원형을 모방한 것이라는 관점, 예술이 모든 의미를 배제하고 오직 미 자체를 표현한 것이라는 관점이 각각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변화했는지 소개하고 있다.

01 이 글은 통념으로 여겨지던 예술에 대한 다양한 관점들이 현대 예술에서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분석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 답 풀이

- ① 예술에 대한 통념이 변화하게 된 사회적 배경은 언급하지 않았다.
- ② 예술에 대한 통념이 현대 예술에서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설명한 글로, 그 변화 가능성을 설명한 글이 아니다.
- ③ 새로운 예술 사조, 즉 모더니즘에 대한 설명이 나타나 있으나, 맥락상 이 글의 중심 화제로 볼 수는 없다.
- ④ 예술에 대한 기존의 관점을 설명하고는 있지만, 그 문제점과 해결 가능성을 다루고 있지는 않다.

02 <보기>의 작품은 예술에 대한 정신주의적 관점이나 미메시스적 관점, 그리고 심미주의적 관점 등 기존의 관점으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이는 4문단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전혀 예상치 못한 발상과 표현 방식으로 '미' 대신에 '충격'을 주는 새로운 예술로 볼 수 있다.

03 3문단의 ①에 이어지는 문장을 고려할 때, ①은 미메시스적 예술 사조가 물러가고 새로운 예술 사조인 모더니즘이 등장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 답 풀이

- ① 미메시스적 관점은 예술에서 재현과 모방을 의미하는데 ①은 이것을 옹호한 것이 아니라 포기하게 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하였다.
- ③ 모더니즘이라는 새로운 예술 사조의 등장이 예술적 가치의 약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 ④ 예술을 위한 예술을 추구하는 경향은 심미주의적 관점을 가리키는 말로, 그에 관한 변화는 4문단에서 다루고 있다.
- ⑤ 예술과 사진의 영역이 겹치게 된 것을 예술과 문명이 서로 충돌하는 상황으로 볼 수는 없다.

04 심미주의 예술관에서 미 이외의 어떤 목적이나 의미도 예술 속에 내포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통념이 변화하여 예술에 목적이나 의미가 내포되어야 한다고 본 것이 아니라 미 대신 충격이 담겨야 한다고 보았다.

핵심 구조화

① 정신 ② 모방 ③ 미 ④ 사진술 ⑤ 표현

쉬운 어휘·어법

- 1 (1) 시사 (2) 구축 (3) 양상 (4) 발상 2 (1) 통념 (2) 모방 3 ①

「홍부전」을 읽는 눈-정철현

고전 소설 「홍부전」은 욕심 많은 형은 망하고 마음씨 착한 동생은 부자가 되었다는, 유치한 줄거리를 담고 있다. 고전 소설의 특징으로 꼽는 권선징악이라는 결말을 대표하는 작품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그 **뻘한** ㉠「홍부전」의 참뜻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 1문단: 「홍부전」의 **참(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요즘 사람들은 **홍부를 긍정적으로 보는 것조차 주저한다**. 형에게 빌붙어 살았던 것, 가족을 굶주리게 했던 것을 들어 의타심과 무능함을 꾸짖기까지 한다. 하지만 홍부가 왜 형 집에서 살고 있었을까? **만아들이었던 놀부는 부모 재산을 몽땅 물려받은 대신 아우인 홍부를 거둬 주기로 했다**. 한정된 재산을 **홀어** 지지 않게 하기 위해 장자에게 재산을 몰아주고 장자에게 아우를 건사하도록 하는 것이 예전에는 흔한 일이었다. 「홍부전」은 이런 불평등한 조선 후기의 상속 제도를 배경에 깔고 있었던 것 **만아들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준다는 측면에서 불평등하다고 볼 수 있다**.

→ 2문단: 불평등한 조선 후기 **상(속)** 제도를 배경으로 하는 「홍부전」

또한 홍부는 게으른 인물도 아니다. 홍부 부부는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굶주린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라면 아무리 험한 일도 마다하지 않았다. 하루하루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온갖 날품팔이를 했지만, 홍부 부부는 가장 손쉬운 일 하나만은 하지 않았다. 구걸이 그것이다. 자신의 궁핍을 자신의 노력으로 이겨내겠다는 굳은 다짐이 없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눈물겨운 분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끼니조차 제대로 이어 갈 수 없었다. 이처럼 **공평하지 못한 사회**, 이것이 홍부 부부가 처했던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질 수밖에 없었다(빈익빈 부익부) 현실 **던 조선 후기의 엄연한 현실**이었다.

→ 3문단: **공(평)** 하지 못한 조선 후기 현실을 보여 주는 「홍부전」

한편 놀부는 인간이 지켜야 할 윤리에 도통 아랑곳하지 않던 존재였다. 놀부의 관심은 오로지 재물을 모으는 데만 있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못 하는 짓이 없었고, 남의 불행을 자신의 행복으로 여기던 자였다. 하나밖에 없는 동생까지도 재산 축적에 방해가 된다고 쫓아냈는데, **충이니 효이니를 말해 무엇 하겠는가?** 놀부는 더불어 함께 살아가던 공동체의 질서를 무시하고 재물만을 최고로 여기는 황금만능주의에 빠진 인물이었던 것이다.

→ 4문단: **황(금)만(능)주(의)**를 보여 주는 「홍부전」의 놀부

「홍부전」은 단순히 형제간의 우애만을 권장하던 이야기가 아니었다. 조선 후기의 사회 모순과 그 해결 방법을 한 형제의 사례를 통해 보여 주는 이야기였다. 「홍부전」에서 꿈꾸던 세상은 돈이 인간을 지배하는 세상이 아니라, 인간이 더불어 사는 대동

01 ② [1 2 2 놀부 3 공평 4 의타심] 02 ② 03 ⑤
04 ④

세계였다. 재물에 대한 끝없는 탐욕이야말로 인간을 파멸로 빠뜨리고야 말 것임을 「홍부전」은 생생하게 보여 주고 있다.

→ 5문단: 인간이 더불어 사는 **대(동) 세(계)**에 대한 꿈을 보여 주는 「홍부전」

» **지문 해제** 이 글은 고전 소설 「홍부전」의 내용을 조선 후기 사회·경제적 현실과 관련지어 비평하고 있는 글이다. 글쓴이는 홍부가 가난한 이유를 불평등한 조선 후기의 상속 제도와 홍부 부부가 처한 당시의 현실에서 찾고 있으며, 「홍부전」 안에 담긴 조선 후기 사회의 모순을 제대로 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01 글쓴이는 홍부의 가난이 홍부 개인의 탓이 아닌 사회 문화적 상황과 관련 있음을 들고 있지만, 유교적 가치관의 붕괴나 의타심의 확산이 아니라 불평등한 상속 제도와 황금만능주의를 문제 삼고 있다.

02 이 글은 「홍부전」을 당시의 사회 문화적 상황과 관련지어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작품을 인물이 처한 상황인 식민지 현실과 관련지어 해석한 ②가 이 글과 가장 유사한 관점이라고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 ① 작품의 형식적 특징을 바탕으로 해석하고 있다.
- ③ 소설 속의 분위기를 통해 작품의 주제를 해석하고 있다.
- ④ 작품에 나타난 구조, 즉 형식적 특징을 바탕으로 해석하고 있다.
- ⑤ 작품에 드러난 내용을 있는 그대로 해석하고 있다.

03 글쓴이는 홍부가 게으르고 무능하다는 일반 사람들의 인식이 부당하다고 말하며 홍부의 처지를 당시의 사회 문화적 상황을 통해 해석하고 있다. 글쓴이의 생각에 놀부는 재물을 모으겠다는 목표 성취를 위해서는 아우도 버리는 탐욕스러운 인물이다.

[오답 풀이]

- ① 홍부는 무능한 것이 아니라 모든 재산을 차지한 놀부에게 내쫓겼기 때문에 가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 ② 홍부 부부는 자신들의 노력으로 궁핍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구걸만은 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 ③ 놀부가 부자가 된 것은 조선 후기의 상속 제도 때문이라고 하였다.
- ④ 마지막 문단을 보면, 결국 놀부는 자신의 탐욕 때문에 파멸했음을 알 수 있다.

04 글쓴이는 「홍부전」의 주제를 '형제간의 우애'나 '권선징악'으로만 보지 말고 당시의 사회 문화적 상황과 관련지어 파악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홍부전」은 당시의 사회 구조적 모순을 다룬 작품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핵심 구조화

① 상속 ② 공평 ③ 황금만능주의 ④ 모순 ⑤ 대동 세계

쉬운 어휘·어법

1 (1) 분투 (2) 축적 2 (1) 권선징악 (2) 날품팔이 (3) 장사
3 (1) ㉠ (2) ㉡ 4 ④

회화와 사진_한정식

다른 어느 예술보다도 회화와 사진은 깊은 인연을 맺어 왔다.
회화와 사진은 깊은 관련이 있음.
 무엇보다도 ㉠ 사진은 회화에서 태어난 예술 형식이다. 하지만
 차이점도 있다. → 1문단: 회화와 사진의 연관성과 차이점

첫째, 회화는 과학과 직접적 관계를 갖지 않지만 사진은 과학
 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사진이 과학과 밀접한 관련을 맺
 고 있다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그 하나는, 과학의 발달
 에 따라 사진의 인화 기술도 발달한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과학이 발달하면 사진을 인화하는 기술도 발달함.
 사진은 카메라의 눈부신 발달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사진을 찍는 카메라도 과학의 발달과 관련이 깊음.
 즉 성능이 좋아진 카메라의 개발에 따라 사진의 내용도 발전을
 함께해 왔다. → 2문단: 회화와 사진의 차이점 ① - 과학과의 관계

둘째, ㉡ 회화가 종합적 매체임에 비해, 사진은 분석적 매체
 라는 사실이다. 회화는 화가가 그림의 대상에서 느낀 모든 것을
 종합하여 화폭에 담는 데 비해, 사진은 어느 일순간의 모습만을
 찍게 되기 때문에 전체의 현실에서 일부분만 분리해 담는다. 즉
 셔터를 누른 어느 한 순간에 일정한 프레임 안에 잡힌 현실의
카메라의 프레임 안에 들어와 찍히면 우리가 생활하는 현실과 분리되어 정지된 한 순간의 모습이 됨.
 한 부분은 현실에서 따로 분리되는 것이다. 그것은 사물의 종합
 적 모습이 아니라, 어떤 순간이며 현실의 일부분이다. 그렇지만
분석된 요소 → 사진이 분석적 매체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
 회화는 비록 순간적 모습을 그리려고 해도, 그것은 순간적으로
 그릴 수가 없기 때문에 자연히 화가가 대상에 대해 느낀 종합적
회화가 종합적 매체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
 판단이 그림에 담기는 것이다. 공간적으로도 사진 공간이 현실
 공간의 실질적 일부분임에 비해, 회화의 캔버스는 작가에게 주
 어진 작가 임의의 공간이기 때문에, 작가의 상상력이 미치는 한
회가가 그리는 캔버스는 작가의 상상력이 무한하게 펼쳐지는 공간임.
 자유롭게 종합적으로 펼쳐진다.

→ 3문단: 회화와 사진의 차이점 ② - 종합적 매체와 분석적 매체
 마지막으로, 회화와 사진은 만들어지는 과정이 상반된다. 회
 화는 빈 공간에 사물을 하나하나 더해 가면서 화면을 구성해 간
회가가 그리는 캔버스는 작가의 상상력이 무한하게 펼쳐지는 공간임.
 다. 하지만 사진은 이미 모든 것이 존재하는 현실의 공간에서
 필요 없는 것들을 제외하고 필요한 것만 골라 찍는다. 즉 모든
모든 것이 다 있는 상황에서 찍고 싶지 않은 것은 찍지 않는다는 뜻
 것이 있는 현실에서 불필요한 것을 빼내는 것이다. 그렇기에 회
 화가 '덧셈'의 예술이요, 사진이 '뺄셈'의 예술이라면 가장 알기
 쉬운 비유가 될 것이다.

→ 4문단: 회화와 사진의 차이점 ③ - 만들어지는 과정

01 ① 02 ⑤ [① 회화 ② 완벽하게 ③ 현실 ④ 사실적인]
 03 ③ 04 ④

» **지문 해제** 이 글은 사진과 회화의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즉 회
 화와 달리 사진은 과학을 바탕으로 성립하였고, 회화가 종합적 매체인 데 비해
 사진은 분석적 매체이며, 회화는 '덧셈'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데 반해 사진은 '뺄
 셈'의 방식을 취함을 밝히고 있다.

01 이 글은 과학과의 관련성, 화폭(프레임)에 담기는 대상의 상태, 화면
 구성의 원리 등에서 사진과 회화의 차이점을 밝히고 있다.

02 <보기>에서 사진의 기원은 기원전 4세기의 카메라 오브스쿠라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사실적인 그림을 선보인 화가들이 주로 카메라
 오브스쿠라를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하였으므로 회화에서의
 사실성 추구가 사진술의 발달을 가져왔을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 ② <보기>를 통해 사진은 화가 자신이 그린 것을 복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림을 더욱 사실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되었던 것임을 알 수 있다.
- ④ 전체의 현실에서 일부분만 분리해 담는 사진의 특성은 회화와의 차이점
 으로, ①과 같은 표현의 이유가 될 수 없다.

03 <보기>는 사진의 특성 중에서 불필요한 대상을 골라 하나하나 빼 가
 면서 화면을 정리해 가는 사진의 특성을 잘 보여 준다.

[오답 풀이]

- ① <보기>는 과학과 무관한 상황이다.
- ② <보기>를 통해서 회화를 모방하여 사진이 탄생한 것인지 알 수 없다.
- ④ <보기>의 상황은 사진의 인화 기술과 관련 없는 상황이다.
- ⑤ 빈 공간에 사물을 더해 가면서 화면을 구성하는 것은 사진이 아니라 회
 화이다.

04 사진은 사물의 종합적 모습이 아니라, 어떤 순간이며 현실의 일부
 인이다. 전체가 아니라 일부분인 것이다. 현실의 일부가 분리, 분석되
 어 프레임 안에 담긴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것이 현실이
 변형되어 사진에 담긴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답 풀이]

- ① 3문단의 "전체의 현실에서 일부분만 분리해 담는다."에서 알 수 있다.
- ② 3문단의 "회화는 비록 순간적 모습을 그리려고 해도, 그것은 순간적으로
 그릴 수가 없기 때문에"를 통해 알 수 있다.
- ③ 3문단의 "회가가 대상에 대해 느낀 종합적 판단이 그림에 담기는 것이
 다."라는 부분에서 알 수 있다.
- ⑤ 회화는 캔버스에 임의의 공간이 설정되어 그러므로 작가의 상상력이
 자유롭게 펼쳐진다. 3문단의 "작가의 상상력이 미치는 한 자유롭게 종
 합적으로 펼쳐진다."에서 알 수 있다.

핵심 구조화

① 인화 ② 종합적 ③ 덧셈 ④ 뺄셈

쉬운 어휘·어법

1 (1) ㉠ (2) ㉡ (3) ㉢ (4) ㉣

2 (1) 종합적 (2) 실질적 (3) 분석적

영화의 앵글-루이스 자네티

『영화에서 ㉠대상을 촬영하는 앵글은 소재에 대한 감독의 해
 「: 감독은 앵글을 통해 피사체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도 한다는 의미
 설이나 주석으로서의 역할을 할 경우가 자주 있다.』 앵글이 평범
 하면 인물의 감정의 특색을 섬세하게 잘 표현해 주는 형식으로
 쓰일 수 있고, 앵글이 극단적이면 영상의 중요한 의미를 표현할
 수 있다. 앵글은 촬영되는 ㉡피사체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
 라 카메라의 위치에 따라 달라진다. 하이(high) 앵글로 촬영한
 카메라가 어느 높이에서 촬영하는가에 따라
 인물의 영상은 동일 인물을 로(low) 앵글로 촬영한 영상과 실제
 로 정반대의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 1문단: 영화에서 감독의 해(설)이나 주석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앵글

㉠하이 앵글은 그다지 극단적이지 않기 때문에 크게 혼란스
 림지는 않다. 카메라는 크레인 위에 설치되거나 혹은 저절로 높
 이 앵글은 새가 아래를 내려다보는 것처럼 위에서 아래로 촬영하는 것
 이 솟아오른 위치에 설치된다. 하지만 관객에게 전지전능하
 다. 따라서 이 앵글은 속도감을 전달하는 데는 효과적이지 못하
 고 오히려 따분한 느낌을 나타내고자 할 때 유용하다. 세팅이나
 배경의 중요성은 높아진다. 그 때문에 무대가 사람들을 집어삼
 켜 버릴 듯한 경우가 종종 있다. 하이 앵글에서는 피사체의 중요
 성이 감소된다. ㉡인물이 위에서 촬영되어 별로 악의가 있을 것
 같지도 않고 대수롭지 않게 보인다. 이 앵글은 또한 등장인물이
 자기 비하의 감정을 전달하는 데도 효과적이다.

→ 2문단: 높은 위치에 카메라가 설치되는 ㉠하이 앵글의 특징

㉡로 앵글은 하이 앵글과 반대의 효과를 발휘한다. 로 앵글
 은 피사체가 실제보다 더 높아 보이게 하기 때문에 수직성을 나
 타내는 데 유용하다. 키가 작은 ㉢배우를 크게 보이도록 할 때
 이 앵글은 더 적합하다. 로 앵글에서 움직임의 속도는 더 빨라
 보이고, 싸움 장면에서는 특히 그러하여, 그 혼란스러운 느낌을
 잘 포착한다. 로 앵글에서는 대체로 주변 환경은 최소화되고,
 종종 하늘이나 천장이 유일한 배경이 된다. 심리적인 면에서 로
 앵글은 피사체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인물은 ㉣관객 위에서 위
 협적으로 불쑥 나타나, 관객으로 하여금 불안하고 지배당하는
 느낌을 갖게 만든다. 밑에서 촬영된 인물은 공포와 경외심을 갖
 게 한다. 이런 이유로 로 앵글은 선전 영화나 영웅주의를 그리
 는 장면에 자주 쓰인다.

→ 3문단: 수직성을 나타내는 데 유용한 로 앵글의 특징

01 ③ 02 ② [① 수직성 ② 로 앵글 ③ 하이 앵글 ④ 피사체]
 03 ① 04 ⑤

» **지문 해제** 이 글은 영화에서 사용되는 앵글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 객관적으로
 설명한 글이다. 앵글의 종류를 '하이 앵글'과 '로 앵글'로 나눈 후 각 앵글의 특징
 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01 이 글은 영화에서 사용되는 앵글을 하이 앵글과 로 앵글로 나누어
 각각의 특징과 역할을 서술하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현대 영화의 특징과 한계는 언급하지 않았다.
- ② 영화 카메라의 종류와 장단점은 언급하지 않았다.
- ④ 두 가지 앵글의 특징을 서술했지만 영화 장르에 따른 앵글의 유형은 언
 급하지 않았다.
- ⑤ 앵글의 특징과 역할을 서술하고 있지 앵글의 발달 과정은 언급하지 않
 았다.

02 <보기>의 (가)는 전쟁 상황을 표현한 것으로 로 앵글로 촬영한 장면
 이다. 3문단에서는 대상의 움직임의 속도를 더 빨라 보이게 하는 로
 앵글이 싸움 장면에서의 혼란스러운 느낌을 잘 포착하는 효과를 거
 둘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오답 풀이

- ③, ④ (나)는 영웅의 모습을 로 앵글로 촬영한 장면이다. 3문단에서 키가
 작은 배우를 크게 보이도록 할 때 로 앵글이 적합하다고 하였으며, 로 앵
 글로 촬영된 인물은 공포와 경외심을 갖게 하여 선전 영화나 영웅주의
 를 그리는 장면에 자주 쓰인다고 하였다.

03 피사체의 중요성이 감소되는 것은 ㉠이 아니라 ㉡이다. 2문단의 “하
 이 앵글에서는 피사체의 중요성이 감소된다.”에서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 ② 2문단에서 하이 앵글은 ‘촬영된 대상의 높이를 축소’한다고 했다.
- ③ 3문단에서 로 앵글은 ‘수직성을 나타내는 데 유용하다’고 했다.
- ④ 2문단에서 하이 앵글은 ‘세팅이나 배경의 중요성은 높아진다’고 했다.
- ⑤ 하이 앵글과 로 앵글은 피사체를 촬영하는 카메라의 위치에 따라 구분
 된다.

04 ㉠, ㉡, ㉢, ㉣는 모두 촬영의 대상이자 피사체이다. 하지만 ㉤는 촬
 영된 대상을 화면을 통해 보는 사람들로, 지시하는 바가 ㉠~㉣와
 다르다.

핵심 구조화

① 따분한 ② 자기 비하 ③ 하늘 ④ 혼란스러운 ⑤ 경외심

쉬운 어휘·어법

1 (1) 포착 (2) 개관 (3) 비하 2 (1) 극단적 (2) 경외심 (3) 주석
 3 ①

3 ‘마룻바닥’은 고유어 ‘마루’와 고유어 ‘바닥’이 결합된 말이며 [마루
 뼈대]과 같이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바뀌므로 사이시옷이 표기
 된 것이다.

사랑에 대한 철학적 입장

ㄱ 사랑의 본질에 대한 토마스 아퀴나스의 설명은 인간의 사랑인 아모르에 대한 분석에 기초한다. 그는 인간이 선을 추구하려는 욕구를 지닌 존재인데, 욕구를 추구하는 인간 행위의 원천이 아퀴나스가 주목한 인간의 특성 아퀴나스가 제시한 사랑의 개념 바로 사랑이라 말한다. 이때 선이란 자신에게 좋은 것으로 자신 아퀴나스가 제시한 선의 개념의 본성에 적합하거나 자신에게 기쁨을 주는 것을 뜻한다.

→ 1문단: 아퀴나스가 제시한 **사(愛)**와 **선**의 개념

아퀴나스에 따르면 인간의 욕구는 감각적 욕구와 지적 욕구로 구별되는데, 이는 선을 추구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감각적 욕구와 지적 욕구의 공통점 크게 두 가지 차이점이 있다. 첫째, **감각적 욕구에 의한 추구 행위**는 대상에 의해 촉발되어 이에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것이다. 반면 감각적 욕구와 지적 욕구의 차이점 ① 지적 욕구에 의한 추구 행위는 지성의 능동적인 활동과 주체의 선택에 의해 일어나는 보다 적극적인 것이다. 둘째, **감각적 욕구는 감각적 인식 능력에 의해 선으로 인식된 것을 추구하는** 감각적 욕구와 지적 욕구의 차이점 ② 반면, **지적 욕구는 지성에 의해 선으로 이해된 것을 추구한다.** 왜냐하면 **감각적 인식 능력은 대상의 선악 판단에 개입할 수 없지만, 지성은 대상이 무엇이든 이해한 바에 따라 선악 판단을** 감각적 욕구와 지적 욕구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 다르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단맛이 나에게 기쁨을 준다면 **감각적 욕구는 사랑을 추구하겠지만, 지적 욕구는 사랑이 충치를 유발할 수도 있으므로 선이 아니라고 판단한다면 추구하지 않을 수도 있다.**

→ 2문단: 아퀴나스가 제시한 **감각적 욕구**와 **지(智)적 욕구**의 차이점

아퀴나스는 **감각적 욕구**와 **지적 욕구**가 있는 곳에는 항상 사랑이 있다고 말하며, **사랑이 선을 향한 감각적 욕구와 지적 욕구에 의한 추구 행위를 일으키는 힘이라고 설명한다.** 특히, 아퀴나스는 **감각적 욕구에 의한 추구 행위를 '정념'이라고 칭하며,** '정념'의 개념 **사랑을 전제하지 않는 정념은 없으며 선을 향한 사랑에서부터** 정념과 사랑의 관계 **여러 정념이 비롯된다고 하였다.** 만약 여러 대상에 대한 감각적 욕구들이 동시에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 **인간은 가장 먼저 추구할 감각적 욕구를 지성에 의해 판단하고 선택한다.** 정념과 지성의 관계 **다른 것보다 더 선이라고 이해된 것을 우선 추구하기 때문이다.** 결국 선이라고 이해되는 감각적 욕구를 추구하는 경향 아퀴나스가 말하는 인간의 사랑은 선에 대한 자신의 이해에 입각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선인 것에 대한 사랑을 근본으로 한다.

→ 3문단: **정(情)념**과 사랑에 관한 아퀴나스의 입장

01 ③ [1 아퀴나스 2 칸트 3 감각적 4 지적 5 아퀴나스]
02 ③ 03 ① 04 ⑤

ㄴ 칸트는 **감성적 차원의 사랑**과 **실천적 차원의 사랑**이 다르고 설명한다. **감성적 차원의 사랑**은 남녀 간의 사랑같이 인간의 경향성에 근거한 사랑이며, **실천적 차원의 사랑**은 의무로서의 칸트가 제시한 감성적 차원의 사랑과 실천적 차원의 사랑의 차이점 **사랑이라 할 수 있다.** 칸트는 **감성적 차원의 사랑보다는 실천적 차원의 사랑에 더 주목하고 가치를 부여한다.** 감성적 차원보다 실천적 차원의 사랑을 중시하는 칸트의 입장

→ 1문단: 칸트가 제시한 **감(情)성적** 차원의 사랑과 **실천적** 차원의 사랑

칸트에 따르면 인간은 **도덕 법칙을 실천하려고 하는 선의지** 칸트가 제시한 인간의 속성를 지닌 존재이다. 여기서 선의지란 **선을 지향하는 의지로 그 자체만으로 조건 없이 선택한 것이다.** 선의지의 개념 그는 인간이 **도덕적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은 이성인 인간에게 **도덕 법칙을 의무로 부여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칸트에게 의무란 **도덕 법칙에 대한 존경심 때문에 어떤 행위를 필연적으로 해야만 하는 것이다.** 이때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도덕 법칙은 '너는 무엇을 해야 한다'라는 명령의 형식으로 나타나며, 칸트는 선의지에 따라 의무로부터 비롯된 행위를 실천하는 것만이 도덕적 가치가 있다고 보았다.** 칸트가 말한 '의무'의 개념 도덕적 가치가 있는 행위에 대한 칸트의 입장

→ 2문단: **선(善)의지**와 의무에 대한 칸트의 입장

칸트의 관점에서 **감성적 차원의 사랑**은 욕구나 자연적 경향성에 이끌리는 감정이기 때문에, **의무로 강제하거나 명령을 통해 일으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감성적 차원의 사랑의 특성 그는 **어떤 경향성과도 무관하거나 심지어 경향성을 거스르지만, 도덕 법칙을 따르려는 의무로서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만이 참된 도덕적 가치를 지닌다고 보았다.** 그리고 **실천적 차원의 사랑만이 보편적인 도덕 법칙으로 명령될 수 있으며, 인간에 대한 실천적 차원의 사랑은 모든 인간이 갖는 서로에 대한 의무라고 말한다.** 칸트가 도덕적 가치를 지닌다고 인정하는 사랑

→ 3문단: **감성적 차원**과 구별되는 **실(實)전적** 차원의 사랑에 대한 칸트의 입장

- 2021학년도 11월 고1 학력평가

» **지문 해제** (가)에는 인간과 사랑에 대한 아퀴나스의 입장이, (나)에는 인간과 사랑에 대한 칸트의 입장이 나타나 있다. (가)에서 아퀴나스는 선을 향한 욕구를 감각적 욕구와 지적 욕구로 나누며, 사랑은 이 두 욕구에 의한 추구 행위를 일으키는 힘이라고 보았다. (나)에서 칸트는 사랑을 감성적 차원의 사랑과 실천적 차원의 사랑으로 나누고 실천적 차원의 사랑이 인간이 서로에게 갖는 의무이며 참된 도덕적 가치를 지닌 것이라고 보았다.

01 (가)에서는 감각적 욕구와 지적 욕구에 대한 아퀴나스의 입장을, (나)에서는 감성적 차원의 사랑과 실천적 차원의 사랑에 대한 칸트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가), (나) 모두 대비되는 개념을 통해 특정 학자의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

02 (가)의 3문단을 보면, 아퀴나스는 감각적 욕구에 의한 추구 행위를 '정념'이라고 칭했으며, 선을 향한 사랑에서부터 여러 정념이 비롯된다고 하였다. 이를 사랑이 정념에서 비롯된다고 말했다고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 ① (가)의 2문단에서 아퀴나스가 감각적 인식 능력은 감각적 욕구와, 지성은 지적 욕구와 관련 있는 것으로 보며 둘을 구별했음을 알 수 있다.
- ② (가)의 1문단에서 아퀴나스가 선을 자신에게 좋은 것으로 자신의 본성에 적합하거나 자신에게 기쁨을 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았음을 알 수 있다.
- ④ (나)의 2문단에서 칸트가 인간을 선의지를 지닌 존재로 보았음을 알 수 있다.
- ⑤ (나)의 2문단에서 이성이 인간에게 도덕 법칙을 부여하고, 도덕 법칙이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03 (나)에서 칸트가 사랑을 감성적 차원의 사랑과 실천적 차원의 사랑으로 구분했으며, 인간에 대한 실천적 차원의 사랑이 모든 인간이 갖는 서로에 대한 의무라고 생각했음을 알 수 있다. 칸트는 사랑의 의미를 개인에게 국한된 관점에서 바라보지 않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의무가 될 수 있는 것이라고 보았다. 그런데 (가)를 보면, 아퀴나스는 사랑을 인간 행위의 원천으로 개인에게 국한된 것으로 보았음을 알 수 있다. 칸트의 입장에서 개인에게 국한된 차원으로 사랑을 논하는 것은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오답 풀이

- ② (가)의 2문단에서 지성은 이해한 바에 따라 선악 판단을 다르게 할 수 있다고 한 것을 통해 아퀴나스가 지성에 의해 선악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고 여겼음을 알 수 있다.
- ③ (가)의 1문단에서 아퀴나스가 사랑을 인간 행위의 원천으로 보았음을 알 수 있다. 칸트가 말하는 감성적 차원의 사랑은 남녀 간의 사랑 같은 것이다. 아퀴나스에 따르면, 남녀 간의 사랑은 욕구에 의해 추구될 수 있는 것이다. 아퀴나스가 남녀 간의 사랑을 인간 상호 간의 의무로 인식했다고 하는 것은 (가)의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다.
- ④ (가)의 1문단에서 아퀴나스가 욕구를 추구하는 행위의 원천이 사랑이라고 한 데서 사랑과 욕구를 관련 있는 것으로 보았음을 알 수 있다.
- ⑤ (가)에서 아퀴나스는 사랑을 인간 행위의 원천으로 보았음을 알 수 있다. 아퀴나스는 인간의 욕구를 감각적 욕구와 지적 욕구를 구별하여 설명하였을 뿐, 사랑을 실천적 차원의 사랑과 감성적 차원의 사랑으로 구별하지 않았다.

04 <보기>를 보면, 갑은 이성인 을의 미소를 보고 첫눈에 반했고 용기를 내어 을에게 다가갔다. 이는 칸트의 입장에서 보면 인간의 경향성에 근거한 사랑으로 감성적 차원의 사랑에 해당한다. 칸트에 따르면, 실천적 차원의 사랑은 보편적인 도덕 법칙을 실천하는 것과 관련 있는 것으로 감성적 차원의 사랑과 구별된다. 따라서 갑이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을에게 다가갈 용기를 낸 것을 실천적 차원의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 주기 위한 것이라고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 ① 갑이 카레 냄새를 맡고 식탁으로 간 것은 카레 냄새에 의해 수동적으로 촉발된 행동이다. 이러한 점에서 감각적 욕구에 의한 추구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 ② 갑은 카레를 먹으면 봉사 활동에 늦을 것 같다고 판단해서 카레를 먹지 않고 봉사 활동을 하러 갔다. 이는 지성에 의해 자신에게 좋은 것, 즉 선이 무엇인지를 판단하고 행동한 것이다.
- ③ 갑은 무엇에도 구애받지 않고 기꺼이 어르신들을 도와드리면서 즐거움을 느꼈다. 칸트의 입장에서 이러한 갑의 행동은 아무 조건도 없이 도덕 법칙을 실천한 것으로 선의지에 따라 의무로부터 비롯된 행위를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④ 칸트는 남녀 간의 사랑을 자연적 경향성에서 비롯되는 감정이라고 이해하였다. 갑이 카페에 들어오는 을의 미소를 보고 첫눈에 반한 것은 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핵심 구조화

① 선 ② 사랑 ③ 실천적

쉬운 어휘·어법

1 (1) 분석 (2) 본질 (3) 입각 2 (1) ㉠ (2) ㉡ 3 ④

3 '헌'은 '오래되어 성하지 아니하고 낡은'의 의미를 갖는 관형사로도 쓰이지만, ④에 제시된 '헌'은 앞의 목적어 '단층집을'로 보아 '단층 집을 헐다'라는 문장에서 '헐다'라는 용언이 관형사형으로 활용된 형태로 보아야 한다. 어간 '헐-'에서 '-ㄹ'이 탈락하고 관형사형 어미 '-ㄴ'이 결합한 것이다.

오답 풀이

- ① '다른'은 '당장 문제 되거나 해당되는 것 이외의', '딴'의 의미를 갖는 관형사이다.
- ② '석'은 '냥', '되', '섬', '자' 따위의, 단위를 나타내는 의존 명사 앞에 쓰여 '셋'이라는 수량을 나타내는 관형사이다.
- ③ '다섯'은 수사로도 쓰이지만 체언을 수식하며 관형사로 쓰이기도 한다. ③에 제시된 '다섯'은 의존 명사 '개'를 수식하는 관형사로 사용되었다.
- ⑤ '옛'은 '지나간 때의'의 의미를 갖는 관형사이다.

스테인드글라스에 숨은 나노 과학 기술_공문제 외

스테인드글라스는 여러 색깔의 유리를 다양한 크기로 잘라서 스테인드글라스의 개념 납틀에 끼워 넣은 것으로 '유리그림'이라고도 한다. 스테인드글라스는 12세기 이후 교회 건축에서 꼭 필요한 예술로 자리 잡았다. 거대한 창을 아름다운 스테인드글라스로 장식하는 일은 빛으로 신을 표현하는 신비한 예술로, 스테인드글라스를 통해 비치는 아름다운 색채의 빛은 신비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내고, 사람들의 마음을 경건하게 해 주었다. 또한 당시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문맹이었으므로 성경 내용을 스테인드글라스로 표현해 스테인드글라스의 교육적 기능 교육 효과를 거두기도 했다. 즉 중세 교회의 스테인드글라스는 글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한 일종의 그림 성경이었던 셈이다.

→ 1문단: 스테인드글라스의 개념과 특징

중세의 장인들은 스테인드글라스를 이루는 멋진 색유리를 만들었는데, 그들은 그것이 오늘날의 나노 과학 기술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당시 장인들은 여러 번의 시도와 실패 끝에 염소(Cl)와 금(Au)의 화합물인 염화 금을 용해된 유리에 첨가하면 빨간색 유리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고, 이 비 중세의 장인들은 오늘날의 나노 과학 기술에 해당하는 기술을 활용해 스테인드글라스를 만들. 법을 활용하여 다양한 색깔의 스테인드글라스를 만들었다. 오늘날 이를 분석해 보니 스테인드글라스에는 금 나노 입자가 포함되어 있었고, 이것이 색유리에 골고루 섞여 빛을 적절히 흡수 또는 반사시킴으로써 짙은 붉은색을 띠는 것이었다.

→ 2문단: 다양한 색깔의 스테인드글라스를 만드는 원리

스테인드글라스는 다양한 모양과 크기의 색유리 조각을 붙여 만드는데, 아름다운 색깔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유리를 잘 만들어야 한다. 유리를 만드는 재료는 실리카, 즉 이산화 규소(SiO₂)로 이것은 모래의 주성분이다. 실리카는 녹는점이 1,720℃ 정도로 높은 편이어서 일반 용광로에서는 순수한 모래 중세의 기술로 유리와 스테인드글라스를 만들기는 쉽지 않았음을 알 수 있음.를 녹여 유리를 만들기 어렵다. 따라서 중세의 기술로 유리를 만드는 일, 나아가 스테인드글라스를 만드는 작업이 쉽지 않았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 3문단: 중세의 기술로는 만들기 어려웠을 스테인드글라스

모래에 석회, 탄산 칼륨, 산화 납 같은 첨가물을 넣으면 모래의 녹는점을 훨씬 낮은 온도로 내릴 수 있다. 이렇게 상대적으로 낮은 온도에서 모래를 녹인 다음 산화 금속, 황화물, 염화물 같은 다양한 첨가제를 섞어서 유리에 색깔을 낸다. 예를 들어 금 염화물을 넣으면 짙은 루비색을 낼 수 있고, 질산 은은 노란 첨가제를 넣어 다양한 색깔의 유리를 만든 사례색, 산화 구리는 녹색, 코발트는 파란색 스테인드글라스를 만들 수 있다. 그러므로 스테인드글라스로 교회를 장식했던 중세의 장인들은 색유리 만드는 원리를 설명하지 못했을 뿐, 금과 은의

01 ① 02 ② 03 ⑤ 04 ② [① 녹는점 ② 첨가제 ③ 1
④ 정의]

나노 입자를 이용할 줄 알았던 중세의 나노 과학 기술자였던 셈이다. → 4문단: 녹인 모래에 다양한 첨가제를 넣어 색유리를 만드는 방법

» **지문 해제** 이 글은 스테인드글라스에 반영된 나노 과학 기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중세의 장인들은 녹인 모래에 다양한 첨가제를 넣어 여러 색깔의 스테인드글라스를 만들었는데, 이와 같은 방식은 오늘날의 나노 과학 기술에 해당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01 이 글은 도입부에서 스테인드글라스라는 대상의 개념을 밝힌 후, 녹인 모래에 다양한 첨가제를 넣어 색유리를 만드는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오답 풀이]

- ② 스테인드글라스에 대한 통념을 제시하지 않았고, 이를 논리적으로 비판하지도 않았다.
- ③ 스테인드글라스가 지닌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도 제시하지 않았다.
- ④ 스테인드글라스를 만드는 원리는 분석하였으나, 이를 새로운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탐색하지는 않았다.
- ⑤ 스테인드글라스의 특징을 언급하였지만, 이와 관련된 나노 과학 기술이 완성되어 가는 과정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02 4문단에서 모래에 첨가물을 넣으면 모래의 녹는점을 훨씬 낮은 온도로 내릴 수 있다고 하였다.

[오답 풀이]

- ①, ⑤는 4문단, ③, ④는 1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03 3문단에서 중세의 기술로 유리를 만들거나 스테인드글라스를 만드는 일은 쉽지 않은 작업이었을 것이라고 하였다.

[오답 풀이]

- ① 4문단에서 녹인 모래에 코발트를 넣으면 파란색 스테인드글라스를 만들 수 있다고 하였다.
- ② 1문단에서 스테인드글라스를 통해 비치는 빛은 신비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낸다고 하였다.
- ③ 1문단에서 중세 교회의 스테인드글라스는 글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한 그림 성경의 역할을 했다고 하였다.
- ④ 2문단에서 용해된 유리에 염소와 금의 화합물인 염화 금을 넣으면 빨간색 유리를 만들 수 있다고 하였다.

04 중세에는 일반 용광로에서 1,720℃의 온도를 만들 수 없었기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첨가물을 넣어 모래의 녹는점을 내렸다고 4문단에서 설명하였다.

핵심 구조화

① 녹는점 ② 색깔 ③ 나노

쉬운 어휘·어법

- 1 (1) 경건 (2) 문맹 (3) 나노 2 (1) 일석이조 (2) 칠전팔기
3 ⑤

위작 가려내기.이연식

㉠ 위작을 가려내야 하는 입장에서 보면, 대부분의 위작은 기법과 재료가 해당 미술가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초보적인 실수를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금방 가려낼 수 있다. 문제는 소수의 매우 정교한 위작이다. 대부분의 위작을 걸러 냈다고 해도 한두 점의 위작을 진품으로 취급했다가 나중에 위작임이 드러나면, 앞서 이 위작을 진품으로 판정했을 때의 문제점을 진품으로 판정했던 전문가와 미술관 등의 위신은 땅에 떨어진다. 게다가 이로 인해 심각한 금전적 문제까지 발생한다.

→ 1문단: 위작을 진품으로 잘못 판정할 때의 문제점

최근에는 미술품의 진위를 가리는 데 과학 기술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엑스선을 미술품에 비추면 미술품의 내부 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 유화에 엑스선을 비추어 흰색 안료가 칠해져 있는 모양과 두께 등을 보면 화가 특유의 필치, 즉 화가가 붓을 움직이는 방식까지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를 통해 다른 누군가가 그 화가를 흉내 내어 붓을 놀렸을 경우 그 미묘한 차이까지 가려낼 수 있다.

→ 2문단: 미술품의 진위를 가리는 데 사용되는 과학 기술

또한 엑스선을 유화에 비추면 그 유화의 물감층 아래 다른 그림이 있을 경우, 즉 다른 그림을 바탕으로 삼아 그 위에 그렸을 경우 바탕이 되었던 그림이 떠오르게 된다. ㉡ 위작자들은 자신의 위작을 옛날 그림처럼 보이게 하려고 별로 유명하지 않은 화가의 진짜 옛날 그림을 구해서는 그 위에 유명한 화가의 스타일을 흉내 내어 그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밑에 숨겨져 있던 그림이 엑스선에 드러나면서 위작임이 탄로 나는 것이다.

→ 3문단: 엑스선을 유화에 투사해 진위를 가리는 방법

한편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법은 고고학에서 널리 사용되기 때문에 일반인에게도 그 명칭이 그리 낯설지만은 않다. 이 방법은 미술품에 사용된 재료가 얼마나 오래되었는지를 알 수 있게 해 주지만, 대체적인 시기만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시기가 오래된 것에만 효과적이다. 즉 몇십 년의 차이가 문제가 되는 미술품을 감정하는 데에는 약점이 있는 것이다.

→ 4문단: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법의 특징

이 밖에 자외선이나 적외선을 비추는 방법도 사용된다. 미술품에 자외선을 비추면 재질에 따라 자외선을 흡수하거나 반사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수정을 하거나 덧칠한 부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적외선을 비추면 물감층 아래에 있는 다른 물감층이나 물감으로 칠하기 전에 화가가 연필 파위로 그린 밑그림을 알아볼 수 있다.

→ 5문단: 미술품에 자외선, 적외선을 비추어 진위를 가리는 방법

» **지문 해제** 이 글은 미술품의 진위를 가리기 위해 여러 가지 과학 기술을 활용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위작을 진품으로 판정하는 잘못을 방지하기 위해 엑스선을 유화에 비추는 방법,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법을 활용하는 방법, 자외선이나 적외선을 미술품에 비추는 방법 등을 활용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01 이 글은 미술품의 진위를 가리는 방법을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고, 엑스선 투사,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 자외선 투사, 적외선 투사 등 다양한 과학 기술의 사용 방식을 중심으로 세부 내용을 구체화하고 있다.

02 2문단에서 ㉠은 화가 특유의 필치가 그림에 반영되었느냐를 기준으로 진품과 위작의 차이를 가려낸다고 하였고, 3문단에서 ㉡은 진품을 그린 유명한 화가의 스타일을 흉내 내어 위작을 그린다고 하였으므로, ㉠과 ㉡ 모두 ①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할 것이다.

오답 풀이

㉠ ㉠에서 위작을 가려내야 하는 이유는 위작은 아무리 정교할지라도 진품과 같은 금전적 가치를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위작을 원작으로 속이는 이유는 위작이 원작만큼 금전적 가치를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 과학 기술을 사용하여 미술품의 진위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여부는 이 글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다.

㉣ 진품을 판단할 때 기법과 재료가 판단 기준이 되므로 ㉠과 ㉡ 모두 '아니오'라고 대답할 것이다.

㉤ ㉡이 위작을 진품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진짜 옛날 그림 위에 위작을 덧그리는 것이므로, 이에 대해 진품만큼의 가치와 의미를 부여할지에 대해서 ㉠은 물론이고 ㉡도 '예'라고 대답하지 않을 것이다.

03 4문단에 따르면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법은 대체적인 제작 시기만을 알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 방법을 미술품의 제작 시기 측정에 적용했을 때는 구체적인 연도까지는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는 문제가 생긴다.

오답 풀이

㉠ 밑그림은 엑스선을 유화에 비추어 그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 미술품 위로 붓이 미세하게 움직인 방식은 유화에 엑스선을 비추는 방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미술품의 내부 구조는 엑스선을 미술품에 비추면 확인된다.

㉤ 시료가 오염되지 않았다 해도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법을 통해 제작 시기를 연 단위로 정밀하게 파악할 수는 없다.

04 <보기>는 감상자의 이해와 향유를 도왔다는 점에서 위작의 가치를 옹호하고 있다. 즉, 위작의 가치를 판정하는 데 위작 작가의 의도는 중요하게 여겨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원작과 위작이 얼마나 동일한가는 <보기>의 입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적절하지 않다.

핵심 구조화

① 엑스선 ② 방사성 ③ 자외선 ④ 물감층

쉬운 어휘·어법

1 (1) 위작 (2) 판정 (3) 안료 (4) 정교 (5) 탄로 (6) 고고학

2 미묘 3 ①